ChungNam
Heart of Korea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제1권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연설문집

[2006년 7월 1일 ~ 2007년 6월 30일]

충남도청행정자료실
AM017534

충청남도
www.chungnam.net


장 서
등록번호
AM 17534
경상남도 행정자료

제1권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연설문집

[2006년 7월 1일 ~ 2007년 6월 30일]

충청남도
www.chungnam.net


지사협의회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도정



▲ 민선4기 도정비전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로 정하고 취임한 제35대 이완구 충남도지사 (2006. 7. 3)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을 다짐하며... (2006.8.25)



▲ 범죄예방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2007.3.8)



▲ 은사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2007.5.11)

역동적인 산업 · 경제 기반 구축



▲ 아산 인주외국인투자지역에서 열린 알카텔 진공코리아의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2007. 4. 26)





▲ 도기업인대회에 참석, 기업인賞을 수여하고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2007. 5. 30)



▲ ASM社의 아서델 프라도 사장과 2,000만불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06.9.8)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주청과 대형건설업체 및 충남도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2007.5.2)

균형 있는 지역발전 기반 구축



▲ 경북도청을 방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도청이전 공조추진 협약을 체결하였다. (2007. 4. 12)





▲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 행정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며... (2006. 7. 10)



▲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초청,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2007. 5. 21)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세계종교 평화센터 조성을 위한 협의회에 참석, 지원을 약속하였다.(2006. 7. 14)

명품 문화 · 관광산업 육성



▲ 백제문화제 개막식에 참석, 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06. 9. 28)





▲ 세계軍평화축제의 밑그림을 제시하며... (2007. 3. 20)



▲ 백제문화제의 통합개최에 합의했다. (2007.1.10)



▲ 전국주부풍물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2006.9. 30)

활력 있는 농 · 어촌 건설



▲ 인삼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2006. 8. 3)





▲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2007. 4. 11)



▲ 수산연구소를 찾아 고급어종의 종묘생산기술 개발과 보급을 당부하였다. (2006.7.26)



▲ 농·어촌발전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박형규 씨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걸어주었다. (2006.11. 24)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



▲ 추석명절을 맞아 논산시에 소재한 '쎈뽈요양원'을 방문, 어르신들을 위로하였다. (2006.9. 29)





▲ 道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장애를 체험했다. (2006. 9. 27)



▲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 에 동참하였다. (2006.10.24)



▲ 국제결혼가정을 격려하며... (2006.11.17)

세계로 도약하는 충남 도정



▲ 중국 장쑤성의 량바오화성장을 예방, 교류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07. 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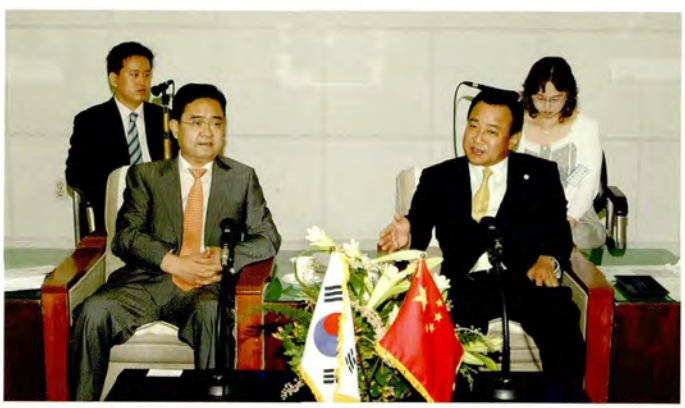




▲ 일본 나라현의 아라이 쇼고 지사와 문화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2007.6.13)



▲ 일본 구마모토현을 방문, 2010년 '大백제전' 의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2007. 6. 12)



▲ 중국 허베이성의 지윈스성장의 예방을 받고 양 지역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2006.7.10)

체육 强道의 위상 제고



▲ 제87회 전국체전에서 종합4위의 성적을 달성하고 돌아온 선수들을 환영하였다. (2006. 11. 2)





▲ 도민체전에 참석, 선수단을 격려하며... (2006.10. 28)



▲ 道체육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충남체육발전에 대한 협조와 성원을 당부했다. (2007. 2. 8)



▲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2006. 9. 12)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



▲ 道여성대회에 참석, 평등문화가정으로 선정된 부부에게 '평등문화가정 패' 를 수여하였다. (2006. 7. 7)





▲ 여성단체지도자들에게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협조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2007. 4. 2)



▲ 지역 여성언론인들에게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06. 7. 11)



▲ 제6회 '유관순상'을 수상한 김임순(거제도 애광원장) 여사에게 축하와 위로를 건네며... (2007.3.30)

건강하고 안전한 충남 구현



▲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물 통합관리를 선언하였다. (2007. 5. 3)





▲ 건강한 자연환경 구축을 위해 환경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06. 8. 25)



▲ 2006을지연습 실제연습을 참관했다. (2006. 8. 22)



▲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당부하며... (2007. 3. 29)

화합하는 조직문화 구축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종사한 직원들의 그간 노고를 위로하였다. (2006. 10. 16)





▲ 월례조회에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을 표창하였다.(2007.2.1)



▲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호우피해 상황 보고를 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2006. 7. 16)



▲ 道 공무원노동조합 창립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다. (2007.1.5)

머 리 말

이 책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께서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도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행사나 대회 때 말씀하신 연설문과 글을 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충남의 민선 4기 1년은 도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도전의식과 창의적인 행정, 그리고 강한 추진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이완구 지사께서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모토로 지역경제 활력화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먼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도(開道)이래 최초로 수출 400억불과 무역수지 흑자 160억불을 달성하였고, 의욕적인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006년 7월 이후 14억 35백만 불의 외자를 유치하고 495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양 등 낙후된 8개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건설업체와 지방업체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방침을 유보시켜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논산이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18년간 잠자고 있던 장항산단을 이슈화하여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가시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화합을 통해 확정된 도청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와 공조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공주와 백제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해 오던 백제문화제를 2007년부터 통합하여 개최하고, 세계적인 명품축제로의 육성을 위해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2010년 '大백제전'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황해권시대를 맞아 중국의 장쑤성과 허베이성, 일본의 구마모토현 그리고 러시아 아무르주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우호협력을 통해 세계 속의 충남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제1의 대표브랜드 쌀 육성과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통해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 내부적으로는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통해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고, 장기국외훈련을 통해 공직자들의 능력 계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이지사의 철학과 발자취가 담긴 이 책은, 앞으로 충남도정의 값진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책자가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도정을 올바르게 알리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면서, 이 책을 발간합니다.

2007년 7월

충청남도 비서실장

李 完 九 忠淸南道知事 演說文集 第1卷

차 례

2006년 7월

도전과 성취의 강한 충남 ····· 1

▶ 제35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취임사 / 7. 3.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 ····· 7

▶ 도지사 취임 감사 서한 / 7. 4.

지역통계의 신뢰성 제고 ····· 9

▶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 승격 현판식 축사 / 7. 5.

덕장 유덕준 행정부지사 퇴임 ····· 12

▶ 유덕준 행정부지사 퇴임식 치사 / 7. 5.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 15

▶ 제11회 여성주간기념 제23회 충청남도여성대회 기념사 / 7. 7.

5.31 지방선거의 역사적 사료 ····· 17

▶ 2006대전 · 충남 지방자치총람 발간 축사 / 7. 8.

범죄예방의 파수꾼 ····· 19

▶ 제11회 서산시자율방범가족 한마음대회 축사 / 7. 9.

파워풀 충남 ····· 21

▶ 중도일보사 기고문 / 7. 10.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 25

▶ 하북성 지원스성장 환영만찬 만찬사 / 7. 10.

민선4기의 과제와 전망 ····· 27

▶ 성공적인 민선4기를위한 과제와전망 토론회 환영사 / 7. 14.

환황해권 진출의 중심지 ····· 29

▶ 아산신도시 홍보관 개관식 축사 / 7. 14.

경로효친 정신의 계승 ····· 31

▶ 제1회 유림경로효친대상 시상식 축사 / 7. 14.

건강과 피서의 최고, 머드체험 ····· 33

▶ 제9회 보령머드축제개막 만찬 인사말씀 / 7. 15.

역동적인 충남건설 ····· 35

▶ 기업인워크숍 및 자치단체장과의만남행사 인사말씀 / 7. 18.

강원도민에게 보내는 정성과 위로 ····· 37

▶ 강원도지사에게 보내는 서한 / 7. 20.

녹색혁명의 기수 ····· 39

▶ 품목별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격려사 / 7. 27.

2006년 8월

26년 충남교육의 발자취 ····· 41

▶ 충남교육사 발간 축사 / 8. 1.

인삼 · 약초산업의 경쟁력 ····· 43

▶ 금산인삼약초시험장 개청식 식사 / 8. 3.

도민의 정체성 확립 ····· 46

▶ 충청남도지 발간 축사 / 8. 4.

자연미술의 진수 ····· 48

▶ 2006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축사 / 8. 8.

위대한 충남건설 ····· 51

▶ 제61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경축사 / 8. 15.

전시 재난수습능력 점검 ····· 54

▶ 2006을지연습실제훈련 강평 / 8. 22.

여성의 권익향상 ····· 57

▶ 여성단체지도자에게 보내는 서한 / 8. 24.

공연예술 중흥의 산실 ····· 59

▶ 제24회 충청남도연극제 축사 / 8. 26.

지구촌 최고의 건강식품 ····· 61

▶ 인삼음식 페스티벌 축사 / 8. 28.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 63

▶ 도민예절생활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 격려사 / 8. 29.

충청권의 상생발전 ····· 65

▶디트뉴스24 창간6주년기념 세미나 축사 / 8. 30.

2006년 9월

충남교육의 중흥과 도약 ····· 68

▶ 제5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개원식 축사 / 9. 1.

믿음 가는 충남보육 ····· 71

▶ 보육시설장에게 보내는 서한 / 9. 2.

민선4기 도정운영의 기본 틀 ····· 73

▶ 민선4기 도정운영기조 정립 세미나 인사말씀 / 9. 1.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 축원 ····· 76

▶ 수덕사 본사 · 말사 합동영산대재 축사 / 9. 2.

아름다운 복지공동체 ····· 78
▶ 제7회 사회복지의날 행사 기념사 / 9. 4.

백제역사와 문화의 시대적 조명 ····· 80
▶ 제6회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심포지엄 축사 / 9. 8.

이국땅에 핀 뜨거운 애향심 ····· 83
▶ 재독충청회임원진초청 만찬 인사말씀 / 9. 8.

농업의 블루오션 개척 ····· 85
▶ 2006충남농민전진대회 축사 / 9. 9.

스승존경의 마음 ····· 88
▶ 제6회 전국청소년적십자백일장대회입선작 시상식 격려사 / 9. 13.

가을 추억여행의 최적지 ····· 90
▶ 대전일보사 기고문 / 9. 14.

금산발전의 대동맥 ····· 93
▶ 추부-대전간 국도개통식 축사 / 9. 14.

농업과 농촌의 위기극복 ····· 96
▶ 2006충남4-H인 한마음대회 치사 / 9. 15.

보건의료인 양성의 터전 ····· 98
▶ 건양대학교의과학관 개관식 축사 / 9. 15.

통기타의 추억과 낭만 ····· 100

▶ 제2회 대천해변 통기타 음악축제 축사 / 9. 15.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 ····· 102

▶ 제14회 샌프란시스코 한국의날 민속축제 축사 / 9. 16.

스승존경운동의 기폭제 ····· 104

▶ 제11회 스승존경과제자사랑의글 및 편지공모입선작 시상식 격려사 / 9. 18.

향토연극의 대향연 ····· 107

▶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축사 / 9. 19.

세계평화를 위한 소중한 불씨 ····· 10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대표위원 워크숍 인사말씀 / 9. 19.

여성농업인의 미래 ····· 112

▶ 제5회 충남여성농업인대회 치사 / 9. 19.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 ····· 114

▶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충청남도선수단 결단식 식사 / 9. 19.

종교의 상생과 화합의 聖所 ····· 117

▶ 21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세계종교평화센터건립 세미나 축사 / 9. 21.

지구촌의 건강 축제 ····· 119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막식 환영사 / 9. 21.

인삼세계화의 첫 걸음 ····· 121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막 환영리셉션 인사말씀 / 9. 21.

신명나는 민속축제의 한마당 ····· 123
▶ 제16회 민속대제전 격려사 / 9. 22.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 ····· 125
▶ 제13회 충청남도기업인대회 대회사 / 9. 27.

승패를 떠나 우리는 한 가족 ····· 127
▶ 제12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대회사 / 9. 27.

충청권 일자리 창출 ····· 129
▶ 충청지역의 고용상황과 일자리창출관련 세미나 기조연설 / 9. 27.

찬란한 백제문화의 향연 ····· 132
▶ 제52회 백제문화제 개회식 치사 / 9. 28.

충남의 자랑, 역사박물관 ····· 135
▶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식 치사 / 9. 28.

충남 쌀 홍보 ····· 137
▶ 재인충남도민회장에게 보내는 충남쌀홍보 감사 서한 / 9. 29.

성대한 사물놀이 축제 ····· 139
▶ 제15회 세계사물놀이겨루기 한마당 축사 / 9. 30.

풍물의 흥과 멋 ····· 141
▶ 제10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주부풍물대회 치사 / 9. 30.

2006년 10월

역경을 예술로 승화 ····· 143

▶ 충남장애인시설 예능발표대회 격려사 / 10. 2.

새로운 희망과 활력 ····· 146

▶ 제11회 도민의날 담화문 / 10. 5.

넉넉하고 정감 있는 추석명절 ····· 149

▶ 추석명절 담화문 / 10. 6.

한글 사랑과 보전 ····· 151

▶ 제560돌 한글날 경축식 경축사 / 10. 9.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본보기 ····· 153

▶ 구마모토현지사 환영만찬 만찬사 / 10. 10.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 155

▶ 제19회 충남여성포럼 격려사 / 10. 10.

전통 국악의 선양 ····· 157

▶ 제7회 박동진 판소리명창 · 명고대회 축사 / 10. 11.

신명나는 풍물의 어우러짐 ····· 159

▶ 제5회 충남도지사기 일반풍물대회 축사 / 10. 12.

어른 공경의 미덕과 솜씨자랑 ····· 161

▶ 노인솜씨자랑 및 시조경창대회 축사 / 10. 13.

금산인삼의 무한한 가능성 ····· 163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폐막식 치사 / 10. 15.

추사의 예술혼 계승 ····· 166

▶ 제17회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축사 / 10. 15.

승리를 향한 뜨거운 투지 ····· 168

▶ 제87회 전국체전선수단 결단식 격려사 / 10. 16.

엑스포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 ····· 170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종사자 격려 인사말씀 / 10. 16.

군 문화 이해증진의 계기 ····· 172

▶ 지상군페스티벌 및 디펜스아시아2006 개막식 축사 / 10. 18.

대전 · 충남의 역할과 방향 ····· 174

▶ 지방자치포럼 환영사 / 10. 18.

충청인의 자긍심과 고향사랑 ····· 176

▶ 재부충청연합향우회 창립1주년 기념식 격려사 / 10. 19.

보육환경 개선 ····· 178

▶ 제5회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격려사 / 10. 21.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봉사 ····· 180

▶ JCI KOREA 제55차 전국회원대회 축사 / 10. 22.

상생하는 노사문화 ····· 182

▶ 노사화합 한마음다짐대회 격려사 / 10. 24.

나눔의 사랑 실천 ····· 184

▶ 제14회 충청남도 여성자원봉사자대회 대회사 / 10. 24.

충남경제의 활력화 ····· 186

▶ 지역경제활력화 대토론회 축사 / 10. 24.

디스플레이산업의 비상 ····· 188

▶ 충남디스플레이센터 개소식 개회사 / 10. 25.

새마을운동의 시대적 사명 완수 ····· 190

▶ 제12회 도의새마을운동촉진대회 치사 / 10. 25.

건강한 사회의 버팀목 ····· 192

▶ 2006충남자활한마당대회 격려사 / 10. 26.

충남경제의 성장 엔진 ····· 194

▶ 현대일관제철소 기공식 축사 / 10. 27.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 ····· 196

▶ 2006대전 · 충남중소기업엑스포 및 채용박람회 축사 / 10. 27.

도민화합의 축제 ····· 198

▶ 제5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대회사 / 10. 28.

공무원가족 화합의 한마당 ····· 200

▶ 도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대회 인사말씀 / 10. 28.

활기찬 직장을 위한 다짐 ····· 202

▶ 도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대회 마무리 인사말씀 / 10. 28.

청년정신은 지역발전의 구심점 ····· 204

▶ 제16차 충남지구JC특우회 우정의날 축사 / 10. 29.

건전 소비실천 다짐 ····· 206

▶ 건전소비생활 범도민다짐대회 격려사 / 10. 31.

지역발전의 최상위 법정계획 ····· 208

▶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안 공청회 축사 / 10. 31.

2006년 11월

체육 강도의 위상 ····· 210

▶ 제87회 전국체전선수단 해단식 축사 / 11. 2.

강한 충남 실현 ····· 212

▶ 한국의중심, 강한충남 실현을위한 정책토론회 축사 / 11. 3.

미래의 문화산업 동량 ····· 214

▶ 제8회 금강청소년영상예술제 시상식 축사 / 11. 4.

문화진흥의 디딤돌 ····· 216

▶ 충남문화 발간 축사 / 11. 4.

협력과 견제의 조화 ····· 218

▶ 충남 시 · 군의회의원 의정연수회 축사 / 11. 6.

사랑과 봉사의 실천 101년 ····· 220

▶ 대한적십자사창립 101주년기념 지사연차대회 축사 / 11. 9.

활력 있는 농촌 건설 ····· 222

▶ 제42회 충청남도4-H경진대회 시상식 축사 / 11. 9.

위기청소년 지원 ····· 224

▶ 충청남도 청소년CYS-net통합지원체제 출범식 격려사 / 11. 9.

지역사회의 숨은 봉사자 ····· 226

▶ 대전일보창간 56주년기념 제33회 대일비호대상 시상식 축사 / 11. 9.

충남 문화예술의 도약 ····· 228

▶ 2006충남문화예술인대회 축사 / 11. 11.

마라톤과 삶의 승자 ····· 230

▶ 제5회 전국구간마라톤대회 개회식 축사 / 11. 11.

마라톤 유망주 발굴의 산실 ····· 232

▶ 동아일보 2006백제마라톤대회 축사 / 11. 12.

지체장애인의 재활의지 ····· 234

▶ 2006충남지체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재활증진대회 축사 / 11. 13.

평화통일에 대한 갈망 ····· 236

▶ 2006년도 통일로가는한마음충청남도대회 및 제37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 격려사 / 11. 13.

한 해 성과의 나눔과 새로운 다짐 ····· 238

▶ 2006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만찬 치사 / 11. 14.

축산 명품브랜드 창출 ····· 240

▶ 2006축산인 한마음축제 격려사 / 11. 15.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인식전환 ····· 242

▶ 2006국제결혼가정 한마당축제 격려사 / 11. 17.

인삼산업의 육성 ····· 244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화보집 발간 축사 / 11. 18.

행복한 가정 가꾸기 ····· 246

▶ 제13회 도의새마을여인상시상식 및 행복한가정가꾸기실천대회 치사 / 11. 20.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 248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능대표위원 워크숍 인사말씀 / 11. 22.

충남의 산업디자인 진흥 ····· 250
▶ 충청남도 산업디자인공모전 시상식 축사 / 11. 22.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의 구심점 ····· 252
▶ 크리스탈밸리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회사 / 11. 22.

재래시장의 경쟁력 ····· 255
▶ 2006충남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축사 / 11. 23.

따뜻한 감성의 엔씨엔뉴스 ····· 257
▶ 인터넷신문 엔씨엔뉴스 창간 축사 / 11. 23.

희망의 농·어업 지킴이 ····· 259
▶ 제14회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 기념사 / 11. 24.

교통안전문화 의식 고취 ····· 261
▶ 제4회 장애인교통문화제 축사 / 11. 24.

재인천 향우의 화합과 결속 ····· 263
▶ 재인충남도민회정기총회 및 송년의밤행사 축사 / 11. 24.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격려 ····· 265
▶ 2006년도 청소년지도위원연수 격려사 / 11. 24.

범죄 없는 1등 도 ····· 267
▶ 충남여성자율방범연합대창립 발대식 및 범죄없는 1등도민운동결의대회 축사 / 11. 28.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269
▶ 2006충남벤처인대회 축사 / 11. 29.

2006년 12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 271
▶ 2006년도 보건진료원회학술대회 및 제25회 정기총회 치사 / 12. 1.

근로자 복지향상의 보금자리 ····· 273
▶ 충청남도근로자복지회관준공 및 개관식 기념사 / 12. 6.

수출진흥의 주역 ····· 275
▶ 제43회 무역의날기념 충청남도수출탑 시상식 격려사 / 12. 6.

중소기업의 경쟁력 ····· 277
▶ 제1회 충청남도우수중소기업제품 및 전통공예품전시판매전 개회사 / 12. 7.

장애를 딛고 희망을 연주 ····· 279
▶ 충남관악단「희망울림」제2회 정기연주회 축사 / 12. 7.

살기 좋은 충남 건설 ····· 281
▶ 2006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회원전진대회 축사 / 12. 8.

임업의 미래와 희망 ····· 283
▶ 임업인 한마음다짐대회 격려사 / 12. 11.

농업은 생명산업 ····· 285
▶ 2006년도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 대의원대회 격려사 / 12. 12.

자원봉사자의 땀과 노력의 발자취 ····· 287
▶ 전국자원봉사활동체험 우수사례집 발간사 / 12. 12.

기업인의 사기진작 ····· 289
▶ 기업인 워크숍 치사 / 12. 13.

도청이전 추진의 생생한 기록 ····· 291
▶ 도청이전백서 발간 축사 / 12. 14.

충청지역의 언론발전 ····· 293
▶ 제6회 목요언론인상시상식 및 제1회 언론인자녀 장학금수여식 축사 / 12. 14.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 주역 ····· 295
▶ 제10기 정예공무원양성과정 수료식 기념사 / 12. 15.

자원봉사활동 결산 ····· 298
▶ 2006충청남도자원봉사자대회 대회사 / 12. 20.

학교폭력 예방 ····· 300
▶ 2006밝은사회를위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축사 / 12. 21.

서해 중부권의 거점 항만 ····· 302
▶ 대산항개발사업(1단계 1차사업)준공식 축사 / 12. 22.

퇴임과 활기찬 제2의 인생 ····· 304
▶ 2006하반기 정년퇴임식 치사 / 12. 27.

도약과 보람을 일군 한 해 ····· 306
▶ 2006년 송년사 / 12. 31.

2007년 1월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힘찬 전진 ····· 307
▶ 2007년도 신년사 / 1. 1.

보람과 영광을 위한 힘찬 다짐 ····· 308
▶ 2007년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 1. 2.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체 ····· 310
▶ 2007대전 · 충남교육계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 1. 3.

창조적인 조직문화 ····· 312
▶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창립1주년기념행사 / 1. 5.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 314
▶ 2007충청남도여성계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 1. 5.

활력 있는 지역경제 창출 ····· 316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 1. 5.

고품질 전기의 안전한 공급 ····· 318
▶ 한국전기공사협회충청남도회 제40회 정기총회 치사 / 1. 16.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 ····· 320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전 · 충남지회장 이 · 취임식 기념행사 축사 / 1. 15.

도전과 성취의 한 해 ····· 322
▶ 중도일보사 '월요아침' 기고문 / 1. 15.

훈훈한 사회봉사활동 ····· 325
▶ 2007년도 충남지구JC특우회장 이 · 취임식 축사 / 1. 18.

농업의 경쟁력 제고 ····· 327
▶ 제11기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및임원 취임식 축사 / 1. 25.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출판기념회 ····· 329
▶ 오병주 부장검사 출판기념회 축사 / 1. 25.

역량을 모아 힘찬 도약 ····· 331
▶ 충청향우회중앙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행사 축사 / 1. 26.

인재 양성과 교육진흥 ····· 333
▶ 충청남도학원연합회 신년하례회 축사 / 1. 27.

고품질의 지역통계 생산 ····· 335
▶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 서산출장소 승격 현판식 축사 / 1. 31.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 ····· 337
▶ 퇴임식 격려사 / 1. 31.

2007년 2월

지역민의 법률고충 해소 ····· 339
▶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 개원식 축사 / 2. 1.

우수 인재의 양성 ····· 341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기공식 축사 / 2. 5.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중추적 수행 ····· 343
▶ 충남개발공사 개청식 치사 / 2. 6.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 ····· 345
▶ 2006학년도 청양대학 학위수여식 치사 / 2. 8.

희망찬 여생의 출발점 ····· 347
▶ 명예퇴임식 인사말씀 / 2. 9.

도덕과 신뢰회복운동의 확산 ····· 349
▶ 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협의회 정기총회 축사 / 2. 9.

수질관리 종합기구 ····· 351
▶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개소식 격려사 / 2. 9.

여성농업인의 역할 ····· 353
▶ 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장단 이 · 취임식 축사 / 2. 14.

농업발전의 든든한 밑거름 ····· 356
▶ 최고농업인 소식지 발간사 / 2. 15.

수출 농 · 업 육성 ····· 358
▶ 충남지역농수산물 수출증진을위한 전략개발 심포지엄 축사 / 2. 22.

통합방위태세 점검 ····· 360
▶ 2007년도통합방위 지방회의 인사말씀 / 2. 27.

2007년 3월

국운융성과 민족번영의 초석 ····· 362
▶ 제88주년 3 · 1절기념행사 기념사 / 3. 1.

순국선열의 숭고한 얼 ····· 365
▶ 삼일절기념 조찬기도회 인사말씀 / 3. 1.

대학생활의 힘찬 출발 ····· 367
▶ 2007학년도 청양대학 입학식 축사 / 3. 2.

주민과 함께하는 의료서비스 ····· 370
▶ 2007년도 제11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기총회 치사 / 3. 2.

축산업발전의 구심체 ····· 372
▶ 천안시축산발전협의회 창립총회 축사 / 3. 5.

지속가능한 충남발전 ····· 374
▶ 2007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4기위원 위촉식 축사 / 3. 5.

농약의 올바른 유통 ····· 377
▶ 2007년도 농약판매업관리인교육 축사 / 3. 6.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 379
▶ 제23회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 축사 / 3. 6.

범죄예방 결의 ····· 381
▶ 한국자율방범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범죄예방결의대회 축사 / 3. 8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 383
▶ ASM 지니텍코리아 준공식 축사 / 3. 15.

세계적인 축제를 위한 밑그림 ····· 385
▶ 세계군평화축제 자문회의 인사말씀 / 3. 20.

교통 안전 ····· 387
▶ 모범운전자회 충남지회 정기총회 축사 / 3. 22.

물의 소중함과 물 관리의 중요성 ····· 390
▶ 2007년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기념사 / 3. 22.

도정에 대한 애정과 고견 ····· 393
▶ 2007행정동우회 정기총회 축사 / 3. 23.

건전재정 노력 ····· 395
▶ 2006년도 재정분석우수기관 시상식 환영사 / 3. 26.

재난 · 재해 민간전문봉사단 ····· 397
▶ 재난 · 재해 전문봉사단 발대식 대회사 / 3. 27.

도민건강 증진 ····· 400
▶ 대한간호협회충남간호사회 대의원 총회 치사 / 3. 28.

유수기업 유치 ····· 402
▶ 2007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설명회 환영사 / 3. 28.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상 ····· 404
▶ 제6회 유관순상 시상식 식사 / 3. 30.

2007년 4월

지역안전의 첨병 ····· 407
▶ 제1회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축사 / 4. 1.

향토방위 ····· 409
▶ 제39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기념사 / 4. 5.

통일교육의 장 ····· 411
▶ 충남통일관 개관식 축사 / 4. 5.

딸기산업 발전의 토대 ····· 413
▶ 2007논산딸기 축제 치사 / 4. 6.

지역혁신의 활성화 ····· 415
▶ 충청남도지역혁신협의회 전체협의회 및 지역혁신세미나 격려사 / 4. 6.

복지겸장군의 나라사랑정신 계승 ····· 418
▶ 고려개국공신 태사무공공 복지겸장군 숭모식 추모사 / 4. 7.

우수 기능인 발굴과 육성 ····· 421
▶ 2007년도 충청남도지방기능경기대회 대회사 / 4. 11.

한·미FTA를 맞는 우리의 자세 ····· 424
▶ 충청신문사 기고문 / 4. 13.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 427
▶ 허베이성장 초청 환영만찬 답사 / 4. 17.

교류협력의 기폭제 ····· 429
▶ 장쑤성장 초청 환영만찬 답사 / 4. 20.

법의 존엄성 진작 ····· 431
▶ 제44회 법의 날 기념행사 축사 / 4. 25.

백제문화의 정립 ····· 434
▶ 백제문화 대토론회 인사말씀 / 4. 26.

지역경제 활력화의 출발점 ····· 436
▶ 알카텔진공코리아 준공식 축사 / 4. 26.

백제문화의 우수성 선양 ····· 438
▶ 백제문양 특별전 / 4. 30.

2007년 5월

근로자의 화합 ····· 441
▶ 근로자의 날 기념식 축사 / 5. 1.

지역경제 활력화의 주역 ····· 443
▶ 근로자의 날 담화문 / 5. 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 ····· 445
▶ 물 통합관리 선언식 식사 / 5. 3.

걷기운동의 활성화 ····· 447
▶ 충청남도워킹협회 2기 임원 출범식 축사 / 5. 4.

지역문화유산의 소중함 ····· 449
▶ 제5회 왕의 물 축제 격려사 / 5. 4.

어린이의 소중한 꿈 ····· 451
▶ 제85회 어린이날 기념식 기념사 / 5. 5.

JC회원의 화합과 단결 ····· 454
▶ 제38차 충남지구JC회원대회 축사 / 5. 5.

尊師愛弟의 훈훈한 풍토 ····· 456
▶ 2007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행사 축사 / 5. 11.

인성과 도리가 살아있는 훈훈한 사회 ····· 458
▶ 제7회 전국 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 대회사 / 5. 12.

사랑과 신뢰가 넘쳐나는 고장 ····· 460
▶ 국제로타리3620지구 제12년차 지구대회 축사 / 5. 13.

궁도인들의 우정과 화합 ····· 462
▶ 2007세계민족궁 대축전 / 5. 13.

생태환경 복원과 주민소득 증대 ····· 464
▶ 2007년도 어린 참게 방류행사 인사말씀 / 5. 14.

우리고장의 희망찬 미래 ····· 466
▶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격려사 / 5. 15.

도청의 안녕과 발전 축원 ····· 468
▶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등점등식 축사 / 5. 16.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현 ····· 470
▶ 제16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축사 / 5. 18.

우리는 하나 ····· 472
▶ 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행사 격려인사 / 5. 19.

활기찬 직장 ····· 474
▶ 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행사 마무리인사 / 5. 19.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 ····· 476
▶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축사 / 5. 24.

희망찬 충남건설 ····· 478
▶ 희망충남 도민화합 걷기대회 축사 / 5. 26.

언론인들의 우정과 화합 ····· 480
▶ 대전 · 충남기자협회체육대회 축사 / 5. 26.

축구동호인의 우정과 화합 ····· 482
▶ 제14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 축사 / 5. 26.

충남경제의 활력 창출 ····· 484
▶ 제14회 충청남도기업인대회 대회사 / 5. 30.

장애인의 기능수준 향상 ····· 486
▶ 2007년 충청남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축사 / 5. 30.

2007년 6월

생활체육의 활성화 ····· 489
▶ 2007국민생활체육 전국대축전 출전식 격려사 / 6. 1.

환경보전의 생활화 ····· 491
▶ 제12회 환경의 날 담화문 / 6. 5.

정이 넘치는 훈훈한 세상 ····· 493
▶ 대전 · 충남적십자봉사원 한마음 체육대회 축사 / 6. 5.

유능한 미래인재 육성 ····· 495
▶ 2007년 충남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격려사 / 6. 5.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 497
▶ 제13회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 축사 / 6. 8.

백제문화의 진수 ····· 499
▶ 백제문화제 관광홍보설명회 인사말씀 / 6. 11.

구마모토현과의 공동번영 ····· 501
▶ 구마모토현지사 초청 환영리셉션 답사 / 6. 11.

미래지향적인 교류 ····· 503
▶ 나라현과의 문화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기념사 / 6. 13.

공존과 상생의 교류협력 ····· 505
▶ 백제 · 아스카 심포지엄 기조연설 / 6. 14.

글로벌시대의 상생협력 ····· 514
▶ 한 · 일 경제 · 문화인 교류의 밤 만찬사 / 6. 14.

농 · 수산물의 수출판로 개척 ····· 516
▶ 농 · 수산물판촉전 개막식 인사말씀 / 6. 15.

도민의 문화향유 ····· 518
▶ 제11회 충남무용제 격려사 / 6. 16.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 대학 ····· 520
▶ 대전대학교신문사 기고문 / 6. 18.

자유수호 의지 ····· 523
▶ 제54주년 반공의날기념 및 국가안보결의대회 격려사 / 6. 18.

고향의 따뜻한 정과 사랑 ····· 525

▶ 2007년 세계한인회장대회 환영사 / 6. 21.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 ····· 527

▶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개소식 격려사 / 6. 21.

국가안보의 소중함과 자유수호 ····· 529

▶ 6 · 25전쟁 제57주년 기념행사 격려사 / 6. 22.

충청권 공동발전의 밑거름 ····· 531

▶ 제1회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축사 / 6. 24.

지방문화를 꽃피우는 기폭제 ····· 532

▶ 충청문학 제18집 발간사 / 6. 25.

일등도정 구현의 공로자 ····· 535

▶ 2007년도 상반기 퇴임식 행사 격려말씀 / 6. 26.

기업의 품질문화 정착 ····· 537

▶ 2007년도 충청남도 품질경영대회 치사 / 6. 26.

지역의 자생력 제고 ····· 539

▶ 충청지역 혁신대장정2007 축사 / 6. 27.

원융과 화합의 정신 구현 ····· 541

▶ 제28차 한 · 일 불교문화교류 해인사대회 환영사 / 6. 27.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 543

▶ **제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축사** / 6. 29.

부 록 ····· 545

▶ 분야별 연설문 색인 목록

도전과 성취의 강한 충남

제35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취임사

2006. 7. 3.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도약을 염원해 오신 도민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저에게, 충청남도지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도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온몸을 던져 도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우리 충청남도는 예로부터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웠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분연히 일어나 대의를 지켰던 충절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는 발전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돈과 사람과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는 반면, 지역경제는 취약하고 지역간 발전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방을 요구하는 세계적 흐름과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더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지방정부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창의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강한 실천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충남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수행해야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우리 충남은 행정도시 건설, 도청이전, 백제 · 내포문화권의 본격 개발 등 개도 110년 만에 대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기에 저는 도민여러분께 참여와 단결을 호소합니다.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치발전의 기본이며, 단결은 강한 충남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200만 도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거뜬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충남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합시다.

저 이완구, 더욱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민여러분께 약속드린 저의 공약은 물론이고, 다른 후보의 공약도 적극 수용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자치이래 충남도정은 '1등 도정'을 구현해 왔고, 외형적인 경제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와 해결해야할 많은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충남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200만 도민여러분!

저는 아직도 선거기간 중에 만났던 모내기 하시던 한 농부의 주름살 깊게 패인 얼굴과 굳은살이 박힌 아주머니의 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주신 무언의 눈빛은 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충남도정이 추구해야할 5대 목표를 도민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제 기능을 다할 때 건강하듯이, 16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되어야 충남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저는 행정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그 성과와 혜택이 도내 전 지역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도시건설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행정도시건설은 두 번의 특별법 제정과 두 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토지보상이 85%에 이르고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를 되돌린다는 것은 반 헌법주의적 발상이고 국가운영의 기본을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행정도시건설은 저 이완구에게 그 무엇보다도 높은 가치이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200만 도민의 단결된 힘과 500만 충청인의 염원을 모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도민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완구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도의회가 개원되면 협의하여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충남의 서북부권을 IT · 반도체 · 자동차 · 철강석유정밀화학 등 전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서해안권은 대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본격 개발하겠습니다.

금강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은 충남의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산업 관광 · 물류 등 '광역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위대한 금강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충남이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우, 소년소녀가장들을 비롯한 소외받는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농 · 어촌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을 대폭 지원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나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농 · 어촌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FTA 등 농 · 축산업의 개방화는 우리 농어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 · 어촌을 만드는 것이 충남도정이 지향해야할 핵심과제입니다.

농·어촌의 교육·의료기반 확충, 벤처농업육성과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체험관광을 통한 소득증대 등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정보화를 통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지역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역동적인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자유치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0년에는 1인당 GRDP 3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백제·내포문화 등 관광자원을 산업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은 미래의 생명자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이며,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산·강·연안·바다를 연결하는 '지역통합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생태지도를 만들어 총체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재난·재해에도 200만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이끌어 갈 충남도정의 5대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도전의 강한 실천행정이 절실합니다.

민선 4기 충남도정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은 안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지침을 따라가는 '관리 위주의 행정'은

더 더욱 안됩니다.

우리의 것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활기찬 도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조직도 이제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은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일벌백계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함께 노력할 때 200만 도민이 우리를 신뢰하여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에 적극 동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충청남도는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환 황해권의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충남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창조합시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0만 도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땀과 열정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

도지사 취임 감사 서한

2006. 7. 4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한창인 요즈음,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난 7월 3일 200만 도민여러분의 축하와 격려 속에 제가 민선 4기 자치도정을 이끌어 갈 제35대 충청남도지사로 취임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게 도지사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도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제 취임을 축하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멀리서나마 축하의 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르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만, 비좁은 행사장 여건으로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서신으로 인사드리는 점 또한 널리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금 우리 충남은 행정도시 건설, 도청 이전, 그리고 백제·내포

문화권의 본격 추진 등으로 개도한 지 110년 만에 커다란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살려 우리 충남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와 단결이 절실합니다.

저는 앞으로 충남도정을 이끌어 나갈 비전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1만 5천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도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후의와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역통계의 신뢰성 제고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 승격 현판식 축사

2006. 7. 5.

오늘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의 새로운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이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승격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갑원 통계청장님과 임명선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박병석 국회의원님과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통계가족 여러분!

인사에 앞서 제가 통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어린아이에 비해 잘 웃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막연히 거론하는 것보다는 6세 아이는 하루에 삼백 번 웃는 반면, 성인은 겨우 일곱 번 웃는다는 통계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2020년까지 흡연의 영향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86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승객 590명을 태운 점보제트여객기가 매일 4대씩 1년간 계속 추락하여 사망하는 수치와 같다고 말하면, 흡연의 심각성이 금방 머리에 와 닿을 것입니다.

이처럼 통계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쉽게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때문에 통계는 국가와 지방의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자료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동안 신속·정확한 통계기법 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통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역통계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재미있게 분석·제공하는 것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통계전담조직의 부실과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해 통계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에는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지역통계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선 4기의 출범과 더불어 충남통계사무소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으로 승격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자, 밝은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아 지금 우리고장에는 새로운 활력과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특구의 본격 추진 등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롭게 열린 민선 4기는 그동안 다져진 자치역량과 이 같은 희망찬 여건을 바탕으로 더욱 힘찬 도약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통계청과 지자체는 지역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 아래 서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품질 높은 지역통계의 생산은 물론,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고객만족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행사가 우리고장 통계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을 이루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대전·충남 지방통계청의 무궁한 발전과 통계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장 유덕준 행정부지사 퇴임

유덕준 행정부지사 퇴임식 치사

2006. 7. 5.

오늘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어 온 유덕준 행정부지사님을 보내야 하는 아쉬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0년 동안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마침내 오늘 영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유덕준 행정부지사님께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부지사님께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다해 보필해주신 심희섭 여사님과 가족 · 친지 여러분,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동료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공직자 여러분!

지금 제 마음은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유덕준 행정부지사님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영예로운 퇴임을 마땅히 축하해 드려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추신 분과 함께 일하지 못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사전에 부지사님께 저와 함께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뜻을 밝히시면서 저의 제의를 굳이 사양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지사님께서 30년 간 걸어오신 공직의 길은, 언제나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과 봉사의 길이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용장과 지장은 쉽게 볼 수 있으나, 조직원을 사랑과 덕으로 이끌며 하나로 뭉치게 하는 덕장은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 10년 간 우리가 이룩한 자랑스러운 일등 충남의 영광 뒤에는 200만 도민의 마음과 여러분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신 부지사님의 빛나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실의와 좌절에 빠질 때마다 부지사님께서는 말없이 다가와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사님은 여러분으로부터 직장의 상사이기 이전에 큰 형님 같은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아 오셨습니다.

저는 부지사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덕장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의 석별을 못내 아쉬워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부지사님의 따뜻한 체취를 접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덕준 행정부지사님!

당신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참으로 든든했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나가시지만 당신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손길은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사님의 성품과 역량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 부지사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영광과 기쁨이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도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부지사님의 앞날에 언제나 신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유덕준 부지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제11회 여성주간기념 제23회 충청남도여성대회 기념사

2006. 7. 7.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취임 후 여성단체회원 여러분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충청남도지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해주신 김정숙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선자 도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 이준원 공주시장님, 김시환 청양군수님, 그리고 유상호 농협중앙회 충남본부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성계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열 전 회장님을 비롯한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열한 번째 맞는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제23회 충청남도여성대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회가 단순한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의 여성인구는 전체인구의 절반인 약 1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성인구는 약 59만명이고, 이 중 여성단체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약 26만 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어 결코 낮은 비중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로 선진국의 70%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는 데 더욱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의원님과 시장·군수님을 비롯한 여성계의 지도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데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성관련 예산을 늘려 여성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처럼 함께 모이신 만큼, 다함께 하나로 어우러지는 가운데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이 대회가 우리고장 여성계의 힘찬 도약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 31 지방선거의 역사적 사료

2006대전 · 충남 지방자치총람 발간 축사

2006. 7. 8.

역사적인 민선 4기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기념하는 '2006 대전 · 충남 지방자치총람'이 발간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난 선거과정의 자료를 정리하여 지방자치의 소중한 역사적 사료로 엮어 주신 김원식 중도일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동안 다져진 지방자치의 토대를 바탕으로 더욱 새로운 의욕과 열정으로 열어갈 지방정부를 탄생시킨 분수령이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지방자치의 과정이 올바른 지방자치의 집을 짓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기반 위에 기둥과 벽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선자들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취임식을 갖고, 변화와 도전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과 활력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특구 개발 등이 본격 추진되면서, 우리고장은 그동안의 고요했던 정적에서 깨어나 힘찬 도약의 날갯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번영을 담보할 이 위대한 대역사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시련과 좌절,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선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자는 당선자들이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가를 판가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척도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이 책자가 지방차치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 속에 다가온 민선 4기 지방자치가 앞으로 더욱 값진 보람과 결실을 맺길 기대하면서, 중도일보사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예방의 파수꾼

제11회 서산시자율방범가족 한마음대회 축사

2006. 7. 9.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자율방범가족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제11회 서산시 자율방범가족 한마음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박종만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장님과 김영석 서산시자율방범연합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문석호 국회의원님, 이창배, 차성남 도의원님, 조규선 서산시장님, 임덕재 서산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수명 서산시교육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자율방범대원 여러분!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에는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마지막에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고 하여, 범죄가 점차 대담해지고 흉복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신문 보기가 두렵고, '어쩌면 사람으로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파수꾼으로서, 지역안정의 첨병으로서 꾸준히 범죄예방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이와 함께 틈틈이 시간을 내어 청소년 선도와 자연보호,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에도 앞장서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력 덕분에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이룩되고, 정과 사랑이 넘치는 훈훈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마음 깊은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지역안정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를 통해 다함께 하나로 어우러지는 가운데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산시자율방범연합대의 무궁한 발전과 대원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풀 충남

중도일보사 기고문

2006. 7. 10.

우리는 미국을 21세기 최대의 초일류 강대국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자원이 풍부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 만족할만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세계적인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교수는 그의 저서 '강한 국가의 조건'에서 "미국은 국가 활동의 범위를 면밀하게 한정하는 작은 정부 체제를 가진 나라이지만, 그러한 범위 내에서 법과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며 집행하는 능력 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나라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이처럼 강한 나라는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며, 외부의 지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와 참여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 충남은 개도 110년 만에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이 새로이 터를 잡고 이사를 할 때는 길일을 택하고 후손의 장래까지도 염두에 둘만큼 큰일인데, 하물며 나라를 경영하는 행정도시를

건설하고, 도청을 옮기는 일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국가와 지역의 미래 명운이 걸린 일이 한꺼번에 우리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5. 31 선거기간 중에 만나 뵈었던 많은 도민들은 한결같이 농·어촌에 활기가 넘치게 하고, 경제를 살려 달라는 소망을 내게 토로하였다.

앞으로 우리 충남은 이러한 여건과 환경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200만 도민의 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외생적 변수를 내부적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민선4기 충남도정의 비전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으로 정한 이유이며, 도민과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민선4기 충남도정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5대 도정목표와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다.

이는 우리 충남도가 민선자치 1~3기를 거치는 동안 외형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더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 도 전체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도청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그 효과를 충남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둘째는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 충남도는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복지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의 노인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부조 이외에 실버산업의 육성이나 기업의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활성화 등을 통해 이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셋째는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우리의 농·어촌이 활력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이지만, 이를 경제논리로만 생각하면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농업은 경제문제 이전에 우리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 충남도는 아직도 인구의 24%에 해당하는 473천명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이나, 벤처농업 육성과 함께 농·어촌의 정보화를 통하여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는 역동적인 산업경제를 일으키는 일이다.

2004년도 우리 도의 지역총생산액은 43조 2357억원으로 전국 6위 수준이고 작년 말 현재 수출에 있어서도 335억불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중점지원하면서 미래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10년에는 1인당 GRDP 3만불과 함께 수출 600억불(교역규모 1000억불)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건강한 자연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일이다.

우리 충남은 산·강·바다가 어우러진 생태환경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는 자연과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므로,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동안의 개별적 보호방식에서

탈피하여 산 · 강 · 연안 · 바다를 함께 연결하는 지역통합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잘 보호되고 관리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앞으로 나는 이 같은 5대 정책목표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을 도정운영의 근본가치로 삼아 나가고자 한다.

그리하여 21세기 충남의 모습을 과거처럼 단순히 대한민국 국토의 지리적 중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새로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으로 반드시 탈바꿈시킬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200만 충남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하북성 지원스성장 환영만찬 만찬사

2006. 7. 10.

존경하는 지원스 허베이성장님과 성정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뜻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도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양 지역이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인 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만 합니다.

그동안 성장님께서는 '2006 벤처농업박람회'를 비롯해 우리 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성장님의 우정과 배려는 양 지역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우리 충남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가운데 국가의 산업발전을 이끄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선 4기를 새롭게 열면서, 이러한 발전 가능성과 힘찬

역동성을 살려 도민과 함께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비전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허베이성을 비롯한 자매결연 자치단체와도 더욱 공고한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지원스 성장님의 우리 도 방문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더욱 굳게 다지는 뜻 깊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안자춘추로 유명한 중국 제나라의 정치가인 안영은 "옷은 새 것이 좋지만(依莫若新), 사람은 오래될수록 좋다.(人莫若舊)"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 지역은 그동안의 우정을 바탕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 풍습과 음식의 선호도가 다르고, 또한 여러 시간을 여행해 오신 터라 행여 불편함이 있는 지 염려됩니다.

비록 소찬입니다만, 전통한국음식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까운 친구집을 방문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드시는 가운데 상호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번 해외순방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우리 도를 방문해주신 지원스 성장님을 비롯한 성정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허베이성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선4기의 과제와 전망

성공적인 민선4기를위한 과제와전망 토론회 환영사

2006. 7. 14.

오늘 성공적인 민선 4기 지방자치의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처럼 소중한 행사를 마련하신 권경득 한국공공행정학회장님과 한만우 충남발전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님,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실 이창기 대전대학교 교수님과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박영기 한남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충남은 새로운 민선 4기의 출범과 함께 곳곳에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은 더 이상 조용하고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자 첨단산업의 메카로 주목받으며 국가 발전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수도론과 인력·자금의 중앙 집중에 따른 자치역량 미흡, 그리고 편중된 지역 개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선자치 10여 년 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면, 바로 지금은 그 터전 위에 더욱 빛나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 이전이 몇몇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단순한 인구분산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 획기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전기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서울제일주의의 그릇된 행태를 불식시키고, 우리 고장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새로운 자치발전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모두 다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기필코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문가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민선 4기의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각 분야 전문가께서 자리를 함께 하신 만큼, 지방자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길 바랍니다.

저 또한 제게 부여된 막중한 과제를 늘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이를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한국공공행정학회와 충남발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황해권 진출의 중심지

아산신도시 홍보관 개관식 축사

2006. 7. 14.

오늘 충남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아산신도시사업지구 홍보관이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홍보관이 개관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님과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상돈, 이진구 국회의원님 강희복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산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역사의 새 지평을 열게 될 大役事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건설될 아산신도시는 포화된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 수용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환황해권 진출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주거, 산업, 교육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춘 선진복합도시로서, 첨단산업의 육성과 미래인재 양성을 통해 완벽한 산·학협력의 모델도시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고속철도, 국철, 고속도로 등 입체적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망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전원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1단계 역세권 개발과 2009년에 완공될 탕정 제2산업단지는 아산신도시가 장차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과 희망은 그저 바라기만해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며, 중앙을 비롯해 많은 이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에 다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문을 열게 된 홍보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다양한 전시물과 시설들은 앞으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사업내용을 올바로 알리고, 미래에 건설될 신도시 모습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 그리고 연구소 등 보다 많은 입주대상기관들이 이곳을 둘러보고, 입주 의지를 굳힐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각오를 다지면서, 모쪼록 오늘 개관한 홍보관이 아산신도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대한주택공사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로효친 정신의 계승

제1회 유림경로효친대상 시상식 축사

2006. 7. 14.

오늘 제1회 유림경로효친대상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로효친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 깊은 상을 제정하시고, 오늘 이처럼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인구 계룡장학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님, 변평섭 충청투데이 회장님 윤진수 바르게살기운동 충남지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요즈음 우리사회에서 갈수록 인정이 메말라가고,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탈법과 무질서를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고,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준법정신과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수상자 여러분처럼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과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의 빛나는 공적을 우리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도덕과 윤리가 살아 있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시상식을 갖는 유림 경로효친 대상의 가치가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계룡장학재단은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공익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은 물론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도의와 예절이 살아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변함없이 지속되길 바라면서, 이 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양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오늘 시상식이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정신의 확산은 물론, 훈훈한 사랑과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룩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계룡장학재단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과 피서의 최고, 머드체험

제9회 보령머드축제개막 만찬 인사말씀

2006. 7. 15.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9회 보령머드축제의 개막을 앞두고,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축제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준희 보령시장님과 박영진 보령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류근찬, 박상돈 국회의원님과 김동일, 백낙구, 박정희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령머드축제가 시작된 지 올해로 9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만, 건강과 피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축제는 9회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가 하면 스포츠조선에서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한국관광학회에서 '한국관광경영대상'을 각각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재미있고 건강에도 유익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쪼록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 여러분께 정성과 친절이 깃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분들께서 우리 충남에 대해 아름다운 추억과 좋은 인상을 간직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자칫 방심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한 확인과 함께 성황리에 축제가 종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서로 담소를 나누시는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역동적인 충남건설

기업인워크숍 및 자치단체장과의만남행사 인사말씀

2006. 7. 18.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업인과 당선자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제게 충남도지사의 직책을 맡겨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이번에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과 강희복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시장·군수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평용 기업인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님, 김종희 도여성기업인협의회장님, 그리고 정선용 충남벤처협회장님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기업인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다가온 민선 4기는 우리 충남에게 일찍이 유래가 없었던 도약의 전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아산만권신도시 건설 등을 비롯한 대역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도가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나는 결실은 그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기만 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땀과 노력으로 극복하는 가운데,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던 기업인 여러분을 비롯한 200만 도민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선 4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러한 열정과 힘을 하나로 모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기필코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지지해준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며, 충남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역동적인 충남, 힘차게 도약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여러분께서 더욱 새로운 활력과 의욕으로 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만남의 자리가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도약하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기업인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기업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민에게 보내는 정성과 위로

강원도지사에게 보내는 서한

2006. 7. 20.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저도 이번에 충청남도지사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이런 때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노심초사하게 됨을 느꼈습니다.

초임인 저도 이럴 지경인데, 3선을 연임하시고 계신 김 지사님의 심정은 어떨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가 하면, 강원도의 그 아름다운 절경이 훼손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청정지역인 강원도를 돕기 위해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충남도 직원들도 우리지역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를 돕기 위한 도움의 대열에 동참하였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우리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부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복구에 전력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상태로 회복되길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에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늘 유의하시고, 강원도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녹색혁명의 기수

품목별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격려사

2006. 7. 27.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도내 품목별농촌지도자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신지식 습득과 함께 서로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하계수련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지충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농촌지도자 여러분께서는 녹색혁명의 기수로서, 과학영농과 생활 개선을 선도하며 농촌의 활력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어린 땀과 노력 덕분에 우리 농촌이 지난날의 가난에서 벗어나 오늘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마음 깊은 찬사와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러운 농촌지도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본이자,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산업입니다.

하지만 급속한 공업화과정 속에서 우리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농업과 농촌은 거세게 밀어닥친 혁신과 개방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갈수록 활력을 잃고 황폐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한탄과 울분을 토로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날 새마을운동과 녹색혁명을 이룬 저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함께 손잡고 다시 뛰고자 하는 적극적인 도전정신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힘찬 출발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도 무난히 극복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모처럼 만에 함께 모이신 만큼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는 가운데, 오늘 하계수련대회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힘찬 도약을 기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6년 충남교육의 발자취

충남교육사 발간 축사

2006. 8. 1.

충남 교육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미래의 새 지평을 열 '충남교육사'가 발간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밑거름이요 내일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6년 만에 우리 충남의 교육사를 연대별 · 영역별로 집대성한 책자가 발간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찬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는 "모든 국가의 기초는 그 나라 젊은이들의 교육이다."라고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남달랐기에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의 교육은 2005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빛나는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책자가 우리 충남의 교육을 제대로 알리고,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는 방향타가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모쪼록 '충남교육사'가 많은 이들의 사랑 속에 널리 읽혀져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힘찬 지역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책자 발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도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인삼 · 약초산업의 경쟁력

금산인삼약초시험장 개청식 식사

2006. 8. 3.

오늘 금산인삼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신기술 보급의 산실이 될 금산약초시험장이 문을 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유태식, 김석곤, 송덕빈 도의원님, 박동철 금산군수님과 정현수 금산군의회 의장님, 구자형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님과 김계웅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장님, 그리고 지충원 충청남도농촌지도자협의회장님과 홍기표 충남인삼연구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삼약초가족 여러분!

예로부터 이곳 금산은 그야말로 금수강산으로서, 인삼이 잘 자라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국 명나라의 약학서인 '본초강목'에 이곳 인삼을 '백제삼'이라 하여 그 탁월한 효능에 대해 자세히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인삼은 비록 크기는 작지만 내부조직이 치밀하여 항암

효과가 뛰어난 사포닌 성분이 34종으로서, 중국삼의 15종, 미국삼의 14종에 비해 두 배가 넘는 함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수한 고려인삼이 최근 농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중국과 미국 등 외국삼의 저가물량 공세로 인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그동안 우리가 국제시장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인삼의 종주국으로 안주하면서 유통과 마케팅에 소홀한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문을 연 금산인삼약초시험장은 바로 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은 도내 인삼 재배자는 물론,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고려인삼의 가공·유통 개선을 위한 연구와 신기술 보급에 앞장섬으로써, 우리 충남 인삼과 약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킨 의약품은 항상 끝없는 실패와 도전의 과정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실제로 20세기의 위대한 항생제로 인정받는 페니실린은 영국의 과학자 플레밍이 14년간의 지속적인 연구 끝에 탄생한 성과물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우리 인삼·약초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이러한 열정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개청식이 우리 충남 인삼·약초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금산약초시험장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의 정체성 확립

충청남도지 발간 축사

2006. 8. 4

우리 도의 분야별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충청남도지'가 발간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중한 책자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덕기 충청남도 도지편찬위원장을 비롯한 편찬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정리와 편집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은 찬란한 백제문화의 중심지이자 선비문화와 충절의 고장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환황해권시대의 개막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한국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분야별로 종합 정리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미래 발전의 지표로 삼기 위해 근 30년 만에 도지를

발간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화시대와 문화의 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성과 전통이 담긴 향토문화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해 나가는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 사회 · 전통문화 · 현대문화 등 총 5편 26권으로 구성된 이 책자에는 선사시대부터 근 · 현대에 이르기까지 충청남도 발전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책자가 우리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가운데, 도민의 공동체의식과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우리 충남을 제대로 알리는 데 유익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연차별로 계속될 도지발간사업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도지의 발간이 우리 충남의 올바른 과거사의 정립과 희망찬 미래를 위한 힘찬 도약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미술의 진수

2006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축사

2006. 8. 8.

오늘 세계 자연미술의 메카인 공주에서 '미술을 통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2006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열린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배귀섭 조직위원장님과 고승현 한국자연미술가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우수한 작품을 제작해주신 국내·외 자연미술작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준원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자연미술 애호가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자연미술 가족 여러분!

일찍이 '인생찬가'로 유명한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술은 사람의 작품이다."라고 하여 자연의 위대함을 예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이래로 신의 작품인 자연을 소재로 수많은

예술가들이 불후의 걸작들을 창조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계문명 덕분에 급속한 사회발전을 이룩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간 본연의 심성을 되살리는 가운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막을 연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도 바로 이러한 소중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공주는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운 보고이자 오늘날에도 아름다운 산하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예술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자연미술이 태동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처럼 성대한 축전으로 발전하기까지에는 이곳 자연미술작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끝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빛나는 예술혼과 불굴의 의지 덕분에 문화와 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방중소도시에서 전 세계 1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전통과 역량을 되살려 지방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여러분께서 힘을 함께 모아주시고 더욱 앞장서주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늘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면서, 자연미술의 중흥과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가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쳐져 지역문화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충남건설

제61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경축사

2006. 8. 15.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암흑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을 되찾은 지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년 전 그 날, 삼천리 방방곡곡이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이며, 삼천만 동포가 하나 되어 목이 터져라 감격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먼저 이 뜻 깊은 날을 200만 도민과 함께 경축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애국선열들께 삼가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영광과 번영을 있게 하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광복회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60여 년 간의 우리나라 역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조국 광복의 벅찬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역시 강하고 끈질겼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며,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일구어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조국이 있었고, 국민들의 가슴에는 식을 줄 모르는 애국심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은 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의 독립이, 산업화시대에는 가난의 극복이, 그리고 오늘날에는 조국의 평화통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지역적으로는 조용한 '양반의 고장, 충남'에서 벗어나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룩해야 할 소명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화합과 상생을 이루는 길일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나가면서,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웅비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국난의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구국의 간성에 섰던 우리

충남인의 저력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소중한 과업 또한 충분히 이룩해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역사적 대업을 이루는 길에 앞장섭시다.

어두웠던 과거의 그림자를 하루빨리 걷어내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그리하여 '위대한 충남'의 새 역사를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이룩해 나갑시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지역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시 재난수습능력 점검

2006을지연습실제훈련 강평

2006. 8. 22.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알차게 준비해주신 강희복 아산시장님과 이재원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대표님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아직까지 종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햇볕정책을 줄곧 유지해 왔으며, 동포애의 차원에서 대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은 핵을 담보로 '벼랑 끝 외교'를 고수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주의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폭력을 앞세운 무차별적인 테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문제 삼아 국제테러조직이 우리나라를 테러대상국가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어떠합니까?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적도 있고, 이 땅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렀건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전쟁과 테러는 마치 먼 나라의 얘기인 것처럼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폭발물 테러에 대한 사태수습훈련을 실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오늘과 같은 실제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와 전시 재난수습능력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훈련은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에서부터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그리고 재해복구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단체별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해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에서도 늘 전시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수습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훈련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훈련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권익향상

여성단체지도자에게 보내는 서한

2006. 8. 24.

계절은 어느덧 처서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여러분과 함께한 대화의 시간은 제가 여성정책을 펴는 데 큰 도움을 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 때에 말씀하신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최대한 정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날 대화내용 중 추가로 답변이 필요한 여성단체 지원현황과 결혼이민자 가정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함께 보내드리오니 찬찬히 살펴보시고, 각 단체별로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다보니 고충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내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발걸음을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거나,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는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지원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치도정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만족할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에 건강을 상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공연예술 중흥의 산실

제24회 충청남도연극제 축사

2006. 8. 26.

오늘 우리나라 공연예술 중흥의 산실이 될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에서 제24회 충청남도연극제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연극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태근 한국연극협회충남도지회장님과 김영천 한국예총충남도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참가한 연극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연극인 여러분!

충청남도연극제가 태동된 지 어언 이 십 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척박한 지방문화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고장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연극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전국대회는 물론, 국제대회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치르는 알찬 결실을 맺어 우리고장을 새로운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고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문화의 세기를 맞아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외래문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특색을 살린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은, 지방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해 나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극은 문학, 음악, 무용, 미술 등이 망라된 종합예술로서, 이를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앞장서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러한 과업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문화가 곧 자산이자, 경쟁력인 시대에 우리 모두의 열정과 노력을 다해 향기롭고 아름다운 공연예술의 꽃을 활짝 피워 나가자는 다짐을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이번 연극제가 충남 연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최고의 건강식품

인삼음식 페스티벌 축사

2006. 8. 28.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산군과 유성호텔이 함께 주최한 인삼음식페스티벌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동철 금산군수님과 전채구 유성호텔 대표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인제 국회의원님과 변평섭 충청투데이 회장님, 그리고 정현수 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고려인삼은 중국의 古醫書에도 최고의 천연생약제로 기록될 만큼 신비의 명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금산인삼은 다른 외국삼에 비해 생육기간이 길어 사포닌 등 우수한 성분의 함량이 월등히 많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듯 우수한 고려인삼이 근래 들어 외국삼의

저가물량공세로 인해 국내외에서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는 9월에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여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화와 세계화시대를 맞아 금산인삼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특산물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금산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향해 쏟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우리가 직접 지구촌 최고의 건강제품인 인삼음식을 먼저 맛보고, 다가오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한식, 양식 등 다양한 종류의 인삼음식을 음미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좀 더 깊은 애정을 갖고 인삼홍보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금산인삼의 세계화와 금산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도민예절생활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 격려사

2006. 8. 29.

오늘 제6회 예향의 200만 도민 예절생활 우수실천사례발표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진수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장님과 임형락 당진군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가족 여러분!

공자님의 말씀을 담은 논어에는 "예의는 남과 화목함을 으뜸으로 삼는다."고 하여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경하며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를 사회생활의 기본질서로 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서 예절과 도덕을 숭상해왔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전통은 평상시에는 도의사회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국난의 위기 때에는 충절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인성이 메마르고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오늘날, 예절과 도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민선자치도정을 시작하면서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서 참으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우리 고장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훈훈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은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가족 여러분!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회 양극화와 공동체 정신의 쇠퇴가 심화되어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일부 뜻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인성과 예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남다른 봉사와 헌신으로 도의사회 구현에 앞장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우수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되는 사례들이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져,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일구어 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우리 충남을 예의와 도덕이 살아 있는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다짐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행사 준비에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의 상생발전

디트뉴스24 창간6주년기념 세미나 축사

2006. 8. 30.

오늘 충청권을 대표하는 인터넷신문인 '디트뉴스24'의 창간 6주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중규 디트뉴스24 대표님 배귀섭 대전MBC 대표님, 그리고 이석봉 대덕넷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님과 홍종오 대전언론문화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언론인 여러분!

일찍이 공자께서는 "대중의 소리를 막는 것은 강을 막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여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명분 아래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여타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반되는 대수도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이미 포화상태이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른 바 가진 자의 논리를 앞세워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충청권은 더 이상 소외된 지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며,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축복의 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500만 주민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를 이룩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들이 충청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충청권 성장발전을 위한 Win-Win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을 계기로 우리는 충청권 공동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대수도론에 대응하는 논리와 방안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면서, 이해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고하고도 긴밀하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더욱 앞장서주신다면, 이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치도정 또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다지면서, 모쪼록 이번 세미나가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더 큰 보람과 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교육의 중흥과 도약

제5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개원식 축사

2006. 9. 1.

존경하는 채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충남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것은 오늘 바로 충남 교육의 중흥과 도약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안고, 제5대 충청남도교육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앞으로 도교육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의장님으로 선임되신 채광호 의장님, 부의장으로 선임되신 이은철 부의장님 그리고 지난 7·31선거를 통해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신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오제직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의지로 교육입국을 통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여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을 중시하는 국민들 의식과 열정의 영향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1991년 이래 지금까지 이 땅의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교육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찍이 '제3의 물결'로 유명한 앨빈 토플러는 "앞으로의 세계는 지식이 모든 생산수단을 지배하게 되며, 이에 대비한 후세 교육이 없이는 어느 나라든 생존하기 어렵다."고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과거는 물론, 미래에 있어서도 한 사람을 사회인으로 완성시키는 수단이자,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지식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교육은 이제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고, 교육정책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능력을 믿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 충남의 교육이 나날이 발전함으로써,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치도정 또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개원식이 충남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면서, 충남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가는 충남보육

보육시설장에게 보내는 서한

2006. 9. 2.

계절은 어느덧 청량한 가을의 길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 간담회에서 뵌 후,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저는 각계각층 도민 여러분을 만나 뵙고, 그 분들의 진솔한 바람과 의견을 듣고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장님과의 간담회는 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의 권익향상과 미래인재 육성의 기틀을 다지는 점에서, 참으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드리는 까닭은 간담회시 말씀하신 보육제도 개선 보육정책 관련제안, 그리고 보육시설의 예산지원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여건상 수입은 넉넉하지 않은 데에 비해

수요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투자를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고민하면서, 마음 놓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충남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의 주자를 양육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늘 잃지 마시고,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민선4기 도정운영의 기본 틀

민선4기 도정운영기조 정립 세미나 인사말씀

2006. 9.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민선4기 충남도정의 새로운 운영기조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육동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실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두 달 동안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처럼 향후 도정운영의 기조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정 여건을 크게 특징지으면 '자율과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동안 중앙의 예속 하에 머물러

있던 지방이 각 분야에 걸쳐 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내는 물론,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 또한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필수요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행정, 기업, 대학 등 지역주체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을 잘 활용하여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충남은 開道 110년 이래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경영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되고 2009년에는 서해안시대의 중심거점도시로 성장할 도청신도시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될 것입니다.

민선4기 충남도정은 이러한 외생적 변수를 성공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획기적 지역발전을 이뤄냄으로써,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반드시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과 목표는 막연한 구호나 의욕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신념과 의지가 굳건해야 하고, 지역주체 간에 공감대 확산과 함께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선4기 충남도정의 기조를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께서 함께 모이신 만큼, 이에 대해 참신하고도 실질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거듭 오늘 세미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 축원

수덕사 본사 · 말사 합동영산대제 축사

2006. 9. 2.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에서 국태민안과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는 영산대제가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법정 주지스님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문표 국회의원님, 김기영, 고남종 도의원님, 그리고 최승우 예산군수님과 권국상 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자비와 윤회는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사상으로서 삼라만상이 모두 인연이 아닌 것이 없고, 서로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순환하고 있다고 보는 철학입니다.

때문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것은 물론, 하찮은 미물이나 풀 한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본사와 말사에서 봉안했던 많은 영가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국가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함과 더불어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축원하는 점에서, 참으로 뜻 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은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대단위 개발사업이 구체화되는가 하면,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가운데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0만 도민이 하나가 되어 충남의 힘찬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와 신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열정과 힘을 하나로 모아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간다면, 이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영산대재를 맞아 부처님의 크신 사랑과 보살핌 속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 무사히 이루어지길 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복지공동체

제7회 사회복지의날 행사 기념사

2006. 9. 4.

오늘 가을의 문턱에서 사회복지가족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제7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수진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다해 오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사회는 예로부터 인성과 도의가 살아 있는 곳으로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은 국민의 화합과 결속을 강화시켜,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왜곡된 이기주의로 인해 이웃과 사회보다는 나와 가족을 우선시 하게 되고, 화합과 상생보다는 경쟁과 제몫 챙기기에 급급해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국가발전의 무게중심도 균형과 복지보다는 개발과 성장에 두다보니,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화합과 사회복지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사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어려운 이웃에 대한 훈훈한 온정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며,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복지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맞아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모쪼록 이를 계기로 밝고 희망찬 미래와 따뜻한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노력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길 소망합니다.

모처럼 사회복지가족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다함께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제역사와 문화의 시대적 조명

제6회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심포지엄 축사

2006. 9. 8.

오늘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백제의 금동관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창수 국립공주박물관장님과 정덕기 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준원 공주시장님, 조규선 서산시장님 최병헌 한국고고학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실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3년말 우리는 가히 백제의 역사를 새로 쓸 만한 유적을 발굴하였습니다.

공주 수촌리와 서산 부장리 등에서 금동관모, 금동신발, 환두대도 등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웅진은 한성시대에도 이미 도읍지로 부상할 만한 문화적 역량을 갖춘 곳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시 용원리에서 용봉문의 환두대도가 출토되어 무령왕릉의 환두대도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는 논란을 말끔히 불식시키고, 백제의 고유한 전통이라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백제의 역사는 '의자왕과 삼천궁녀'에서 알 수 있듯이 패망의 역사로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백제는 중국, 일본은 물론, 멀리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륙백제설이 제기되면서 백제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터를 잡고 막강한 세력을 이루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쾌거는 모두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이 있었기에 거둘 수 있었던 수확이었습니다.

민선자치 10여 년 동안 자치도정은 백제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충남의 정체성을 찾고자 주력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과 함께 백제사대계 편찬, 충청남도지 발간, 역사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 백제사와 충청학의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찬란한 문화를 부흥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백제 금동예술의 진수인 백제금동관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나아가 찬란한 백제역사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역사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국땅에 핀 뜨거운 애향심

재독충청회임원진초청 만찬 인사말씀

2006. 9. 8.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유럽방문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향우회원 여러분과 함께 보내게 되어 기쁘기가 그지없습니다.

먼저 우리 방문단을 따뜻이 맞아주신 박충구 재독충청회장님과 안영국 재독한인총연합회장님을 비롯한 향후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손선홍 프랑크푸르트 부총영사님과 소영술 KOTRA유럽부본부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향우회원 여러분!

이곳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6월, 태극전사들이 토고를 맞아 2대 1로 승리를 거두어 고국을 온통 붉은색의 물결과 승리의 함성으로 물들게 한 영광의 땅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날의 감동을 함께 하시면서 느끼셨을 테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여러분께서 고국을 떠났을 때처럼 초라한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GDP 세계 12위,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외환보유고 4위, 그리고 자동차생산량 5위를 보일 만큼 세계 속의 당당한 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전통농업도에서 탈피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첨단산업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지난해 우리 도는 수출 335억불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7월까지 수출순위 전국 4위, 중소기업수출증가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등을 확정지으며, 開道 110년 만에 유래가 없는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빛나는 결실은 이국땅에서 늘 고향발전을 위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향우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기회를 통해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200만 도민 모두는 이러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필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고향의 발전을 지켜봐주시고 특히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되는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이신 만큼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재독충청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의 블루오션 개척

2006충남농민전진대회 축사

2006. 9. 9.

오늘 농민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2006충남농민전진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김영호 전국농민회 충청남도연맹의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신 김문규 도의회의장님과 홍표근 농림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문경식 전국농민회의장님,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장님, 정숙향 여성농업인 충남도연합회장님, 그리고 최승우 예산군수님과 권국상 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농민회원 여러분 !

이번 대회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조국의 자주독립과 농촌계몽을 위해 젊음을 바치신 윤봉길 의사의 생가지인 도중도에서 열려 한층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윤봉길 의사는 그의 저서 '농민독본'에서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창고를 손에 잡고 있으며, 비록 세상이 변해 하루아침에 농업이 자취를 잃는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 창고의 열쇠는 분명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농민과 농업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소중한 산업이며, 농촌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환경을 지키는 위대한 자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과 농촌은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안으로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개방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좌절과 한탄보다는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FTA를 총력으로 저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과 자원의 보고인 농촌을 지키기 위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다행히 요즈음 웰빙시대를 맞아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관광 등이 각광받고 있으며, 직거래협약과 1社1村운동 등을 통해 都農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틈새시장과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창조적인 벤처정신을 살려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만, 저는 여러분의 굳건한 의지와 신념을 믿고 있기에 눈앞에 닥친 험난한 파고를 무난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자치도정 또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이루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힘찬 도약과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하루 다함께 하나로 어우러지는 가운데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소망하면서,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존경의 마음

제6회 전국청소년적십자백일장대회입선작 시상식 격려사

2006. 9. 13.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6회 전국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 입선작 시상식이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스승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작품에 담아 따뜻한 감동을 안겨준 수상자 여러분과 지역봉사활동에 앞장서 오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지도교사 여러분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해주신 박건영 대한적십자자 대전 · 충남 지사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오제직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일찍이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야말로 갈수록 인성과 도덕이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깊이 되새겨야할 교육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웬 만큼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보다 아는 것은 많은 데 좀 더 지혜롭지 못하고, 잘 살기는 하지만 타인을 위한 배려와 사랑은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혼돈과 상실의 시대에 도의와 윤리를 바탕으로 사회의 중심을 잡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분은 바로 스승님입니다.

실제로 스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곧은 품성과 인격,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가르쳐주신 삶의 안내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스승님을 모시는 데에 예의와 정성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아름다운 미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스승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례들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우리 교육계를 더욱 훈훈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지역사회에 스승존경운동을 더욱 진작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 모두 더 큰 성취와 영광을 거두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추억여행의 최적지

대전일보사 기고문

2006. 9. 14.

'생명의 뿌리, 인삼'을 주제로 열리는 지구촌 건강축제인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막이 불과 일주일 남았다.

2002년 엑스포 개최 타당성조사로부터 시작한 대장정을 마침내 마무리 짓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충남은 엑스포장 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각종 전시장의 전시연출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간의 추진과정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도전과 극복의 역사였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국제박람회를 치르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03년 국제공인을 얻어 2004년 1월에 조직위원회를 설립한 이래, 모두가 하나가 되어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가 이번 엑스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지금 우리 농업은 개방과 경쟁의 파고 속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때문에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예로부터 금산은 고려인삼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갖추고 있어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며, 전국 인삼의 80%가 유통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삼전문시장이다.

실제로 금산인삼은 중국 명나라의 약학서인 '본초강목'에 '백제삼'이라고 하여 탁월한 효능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으며, 외국삼에 비해 생육기간이 길어 조직이 치밀해 약리작용이 높고, 항암효과가 뛰어난 사포닌이 외국삼에 비해 두 배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금산군은 인삼축제를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산업형 관광축제로 만든 경험이 있으며, 우리 충남도 또한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2006벤처농업박람회 등 농업관련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렇듯 고려인삼의 성능이 탁월하고,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최근 고려인삼이 외국산 인삼의 低價물량공세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우리는 인삼의 종주국이라는 현실에 안주해 해외시장의 변화와 고객 지향 마케팅에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세계시장에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는 한편 판로의 다각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정성을 다해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고자 노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개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몇 가지 걱정되는 점들이 있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인삼엑스포이기 때문에 인삼 관계자만의 축제라고 생각하고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 하나는 지방중소도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교통, 숙박 등이 불편할 테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하지만 나는 일단 한 번 와보시면, 그런 우려는 말끔히 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이번 엑스포는 단순히 인삼을 사고파는 축제가 아니다.

7개국 12개의 해외지방정부와 교민단체, 그리고 10개국에서 많은 바이어와 업체가 함께 참가하는 지구촌의 대축제이다.

뿐만 아니라, 학술, 교역, 전시, 이벤트, 체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체험과 전시·공연 등을 보고 즐기는 가운데 건강의 소중함과 인삼의 효능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축제이다.

우리는 이번 엑스포를 마치 농부가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세심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때문에 나는 이 가을에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여행을 원한다면,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충남 금산에서 열리는 지구촌 인삼의 대향연에 꼭 한번 오시라고 자신 있게 권유하고 싶다.

모쪼록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이번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관람객과 농민 모두에게 값진 추억과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금산 발전의 대동맥

추부-대전간 국도개통식 축사

2006. 9. 14.

오늘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추부에서 대전까지 국도가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개막에 맞추어 개통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개통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과 김명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해주신 이인제, 선병렬, 이진구 국회의원님과 박성효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박동철 금산군수님을 비롯한 내빈과 금산군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일찍이 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많은 반대와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때 고속도로를 건설하길 천만다행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오늘날 무한경쟁의 파고를 헤치며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정보통신망의 덕분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는 속도가 바로 경쟁력이 되는 스피드시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금산과 대전을 오가면서 만인산의 구불구불한 고개와 터널을 지나는데 한 시간이나 걸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통행의 불편을 떠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가 하면, 지역의 산업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침내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반시간이면 충분히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 시간적 ·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우리 도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진입도로가 된다는 점에서 여간 고맙고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금산은 산자수려한 청정지역이며, 신비의 명약인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이름난 곳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도로가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함과 쾌적함을 안겨줌은 물론,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원활한 유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뿌듯해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금산 발전의 대동맥인 이 도로를 내 몸의 핏줄처럼 소중히 여기고 안전운행은 물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개통된 추부-대전간 도로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제2, 제3의 도로가 개통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합니다.

도로 개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위기극복

2006충남4-H인 한마음대회 치사

2006. 9. 15.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고장 4-H가족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한마음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효권 충청남도 4-H 후원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충청남도의회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김시환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4-H가족 여러분!

올해는 한국농업의 근현대화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참으로 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녹색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단기간에 농촌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농촌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마음 깊은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4-H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개방과 경쟁의 시대를 맞아,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이룩하여야만 합니다.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줌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탄과 좌절보다는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갖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금의 총체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꿋꿋하게 농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참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새로운 농업발전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면, 선진농업국 부럽지 않은 희망찬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면서, 위기를 더 나은 발전의 계기로 만드는 역사적인 대장정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하루 다함께 하나로 어우러지는 가운데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인 양성의 터전

건양대학교의과학관 개관식 축사

2006. 9. 15.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의 산실이 될 건양대학교 의과학관이 문을 연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훌륭한 시설을 건립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님과 김희수 총장님, 그리고 김종우 병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병석 국회의원님, 김선종 우송대학교총장님, 설동호 한밭대학교총장님과 이영규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건양 가족 여러분!

일찍이 영국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건강한 몸은 정신의 전당이고 병든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하여,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요즈음 웰빙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운동과 미용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정작 자신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설사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지역병원보다는 중앙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몰려, 시간과 경비가 낭비되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 고장에 현대식 시설과 과학적 장비를 갖춘 의과학관이 건립된 것은 지역의료계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

"건강은 하나인 데, 질병은 천개나 있다."는 말처럼 현대생활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질병 치료에 대한 과학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지역주민에게 사랑 받는 병원으로 자리 잡는 것 또한 지역의료기관이 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문을 연 의과학관이 앞으로 첨단 이론과 실습의 병행을 통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메카로서 발전해 나가리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같은 소망을 나누면서, 모쪼록 오늘 개관식이 건강사회 구현과 지역 의료수준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건양대학교의 더 큰 발전과 여러분 모두에게 알찬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기타의 추억과 낭만

제2회 대천해변 통기타 음악축제 축사

2006. 9. 15.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곳 대천 바닷가에서 제2회 대천해변 통기타음악축제가 열린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형주 한국포크송협회장님을 비롯한 통기타 가수 여러분과 신준희 보령시장님,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기타 애호가 여러분!

올해는 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한여름을 지나 개최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청명한 날씨와 삽상한 바람이 함께 하는 가을에 열린 것도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기타음악은 우리나라가 한창 발전하는 지난 70~80년대에 젊은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희망을 심어주었던 음악이었습니다.

청바지와 생맥주를 연상케 하는 통기타음악은 당시 암울했던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킨 밑거름이었으며, 음악적으로도 경쾌한 리듬을 유행시키며 우리나라 가요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당시 젊은이였던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모처럼 만에 옛날로 돌아가 그 시절, 그 기분에 젖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면 가을 밤하늘에 별이 뜨고, 해변에는 조개껍질이 깔린 이곳에서 흥겨운 통기타의 선율에 추억을 회상하며 일상의 시름에서 벗어나 보는 것은 삶의 여유를 찾고 희망찬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함께 하는 가을밤의 이 축제가 여러분께 젊은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되살리게 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 모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

제14회 샌프란시스코 한국의날 민속축제 축사

2006. 9. 16.

오늘 한민족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인사회의 화합과 유대를 다지기 위한 제14회 샌프란시스코 한국의 날 민속축제가 열린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낯선 타국생활 속에서도 늘 조국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한국인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이고 계신 교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해주신 김홍익 한인회장님과 정상기 총영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랑스러운 교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국 대한민국은 광복 60주년을 넘어 희망찬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은 물론, 선박, 자동차 철강 등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수출 300억불을 돌파하는 등 조국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주 이민 100년을 지나면서, 이제 한인사회도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나날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우리 한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위대한 저력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빛나는 결실을 거두며 도약의 행진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조국애와 단결력이 오늘 행사를 통해 더욱 굳게 다져지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교민사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충남 금산에서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됩니다.

부디 가족·친지와 함께 축제에 참여하시어, 건강한 체험과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거듭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샌프란시스코한인회의 무궁한 발전과 교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존경운동의 기폭제

제11회 스승존경과 제자사랑의 글 및 편지공모입선작 시상식 격려사

2006. 9. 18.

오늘 우리사회에 尊師愛弟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한 스승존경과 제자사랑의 글 및 편지 공모 입선작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아름다운 글로 승화시켜 입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행사를 주관하신 방은희 도새마을부녀회장님과 작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권선옥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스승을 존경해 왔습니다.

이는 스승은 우리에게 올바른 인성과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스승은 늘 어르신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교육이 단지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신성한 교권이 침해되고 있어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일찍부터 교육현장에서의 아름다운 사연을 공모하여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전통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승은 단순히 상급학교의 진학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한 사랑으로, 때로는 호된 꾸지람으로 우리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심어주신 분입니다.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스승은 평생을 숭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2세들을 가르쳐 국가발전을 위한 동량으로 키워주신 분입니다.

이분들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승의 거룩한 은혜에 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선작들이 책으로 발간되어 전국에 널리 퍼져 읽혀지면서 우리사회에 尊師愛弟의 풍토가 자리 잡고, 스승존경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밑거름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학교, 올바른 인성과 도덕이 뿌리내리는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다짐을 나누면서, 모쪼록 오늘 행사가 스승존경운동이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토연극의 대향연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축사

2006. 9. 19.

오늘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가는 때에, 사라져가는 전통예술을 부흥시키기 위한 향토연극의 대향연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연극예술인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축제를 위해 애쓰신 이종훈 한국연극협회이사장님과 강영걸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연극예술인 여러분!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되살리고, 지역연극계의 공동발전을 위해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를 처음 개최한 지 올해로 삼년 째입니다.

그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의 사랑과 참여 속에 축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작품의 수준 또한 높아만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참으로 뿌듯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3년 전국연극제가 이곳에서 열린 이후, 공주시는 향토연극의 메카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유구읍의 폐교를 새롭게 단장한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이 문을 열어 앞으로 연극이 좀 더 주민과 친숙해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백제의 고도로만 알려진 공주를 우리나라의 향토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거듭나게 만든 것은, 연극예술인과 공주시민 여러분의 연극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지방문화를 더욱 향기롭고 품격 있게 가꾸어 나가는 데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마다의 전통과 특색을 살린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되어 사라져가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고, 우리나라를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처럼만에 전통문화의 향기가 그윽한 이곳 공북루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보며,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화합의 하모니가 멋지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연극제가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 성대히 막을 내리길 소망하면서, 이를 통해 향토문화예술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성대한 개막식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평화를 위한 소중한 불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대표위원 워크숍 인사말씀

2006. 9. 19.

오늘 최근 남북관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통일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역대표위원 워크숍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조규성 충남부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대표위원님과 민주평통지역협의회장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실로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국제적 긴장이 야기되고 있고,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가하면, 동북아를 둘러싼 주변강국들의 주도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대북지원과 북핵문제를 놓고 이른 바 남남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해 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문제에 대해 제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공존에 바탕을 두고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시급한 일은 국론을 통일시켜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빠졌던 때에는 여지없이 국론이 분열돼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해 대결과 대립의 관계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고장에서 열린 한산모시축제 기간 중에 무기장난감을 가져온 어린이에게 야생화화분을 나누어주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풍선을 지급한 일은 참으로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통일문제로 돌려 국가발전과 한민족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발걸음을 착실히 떼어 나가는 일입니다.

정치와 군사적인 면에서 우선 당장 남북이 하나가 되기는 어렵더라도, 경제와 사회문화의 교류·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소중한 불씨를 먼저 지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여러분이야말로 대북정책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가운데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을 일구어 나갈 적임자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워크숍이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더 큰 보람과 성취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농업인의 미래

제5회 충남여성농업인대회 치사

2006. 9. 19.

오늘 도내 여성농업인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제5회 충남여성농업인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해주신 정숙향 한국여성농업인충청남도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진석 국회의원님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허기옥 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님,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님, 이준원 공주시장님 이기봉 연기군수님, 이종건 홍성군수님, 진태구 태안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여성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시장개방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우리 농업과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어 '1사1촌운동'과 '농어촌 체험관광' 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남성보다 풍부한 섬세함과 친화력을 갖춘 여성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미래는 생각보다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전문직업인이라는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갖고 희망의 싹을 열심히 키워 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알찬 수확의 기쁨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여성농업인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그동안 쌓인 피로와 회포를 마음껏 푸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한국여성농업인충청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충청남도선수단 결단식 식사

2006. 9. 19.

자랑스러운 선수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남에서 열리는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우리 고장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의 명예를 짊어지고 장도에 오르는 선수 여러분에게 200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을 담아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그동안 선수들의 지도와 뒷바라지에 정성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의 자리를 함께하신 김문규 도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오제직 교육감님, 권영학 천안부시장님,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님 김성헌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장님, 그리고 지역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선수와 지도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4월 도 대표로 선발된 후 5개월 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정상을 향한 구슬땀을 흘려 왔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최고의 기능인이 되고자 하는 열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고장의 명예를 빛내기 위한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의 대가가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이란 영예로운 결실로 돌아오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기술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뒤져 그 파급효과가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아 힘찬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도가 여러분과 같은 젊고 유능한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최근 수년 간 우리는 이 대회에서 두드러진 실력 향상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우리 도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선수 여러분!

이번 대회에 여러분이 참가하는 것은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며,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피나는 땀과 노력으로 기능을 연마해 왔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땀과 지도교사와 가족 여러분의 정성은 반드시 값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선수 여러분의 장도를 축하하면서, 우리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반갑게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의 상생과 화합의 聖所

21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세계종교평화센터건립 세미나 축사

2006. 9. 21.

오늘 우리 고장 종교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세계종교평화센터를 조기에 건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 깊은 모임을 주관해주신 유흥식 대전·충남종교지도자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성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님,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님, 그리고 진월스님과 김태 한국기독교연합회 목사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종교지도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창조와 파괴, 그리고 갈등과 화해를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며 인류 공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처럼 오늘날까지 인류가 평화의 맥을 이어온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같은 선구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계는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단일민족인 우리민족은 반만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도 종교에 대해서는 유달리 신앙이 두터운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교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토착종교는 물론, 외래 종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제 21세기 동북아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 희망찬 미래를 일구어 가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받은 터전에 전 세계 종교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세계종교평화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센터가 모든 종교인들의 성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메카가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종교지도자님들께서 함께 하신 만큼, 이처럼 소중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소망을 나누면서,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세계종교평화센터 건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 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의 건강 축제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막식 환영사

2006. 9. 21.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금산에서 지구촌 최고의 건강축제인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엑스포는 인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온 인류의 소망인 건강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과 생명의 대축제입니다.

역사적인 서막을 여는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200만 도민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보식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관람객 여러분!

예로부터 이곳 금산은 인삼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갖추고 있어, 신비로운 약효를 지닌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금산은 전국 인삼의 80%가 유통되는 세계 최대의 인삼전문시장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삼과 건강을 테마로 산업형 관광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전부터 개방과 경쟁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금산인삼 세계화를 향한 첫 발을 내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금산군민은 물론, 온 도민이 하나가 되어 행사장 곳곳에 구슬땀과 정성을 심으며, 이번 축제가 기쁨과 감동의 한마당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엑스포가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림은 물론,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는 유익한 교류의 장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관람객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간 우리 충남이 드리는 인삼의 무한한 가치와 향기에 흠뻑 빠지시는 가운데, 건강한 생명의 꿈을 새롭게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심어 주시길 바랍니다.

축제기간 내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소중한 바람과 노력이 지구촌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메아리로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고장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삼 세계화의 첫 걸음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막 환영리셉션 인사말씀

2006. 9. 2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개막식 공연과 전시관을 관람하시느라 피곤하시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색다른 인상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번 엑스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카타지나 크라이 쇼스타크 주한폴란드대사관 서기관님을 비롯한 외교사절 여러분과 자오스쥐 허베이성 부주임님을 비롯한 해외자치단체인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해상 농림부 차관님과 김학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엑스포를 제가 직접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내심으로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막을 올리고 보니 이러한 우려가 말끔히 사라지고,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충남이 금산인삼 세계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순조롭게 내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금산인삼을 세계 속에 알려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침체된 지역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부디 이번 엑스포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지구촌 온 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건강의 대향연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록 성찬은 아니지만, 인삼을 사용한 특색 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못 다한 환담을 정겹게 나누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려인삼의 참맛을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6금산인삼엑스포의 성공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명나는 민속축제의 한마당

제16회 민속대제전 격려사

2006. 9. 22.

오늘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때에, 200만 도민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열여섯 번째 민속대체전이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김원식 중도일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의 명예를 걸고 참가한 선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계룡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농민들이 여름내 흘린 땀에 대한 보답을 하듯 곳곳마다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온 누리에 넉넉함이 넘치는 이 때에 함께 모여 풍년의 기쁨을 노래하는 잔치를 벌여 왔습니다.

여기에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느라 애쓴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마을의 화합과 유대를 다지고자 하는 공동체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민속대제전은 바로 이러한 흥과 멋을 되살려 나가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계룡축제와 함께 개최된 점에서 참가 선수는 물론 계룡시민 여러분의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범람하는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우리 고유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민속예술을 살려 나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열린 이 제전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생활 속에서 더욱 활짝 꽃피우고, 도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밑거름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큼은 승패를 떠나 신명나는 분위기 속에서 선수와 관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운데, 다함께 하나가 되는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것이 역시 좋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전하는 데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도정 또한 앞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축제가 일상생활의 시름을 더는 신명나는 한마당 축제가 됨은 물론, 서로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여러분 모두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

제13회 충청남도기업인대회 대회사

2006. 9. 27.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발전을 다지는 제13회 충청남도기업인대회가 열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에서 계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대회를 주관해주신 한평용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님, 강희복 아산시장님, 강태봉 이기철, 이종현 도의원님, 그리고 변평섭 충청투데이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오늘날 세계시장에 개방과 경쟁이 날로 가속화되면서, 기업도 창조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지 않고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먼저 나서서

창의적인 연구, 합리적인 생산과 경영, 다각적인 마케팅 등 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혁신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의 값진 땀과 노력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 돼야 지역경제가 살고, 나아가 국가발전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민선 4기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그 중심에 지역경제 활력화를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도정 또한 여러분께 새로운 활력과 의욕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강한 충남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일구어 가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면서, 충남기업인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패를 떠나 우리는 한 가족

제12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대회사

2006. 9. 27.

오늘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장애인가족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제12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행사를 주관해주신 이종건 홍성군수님, 소진정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님, 황화성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장님, 노윤철 충남농아인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문표 국회의원님, 류병기 도의회 부의장님 오제직 도교육감님, 김정식 충남지방경찰청장님, 그리고 신준희 보령시장님과 시장·군수님 여러분을 비롯한 내빈과 홍성군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장애인가족과 홍성군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 지금, 들녘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고, 서로의 정과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제26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우리 도는 종합 6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 선수단 여러분께 마음 깊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에 출전했던 선수와 임원 여러분께 우리 다함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저는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딛고 당당히 사회에 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무엇보다 소중하고도 값진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희망과 힘을 심어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굳센 의지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노력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주고 충남 체육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모처럼 만에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승패를 떠나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식 속에 다함께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동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 일자리 창출

충청지역의고용상황과 일자리창출관련 세미나 기조연설

2006. 9. 27.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고장의 고용상황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해주신 윤여봉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실 진대제 석좌교수님을 비롯한 경제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제전문가 여러분!

일자리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하였고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유가와 환율 하락, 내수 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와 충남지역의 실업문제는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청년실업률을 보더라도 프랑스 22.8%, 독일 15.2% OECD 평균이 13.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0%에 불과합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중 전국 실업률은 3.4%이나, 충남은 2.2%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고용시장이 안정되었음에도 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른 바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계속된 경기 침체와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래 들어 노동시장에서도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고용주와 취업자 간에 눈높이가 맞지 않아 노동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실업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실업문제들이 우리나라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와 기업체, 노동계와 전문가 등 경제주체들 간에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와 상생의 공존관계를 구축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과 집단의 이익보다는 타인과 국가 전체를 폭넓게 생각하는 대승적인 자세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는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께서 함께 모이신 만큼 앞으로 충청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합리적 분배를 위한 일자리창출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란한 백제문화의 향연

제52회 백제문화제 개회식 치사

2006. 9. 28.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1,400여 년 전 동아시아에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백제의 위대한 혼을 되살리기 위한, 제52회 백제문화제의 화려한 막이 오른 것을 여러분과 함께 경축합니다.

먼저 전국에서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성대한 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무환 부여군수님과 윤준웅 부여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소박함 속에 세련된 멋을 창조해 온 해양강국 백제는,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국가로서 선진문물을 주변국들에게 전파한 문화강국이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이렇듯 진취적이고 개방된 역사를 창출해 온 백제역사의 중심지이자, 백제선인들의 위대한 기상과 얼이 깃든 축복받은 땅입니다.

또한 근래에는 우리지역 곳곳에서 백제 초기의 유적과 유물이 다수 발견됨으로써, 웅진·사비시대 이전에도 이미 문화적 역량을 갖춘 지역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백제는 역사의 왜곡에 의해 패망의 역사로 인식돼 왔습니다.

우리보다 근 20년이나 뒤늦게 시작된 신라문화제에 비해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전국규모의 축제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왜곡된 백제역사를 바로 잡고, 백제문화제를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민선 4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자치도정은 격년제로 실시하던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완공되는 2010년에는 백제문화제를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찬란한 선조들의 얼과 슬기를 되살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일이야말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문화제가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성대한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어, 찬란한 백제문화의 향기를 널리 선양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백제문화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의 자랑, 역사박물관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식 치사

2006. 9. 28.

오늘 우리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이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덕기 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유병기 도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님, 이인구 계룡건설명예회장님과 조준호 대전일보사장님, 그리고 이준원 공주시장님과 이동섭 공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구석기시대부터 백제시대와 중세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운 고장입니다.

더욱이 개도한 지 1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심장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충남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충남의 정신과 긍지를 드높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 지 10년, 마침내 오늘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귀중한 유물을 기증·기탁해주신 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 이제 소장 유물 3만점이 넘는 어엿한 역사박물관으로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곳이 우리 충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올바로 알리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충남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산실로 발전해 나가리라 굳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관식이 소중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아끼고 보전하는 결의를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개관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쌀 홍보

재인충남도민회장에게 보내는 충남쌀홍보 감사 서한

2006. 9. 29.

지금 고향은 여름내 흘린 땀방울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온 누리에 황금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를 비롯한 도민들도 향우님의 염려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인천 신세계 백화점에서 열린 '충남쌀 판촉홍보전'을 통해 향우님의 따뜻한 고향사랑의 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고향을 위한 일에 발 벗고 나서 주신 향우님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고향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향우님을 뵈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루는 데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자치도정은 이번 귀성길이 훈훈하고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품질 높은 농수산물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 고향의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농수산물을 많이 애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석은 예년에 비해 연휴기간이 길고, 마침 금산에서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는 만큼, 가족 · 이웃들과 함께 행사장을 방문하시어 유익한 건강체험의 기회를 갖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향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대한 사물놀이 축제

제15회 세계사물놀이겨루기 한마당 축사

2006. 9. 30.

찬란한 백제문화의 정취가 어린 부여 정림사지에서 제15회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이 열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멀리에서부터 우리고장을 방문해주신 국내외 공연단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대한 축전을 마련해주신 김무환 대회장님과 김덕수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관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물놀이는 우리민족의 신명과 흥을 가장 멋들어지게 보여주는 민속예술로 그 흥겨운 가락에 국민은 물론 외국인까지 절로 어깨춤을 추게 되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사물놀이는 이제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구심체가 됨은 물론,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전통예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전통예술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문화컨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규모와 공연수준이 나날이 풍성해지고 있어, 이곳 부여가 세계 사물놀이의 메카로 도약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제52회 백제문화제와 함께 열러,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유익한 추억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울리는 신명나는 장단이 지구촌 곳곳에 널리 퍼져,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밝은 세상을 열어가는 힘찬 원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모처럼 전 세계 사물놀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가운데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돈독히 다지는 흥겨운 한마당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듭 뜻 깊은 축제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사물놀이 한울림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풍물의 흥과 멋

제10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주부풍물대회 치사

2006. 9. 30.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높은 하늘과 시원한 바다가 어우러진 석문방조제에서 제10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주부풍물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주부풍물단원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문선이 대회장님을 비롯한 당나루풍물놀이 회원 여러분,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낙성 국회의원님, 이종현 김홍장, 송덕빈 도의원님, 민종기 당진군수님과 김명선 당진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주부풍물가족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일상생활 속에서 흥과 한의 조화를 통해 수준 높은 멋을 창조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풍물은 농경생활의 고단함과 삶의 애환을 달래며, 마을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문화로 발전해온 민속예술입니다.

여기에는 대자연에 대한 감사와 함께 고생한 이웃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서로의 화합을 다지고자 하는 조상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문화를 육성시켜 우리의 얼을 계승해 나가는 것은,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는 여러분의 사랑 속에 전국대회로서의 전통과 면모를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힘찬 몸짓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줌은 물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폭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주부풍물가족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가 되길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역경을 예술로 승화

충남장애인시설 예능발표대회 격려사

2006. 10. 2.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장애인 여러분의 예술적 역량을 키우고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충남장애인시설 예능발표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해주신 권호선 충남장애인시설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애인가족 여러분!

어느새 들녘은 황금물결로 일렁이고, 주위의 산들은 붉은 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가득한 가을의 정취는 우리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가 하면 넘치는 흥을 다양한 예술적 감흥으로 표현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 소중한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때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을 선보이며 밝은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감은 물론, 서로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감성의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의 향기를 접하며, 그 속에서 재능을 키워 나가는 것은 장애인이라 하여 소외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인이 갖고 있지 않은 감성을 살려 소질과 재능을 키워가는 것은, 삶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보여 줄 작품과 공연들은, 그동안에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완성된 값진 결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오늘을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해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만들기 위한 열정과 정성을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애인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날입니다.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자랑하고, 동료들의 공연에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줄 뜨거운 열정과 의지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값진 것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치도정 또한 여러분과 늘 마음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알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활력

제11회 도민의날 담화문

2006. 10. 5.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10월 5일은 열한 번째 맞는 도민의 날입니다.

민선 4기 자치도정을 힘차게 열어 가며 처음 맞이하는 뜻 깊은 날을 여러분과 함께 경축하면서,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충남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뗄 수 있었습니다.

황금물결로 가득 찬 들판은 풍년농사를 예고하고 있으며,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국내외의 폭넓은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환율하락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출실적을 보이며,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13억 달러가 넘는 외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자치도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역사의 도도한 물결은 지금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오기 어려운 도약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찬란한 백제의 영광과 드높은 기개와 충절을 지닌 충남인의 역량을 역동적으로 펼칠 수 있는 새 시대가 다가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은 새로운 희망과 활력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용하고 정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웅비의 날갯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열정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충남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더욱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축복받은 이 땅에 땀과 정성을 쏟아 부어 후손들에게 복된 삶의 터전으로 물려줍시다.

200만 도민의 위대한 저력을 하나로 모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기필코 이룩해 나갑시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서 오대양 육대주에 자랑스러운 충남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그리하여 먼 훗날 후손들에게, 바로 우리가 위대한 충남과 국가발전을 일군 주역이라는 것은 자랑스럽게 얘기합시다.

열한 번째 도민의 날을 맞아 자치도정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넉넉하고 정감 있는 추석명절

추석명절 담화문

2006. 10. 6.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온 누리에 풍성함과 넉넉함이 가득한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지난여름의 호우피해를 극복하고 들판마다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됐다는 점에서 마냥 풍요롭습니다.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도청이전 후보지를 마침내 확정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대역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더욱 뿌듯하기만 합니다.

여기에다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오대양 육대주를 향한 수출 충남의 힘찬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한 민선 4기 자치도정은 불과 석 달 만에 12억 5천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도민 여러분께서 충남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휴기간이 길어 가족과 이웃 간에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과 귀성객 여러분께서 이번 연휴기간 중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에서부터 물가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처럼 만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뜻 깊은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전통민속행사를 통해 고향의 포근한 정을 느끼는 가운데, 다함께 하나가 되는 흥겨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어르신과 이웃을 찾아 따스한 정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 데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산에서 지구촌 건강축제인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되어 국내·외에서 많은 손님들이 우리고장을 찾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 분들께 우리 충남의 넉넉한 인심과 따스한 인정을 보여주어 충남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우리에게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룩해나갈 저력이 있음을 각인시켜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넉넉한 마음으로 다함께 하나 되는 뜻 깊은 명절이 되길 소망하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명절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 사랑과 보전

제560돌 한글날 경축식 경축사

2006. 10. 9.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글날이 다시 국경일로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뜻 깊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제560돌 한글날 경축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진구 국회의원님,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오제직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한글을 통해 민족문화를 선양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어연구학으로 세계 최고인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은 한글을 세계 제일의 문자로 인정하였으며, 유네스코가 수여하는 문맹 퇴치 공로상의 이름도 '세종대왕상'입니다.

실제로 한글은 인간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고 충실히 표현함은 물론, '아침글'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누구나 배우기 쉬운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자연발생적이 아닌 과학적 체계와 원리를 지닌 최초의 언어로서, 세계적으로도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듯 자랑스러운 한글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장년층은 한문을, 청년층은 영어를, 그리고 청소년층은 국적불명의 신조어를 남발하며, 한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한글날을 국경일로 복원해 한글의 소중함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한글의 보전에 앞장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글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여 민족문화를 활짝 꽃 피움은 물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이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한글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가운데, 찬란한 민족문화의 발전을 기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알찬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본보기

구마모토현지사 환영만찬 만찬사

2006. 10. 10.

존경하는 시오타니 요시코 지사님 내외분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멀리에서부터 우리고장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뵈면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즐겁기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양 도·현은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21세기 동북아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본보기를 이루어 왔습니다.

마침 어제는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인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건과 함께 오늘 지사님의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도·현 간의 더욱 실질적인 교류·협력관계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비록 소찬입니다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미쳐 못 나눈 환담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지사님의 방문이 알찬 성과를 거두길 소망하면서 구마모토현의 무궁한 발전과 지사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제19회 충남여성포럼 격려사

2006. 10. 10.

여러분,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여성포럼회원님과 여성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19회 충남여성포럼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김경숙 선임대표님과 이선자, 하금수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재현 공주대학교총장님과 이준원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실 권오을, 유승희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충남여성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정치 분야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추진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변화와 혁신이 너무 빠르게 진전돼왔고,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향상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남녀평등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근래 들어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 스스로가 먼저 열정과 의지를 갖고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여성의 권익향상과 온전한 참여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이제 여러분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지방자치와 여성의정 발전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들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남여성포럼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통 국악의 선양

제7회 박동진 판소리명창·명고대회 축사

2006. 10. 11.

온 누리에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전통국악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제7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판소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계시면서, 이 대회 참가를 위해 우리고장을 찾아주신 전국의 국악인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뜻 깊은 대회를 주관하신 이재영 박동진판소리선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악인 여러분!

국창 박동진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이 대회가 시작된 지 어느덧 일곱 해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는 국악인 여러분의 열띤 호응 속에,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지며 전통국악의 맥을 잇는 후예들을 양성하는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판소리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삶의 애환과 정서를 대변해왔습니다.

명창과 고수, 그리고 관중이 때로는 구성진 가락에, 때로는 흥겨운 장단에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가운데, 한과 흥을 함께 나누어 온 고유의 종합예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성과 예술성을 갖춘 자랑스러운 이 민족음악을, 우리가 아끼고 보전하는 일은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예술의 보전과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 열리는 이 대회는, 오늘날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가치를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다지면서 모쪼록 이 대회가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 속에 나날이 발전하여 국악의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민족음악의 미래를 밝혀 나갈 대들보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모처럼 만에 판소리의 진한 감동과 향기에 흠뻑 빠져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 더 큰 보람과 성취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명나는 풍물의 어우러짐

제5회 충남도지사기 일반풍물대회 축사

2006. 10. 12.

오늘 지구촌의 건강축제인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에서 제5회 충청남도 일반풍물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강주형 한국국악협회충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김석곤, 유태식 도의원님, 박동철 금산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명예를 걸고 참가하신 풍물단원과 금산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풍물 가족 여러분!

온 누리에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지금 들녘은 곳곳마다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때마침 전 세계인의 건강축제인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함께 열려 한층 흥겨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넉넉함이 넘치는 이 때에 모두 함께 모여 풍년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는 축제를 벌여 왔습니다.

여기에는 대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마을의 결속과 유대를 다지고자 하는 소중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풍물은 우리 민족의 삶의 애환을 흥과 신명으로 승화시켜온 독특한 민속예술입니다.

이 때문에 풍물의 흥겨운 장단을 들으면 우리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조차 절로 어깨를 들썩이며 신나는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신명나는 가락이 우리 민족의 얼을 되살려 나감은 물론 도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풍물 가족 여러분!

오늘 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함께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것은 역시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이를 아끼고 보전하기 위해 더욱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우리고장 풍물가족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오늘 대회를 위해 애쓰신 분들과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국국악협회충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공경의 미덕과 솜씨자랑

노인솜씨자랑 및 시조경창대회 축사

2006. 10. 13.

경로의 달을 맞아 우리고장 어르신들의 큰 축제인 노인솜씨자랑 및 시조경창대회가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어르신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솜씨자랑과 시조경창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이상호 노인회장님과 시군노인회 지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공주시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노인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동시에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계층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부양계층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마저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해 조기퇴직이 확산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주요과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일제시대와 6. 25 등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르신들께서 젊은 날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덕분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진 희생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질적 시혜보다는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풍토와 미덕을 되살려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르신 여러분께서 먼저 건강하시고, 활력 있게 지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얼을 계승시키고, 소중한 경험과 가르침으로 날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일 또한 어르신 여러분이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모든 어르신들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을 접어두시고, 다함께 하나로 어우러지시는 가운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솜씨자랑과 시조경창대회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거듭 소중한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어르신 여러분의 강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산인삼의 무한한 가능성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폐막식 치사

2006. 10. 15.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지구촌 최대의 건강이벤트인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마침내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엑스포가 성황리에 종료되기까지 밤낮없이 고생하신 이보식 조직위원장님과 박동철 금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손님맞이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주신 자원봉사자와 금산군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님과 홍표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신 KBS 대전방송 총국장님과 정현수 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금산군민 여러분!

지난 24일간 이곳에서 펼쳐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그야말로 감동과 환희의 무대였습니다.

9개국 65개 업체가 전시에 참가한 것을 비롯해 총 27개국에서 함께 참여하여 명실공히 세계인의 건강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행사장 68만명을 포함해 총 190만명의 관람객을 동원하였고, 약 3,000만불의 수출계약 달성과 약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기대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그토록 많은 인파로 붐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원봉사자와 금산군민 여러분, 경찰·소방 공무원을 비롯한 운영요원 여러분,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언론기관과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분들의 극진한 정성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의 노고에 대해 마음 깊은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수확은,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금수강산과 고려인삼으로 이름난 금산이 세계적인 건강과 생명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 또한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과 결실을 바탕으로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다함께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앞장서주신다면, 이는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금산인삼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면서,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사의 예술혼 계승

제17회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축사

2006. 10. 15

오늘 전통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예산에서 제17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멀리에서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전국의 서예가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뜻 깊은 대회를 주관하신 이용면 예산문화원장님과 신두순 추사기념사업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문표 국회의원님, 최승우 예산군수님, 그리고 김기영·고남종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우리 고장이 낳은 조선조 최고의 서예가이신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서거하신 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추사체라는 독특한 서체를 창안하신 추사 선생은 중국과의 학술·문화 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금석학, 시문학, 그림, 경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예술가

이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추사 선생의 예술혼을 계승하고, 고고한 얼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휘호대회가 개최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의 전통과 향기가 살아 있는 독특한 향토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책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가 여러분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가운데, 추사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를 향한 뜨거운 투지

제87회 전국체전선수단 결단식 격려사

2006. 10. 16.

자랑스러운 선수와 임원 여러분!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오제직 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고장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필승의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장도에 오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과 각 학교 교장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선수들을 뒷바라지해 오신 지도교사님과 학부모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된 훈련을 승리를 향한 열정과 끈기로 극복하며, 우리 충남의 대표로 출전하게 된 선수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운동경기의 결과는 오로지 참가선수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들을 성원해 온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의 모든 역량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을 딛고 선수들이 감격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우리는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당시 IMF의 여파로 모두가 힘든 때에 우리는 종합우승을 거두어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줌은 물론, 힘찬 도약을 이루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김천을 비롯한 경북 일원에서 제87회 전국체전의 성대한 막이 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싸워 자랑스러운 승리의 개선가를 다시 한 번 소리 높여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상에 오르기보다 한번 오른 정상을 지키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구릿빛 얼굴과 늠름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도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가슴에는 승리를 향한 뜨거운 투지를, 두 손과 발에는 넘치는 자신감을 담아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충분히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임을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각오를 굳게 다지면서,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빛나는 승리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이 있기까지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선수단 여러분의 건투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선수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엑스포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종사자 격려 인사말씀

2006. 10. 16.

오늘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엑스포를 위해 휴일도 잊은 채 뙤약볕에서 고생한 조직위와 금산군 직원 여러분께 마음 깊은 치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나는 이번 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땀과 정성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을 한 가족으로 두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뿌듯하기만 합니다.

당초 인삼이라는 단일 주제를 갖고 세계적인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켰습니다.

온종일 발품을 파느라 햇볕에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관람객을 안내하느라

목이 쉴 정도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인삼 하나만인 전시연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한 끝에, 독특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과정이 고비마다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공직생활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랑스러운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다른 데서는 좀처럼 얻을 수 없는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면, 반드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나는 이러한 신념과 용기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루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마음 같아선 고생한 여러분에게 듬뿍 선물을 안겨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함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에게 최대한의 보상과 배려를 해주겠으니, 혹시라도 그동안 파견근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으리라는 우려는 절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엑스포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교훈들이 여러분과 도정의 발전에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군 문화 이해증진의 계기

지상군페스티벌 및 디펜스아시아2006 개막식 축사

2006. 10. 18.

오늘 우리나라 국방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지상군 페스티발' 및 '디펜스 아시아 2006' 행사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계와 전국 각지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기 위해 우리 고장을 방문해주신 방위산업 기업인과 관계자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주관해주신 김장수 육군참모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방가족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며,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얼마 전 북한은 그동안의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핵실험을 실시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통일과 남북정책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지속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되어 가고 있는 이 행사는 '강한 친구, 대한민국 육군'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진진한 체험거리로 여러분을 모실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전까지 행사장이 좁아 인근장소에서 분산 개최해 오던 것을 계룡대 지역에서 통합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 같은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군에 대한 이해증진과 군문화산업 발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지금 '계룡세계군 문화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의 중추시설이 입지한 계룡대의 특성을 살려 나감은 물론 국내·외 군수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민·군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국방의 소중함과 국내 방위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 충남의 역할과 방향

지방자치포럼 환영사

2006. 10. 18.

오늘 바람직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대전 · 충남지역 포럼이 우리 도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를 방문 해주신 행정자치부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도와 공동으로 포럼을 주관해 주시면서 축하의 말씀을 해 주실 정진철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을 진행해 주실 대전대학교 이창기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실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연구실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대전 충남지역 포럼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대전. 충남의 시 · 군 · 구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 과제인 국가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 · 충남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 이전 등 우리지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위원님 여러분 !

오늘 포럼에 참여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도정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주셨으며, 특히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큰 힘을 실어 주심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과 인접된 서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이 우리 도정의 크나큰 현안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민선4기 도정도 오늘의 토론 주제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앞으로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역할 못지않게 중앙정부의 지원과 200만 도민의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과 함께 포럼 위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이 국가와 우리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훌륭한 고견들이 넓게 개진되고 논의되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인의 자긍심과 고향사랑

재부충청연합향우회 창립1주년 기념식 격려사

2006. 10. 19.

향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충청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재부충청연합향우회 창립 1주년 기념식이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충청인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늘 고향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처럼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만수 회장님과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용래 총재님을 비롯한 향우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향우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1년 전 구심체를 만들어 힘찬 출발을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충남은 새롭게 시작한 민선 4기를 맞아 곳곳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집중호우를 딛고 올해도 고향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 균형개발의 큰 틀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이 1위를 보이며, 수출 충남호는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온 도민의 성원 덕분에 약 13억 4천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다시 올 수 없는 지역발전의 호기를 살려,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기필코 이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충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운명을 헤쳐 가는 자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지닌 여러분을 뵈면서,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무난히 이룰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처럼 함께 하신 만큼, 그동안 못 나눈 회포를 푸시면서 충청사랑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재부 충청연합향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향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육환경 개선

제5회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격려사

2006. 10. 2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고장 보육인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제5회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인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 오신 보육시설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조원주 충남보육시설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이선자 · 황화성 · 박공규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이준원 공주시장님과 김정숙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충남보육인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 저하는 곧 나라전체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맘 놓고 일 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보육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위해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알차고 실현가능한 보육지원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모쪼록 오늘 한마음대회가 서로의 정과 사랑을 새롭게 다지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충남보육시설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보육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봉사

JCI KOREA 제55차 전국회원대회 축사

2006. 10. 22.

오늘 JCI KOREA 회원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제55차 전국회원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대회의 참가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우리 고장을 방문하신 JCI KOREA 회원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표현철 중앙회장님과 이인성 동천안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양승조 국회의원님과 전용학 부사무총장님,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과 성무용 천안시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JCI KOREA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반세기가 넘도록 지역사회에 헌신과 봉사의 씨앗을 뿌려 오셨습니다.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참사랑을 펼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은 우리 사회를 1 보다 밝고 훈훈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우리의 관심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이신 만큼, 그동안 못 나눈 정담을 나누시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가 회원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가운데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JCI KOREA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하는 노사문화

노사화합 한마음다짐대회 격려사

2006. 10. 24.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 계룡산에서 노사화합 한마음 다짐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홍재복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의장님과 한금태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표근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충청남도 노·사·정협의회 각 위원님, 그리고 노사대표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대회는 노·사가 한자리에 모여 신뢰를 쌓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사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존중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양보와 타협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적인 노사문화는 노사가 마음을 열고 함께 땀 흘리며 화합을 다지는 일들이 쌓일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오늘 하루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즐겁고 뜻 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노·사 대표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의 사랑 실천

제14회 충청남도 여성자원봉사자대회 대회사

2006. 10. 24.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4회 충청남도 여성자원봉사자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눔의 참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주신 여성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여성자원봉사자 여러분!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는 비결은 내가 먼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또한 봉사로 맺어진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가 되며, 그 관계를 통해 인생의 기쁨과 삶의 보람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족단위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파랑새 가족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행사와 함께 '사랑의 한줌 쌀 모으기'에 적극 동참하여 이웃사랑 실천운동에도 앞장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회를 통하여 참여와 봉사의 정신이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회가 여성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화합을 다지는 가운데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경제의 활력화

지역경제활력화 대토론회 축사

2006. 10. 24.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역동적이고 강한 충남경제를 만들기 위한 지역경제 활력화 대토론회가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경제전문가와 기업인, 대학교수님과 지역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역경제인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보면 내수 침체와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유가상승 등으로 무역조건이 악화되었고, 석유관련 제품의 가격이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인 여러분!

델 컴퓨터의 창업자인 미국의 마이클 델은 "호기심을 느끼고 기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남들과 달라질 수 있는 성공 방정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좋지 못한 경제상황을 맞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또 다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앞으로 모든 시·군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외자유치, 그리고 유수기업 유치를 통한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우리지역을 찾는 기업들이 신나게 기업할 수 있고 계속해서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과 지적해 주시는 말씀 하나 하나는 우리도의 지역경제발전을 앞당기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우리 충남의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스플레이산업의 비상

충남디스플레이센터 개소식 개회사

2006. 10. 25.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충남디스플레이센터가 개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개소식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신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진구 국회의원님, 강희복 아산시장님, 이기원 아산시의회 의장님, 윤동섭 산업자원부 본부장님,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가족 여러분!

오늘 충남디스플레이센터의 개소는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Korea, 충남'을 구축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소재와 더불어 차세대 신 성장동력 산업이자 우리 도의 4대전략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7월 S-LCD와 9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외자를 유치한 것 역시 세계적인 디스플레이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아산시와의 공조를 통하여 S-LCD가 신규 투자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는 등의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인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개소한 디스플레이센터는 우리 충남의 크리스탈밸리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디스플레이산업의 핵심 센터가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통한 디스플레이산업 기술연구와 기술 집적, 그리고 기술거래의 허브로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충남디스플레이센터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의 시대적 사명 완수

제12회 도의새마을운동촉진대회 치사

2006. 10. 25.

오늘 제12회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의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한창숙 도새마을회장님,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손진영 새마을중앙회 사무총장님과 조규선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시장·군수님 이창배 도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임덕재 서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군의회 의원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에 찬란히 빛나는 국민정신운동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보람 있는 일터를 가꾸며,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여 잘 살기 위한 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사회통합을 이룬

그 바탕위에는 이러한 새마을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새로운 시대적 사명감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민정신을 드높이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대화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과 참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기치를 새롭게 드는 일이며, 여러분이 앞장서 주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가 자랑스런 도의와 예절의 고장 우리충남을 더 한층 발전시켜 건강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일구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과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회의 버팀목

2006충남자활한마당대회 격려사

2006. 10. 26.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자활근로자 여러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2006 충남자활한마당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훈훈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땀 흘려주신 자활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그동안 모범적인 자활사업을 펴 오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주최하신 김영석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충남지부장님,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차성남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님, 신준희 보령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자활근로자 여러분!

인생은 얼마만큼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묵묵히 전진해 나간다면 미래는 분명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활근로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청소, 폐자원재활용, 간병 등은 우리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사랑과 애정을 쏟는 매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설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밝은 미래가 열리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경제의 성장 엔진

현대일관제철소 기공식 축사

2006. 10. 27.

오늘 우리지역 당진에서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 기공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사다망한 가운데 오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이곳 당진에 오셔서 참석해주신 노무현 대통령님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깊이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당진은 예로부터 중국과의 국제무역이 왕성했던 지역으로, 항만으로서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바다를 향해 배를 띄웠던 이 자리에 2011년 우뚝 서게 될 제철소는 한국경제에 또 하나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철강도시 당진을 중심으로 자동차·기계부품 등 관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하겠으며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현대가족과 당진군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전정신으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현대제철이 희망과 번영의 땅 당진에서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힘찬 출발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경축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제철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

2006대전 · 충남중소기업엑스포 및 채용박람회 축사

2006. 10. 27.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고장 중소기업인들의 한마당축제인 2006 대전 · 충남 중소기업 엑스포와 채용박람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고장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김맹룡 대전지방노동청장님과 박희원 한국중소기업 이업종교류 대전 · 충남연합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내수가 불완전한 회복에 머물러 있고 고유가와 환률 하락

등으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고장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값진 노력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오늘날 기업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소비자의 성향에 부합하는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2006 대전 · 충남 중소기업 엑스포와 채용박람회 개최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06 대전 · 충남 중소기업 엑스포와 채용박람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우리고장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힘찬 원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고장 중소기업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 화합의 축제

제5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대회사

2006. 10. 28.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환황해권의 중심지인 당진에서 제5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종기 당진군수님을 비롯한 당진군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계의 내외귀빈 여러분과 각 시·군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87회 전국체전에서 종합성적 4위로 10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는 쾌거를 이룬 우리 선수단 여러분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치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성과가 소중한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이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을 돈독히 하고, 화합을 다지는 축제가

열린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즈음 생활체육이 널리 확산되면서 이제 스포츠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활동이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떠나, 구성원 간의 결속을 다지고 계층 간의 이해와 화합을 다지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역사상 유래가 없는 발전의 계기를 맞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꿈을 눈앞의 현실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난과 역경을 화합과 단결로 극복해 온 도민 여러분의 저력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러한 역사적 과업도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대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이번 대회를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가족 화합의 한마당

도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대회 인사말씀

2006. 10. 28.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실이 아닌 밖에서 여러분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나는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래도 이 나라를 지탱해 주는 근간은 공직자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열정과 능력을 한없이 신뢰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벤처농업박람회와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전국체전에서의 10년 연속 상위권 유지 등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힘도 들었고, 또 그 만큼의 보람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만큼은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기 바랍니다.

운동장도 달려 보고 동료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눠 보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한마음 다짐대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직장을 위한 다짐

도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대회 마무리 인사말씀

2006. 10. 28.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먼저 상을 받은 분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함께 참여해 준 동료 직원 여러분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한마음 다짐대회도 작년에 이어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하여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노동조합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료들과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운동경기를 통하여 함께 참여하고 응원하는 모습에서 우리 동료 직원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하나가 되는 동료애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깊이 간직하고 더욱 활기차고 훈훈한 직장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내일 모레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정신은 지역발전의 구심점

제16차 충남지구JC특우회 우정의날 **축사**

2006. 10. 29.

오늘 제16차 충남지구 JC 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정석용 회장님과 김관용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JC 특우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 충남은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의욕이 넘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성장세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막이 올랐던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알찬 결실을 거두고 성황리에 종료되어 농업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도민들이 우리도 하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충남은 더 이상 발전의 대열에서 소외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꿈을 현실로 바꾸는 청년정신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위한 대장정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먼저 앞장서주시고 중심 역할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를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남지구 JC특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전소비 실천 다짐

건전소비생활 범도민다짐대회 격려사

2006. 10. 3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43회 저축의 날을 맞아 건전소비생활 범도민 다짐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 그리고 저축증대에 기여하신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조춘자 전국주부교실 충청남도지부 회장님을 비롯한 주부교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우리 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 이전에 따른 개발심리에 편승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 연속 물가안정 우수 도에 선정된 바 있고, 금년 상반기 중앙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 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근검·절약을 통한 저축생활화로 가계 안정도 이루시고 건전소비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프랑스의 모럴리스트인 상포르는 "가장 부유한 사람은 절약가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수전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근검·절약과 같은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해 물가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는 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다짐대회가 건전소비 실천의지를 결집하여, 전국 제일의 건전소비실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의 최상위 법정계획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안 공청회 축사

2006. 10. 31.

오늘 우리 도의 2020년 미래상을 제시해 줄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제발표와 토론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창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토론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차 도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와 오늘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과 김시환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어 도청 신도시 건설이라는 또 하나의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兩大 신 성장 거점도시를 모티브로 삼아, 지역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충남을

한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충남이 명실상부한 국가중추행정의 새로운 중심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환황해권 경제교류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는 도종합계획(안)은 우리지역 발전방향의 기본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우리 도의 정책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작업입니다.

모쪼록 오늘 공청회가 우리 충남의 지역발전에 대한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육 강도의 위상

제87회 전국체전선수단 해단식 축사

2006. 11. 2.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최선을 다하고 돌아온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께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오제직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선수들의 지도와 뒷바라지에 헌신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도는 종합성적 4위로 10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타 시도에 충남의 강한 인상과 이미지를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4위 입상은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사실상 1위의 자리를 굳힌 것과 다름없는 선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값진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선수 여러분의 피나는 연습과 훈련, 선수들의 뒷바라지에 헌신한 지도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단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어떤 것도 분명한 목표를 위해 존재하려는 인간의 의지에는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나은 내년을 기약하며, 선수와 지도자, 임원 등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체육 강도 충남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충남체육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체전을 통해 보여준 선수 여러분의 선전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충남 실현

한국의중심, 강한충남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

2006. 11. 3.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 진행을 맡아 주신 박강수 전 배재대학교 총장님과 주제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실 대학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강희복 아산시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학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

오늘 토론회는 민선4기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책토론회 입니다.

저는 지사 취임과 더불어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 있는 농어촌과 역동적인 산업경제

그리고 건강한 자연환경이라는 다섯 가지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 역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부문별 정책방향 모색입니다.

이 주제를 놓고 대학교수님과 전문가님께서 도정 5대 목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네 가지 부문별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주시게 될 텐데, 자못 기대가 큽니다.

대학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

일찍이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토머스 칼라일은 "우리가 해야 할 큰일은 먼데 있는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정한 도정의 5대 목표 역시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며, 민선 4기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전 지역이 고루 잘 사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고견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문화산업 동량

제8회 금강청소년영상예술제 시상식 축사

2006. 11. 4.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마무리하는 때에 제8회 금강청소년 영상예술제 시상식이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술제를 마련해 주신 류소영 이사장님과 김수량 학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창의정신으로 훌륭한 작품을 제작하여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청소년 여러분께도 따뜻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기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높은 이상과 미래에 대한 창의적인 도전정신은 여러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입니다.

나는 이번 예술제를 통해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창의성과 예술성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차세대 유망산업입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시설과 장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산업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획력을 갖춘 창작 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수한 콘텐츠로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포켓몬스터'나 '헤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겨울연가' 등 국내외에 선풍을 일으킨 작품들은 한결같이 소수의 창작 인력과 조그만 작업공간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과 예술적 소양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내일의 커다란 성취를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자신의 실력과 소양을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상식이,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동량들을 발굴·육성해 나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알찬 예술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큰 꿈을 키워주시는 공주영상대학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의 디딤돌

충남문화 발간 축사

2006. 11. 4.

먼저 지역문화 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수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도내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남문화 제10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거대한 시대의 조류 속에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기가 문화를 단지 이해하고 즐기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세기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형태로 변화·발전 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사회수준과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자동차나 TV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보다는 영화나 드라마를 수출하는 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와 마법사 등과 같은 영화는 전 세계에 배포되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나 음악, 드라마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산업은 21세기 부를 낳는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인 겨울연가와 사랑과 야망 등과 같은 TV프로그램은 이미 일본과 중국, 대만 등에 수출되어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백제의 찬란했던 고도인 공주와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소중한 문화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개최되는 문화예술 축제 역시 지역에 소재한 문화와 역사자원을 활용한 것으로서,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도청 이전 등에 따라 많은 발전이 예상되고 있어, 도민들의 문화향수 욕구 또한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지역문화발전에 거는 관심과 기대역시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민의 정서가 스며 있고 향토색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일은,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지역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하여 지역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일들은, 앞으로 충남문화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향토문화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다하고 있는 충남문화 제10호의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충남의 문화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는 박응진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문화원장님과 문화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과 견제의 조화

충남 시·군의회의원 의정연수회 축사

2006. 11. 6.

오늘 충남시군의회 의원 연수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의정 연수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이충재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님과 임덕재, 전유식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동수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건대 지난 16년은 이 땅에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꽃피운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또한 자치도정에 대해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해주셨고, 고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원님들의 역할은 우리 충남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으로 도약해 나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흔히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행정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행정은 협력과 공조, 견제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사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삼아 충남발전의 호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고, 200만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가는 시군 의회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연수회가 의정 수행능력을 함양하고 의원님 상호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연수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봉사의 실천 101년

대한적십자사창립 101주년기념 지사연차대회 축사

2006. 11. 9.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적십자사 창립 101주년 기념 지사연차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 공적으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적십자 가족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박건영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광진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님과 이영규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님, 김광수 대한적십자봉사회 대전·충남지사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적십자 가족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 구현을 목표로 이 땅에 창립된 지

올해로 10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회봉사 활동과 구호활동, 이산가족 찾기 운동과 북한동포 돕기 운동 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값진 희생과 봉사의 손길 덕분에 우리사회에는 사랑과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한 평생을 사랑과 봉사의 실천에 다 바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고, 그 행동은 봉사이다."라고 하여 봉사의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전·충남지사가 이룩한 성과와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활동을 계속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이 대회가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력 있는 농촌 건설

제42회 충청남도4-H경진대회 시상식 치사

2006. 11. 9.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42회 충청남도 4-H경진대회 시상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4-H 대상과 4-H 발전에 기여하신 공적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단체에 대하여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며, 그간 4-H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서명원 충청남도 4-H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덕수 한국 4-H 중앙연합회 부회장님과 안효권 충남 4-H 후원회장님,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4-H회원 여러분!

반세기전에 도입된 4-H운동은 가난했던 농촌에 희망을 불어 넣어준 농촌계몽운동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해도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을 비롯하여 농촌환경 보전활동과 친환경농업 실천 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4-H회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FTA 등 농업부문 개방화와 노령인구의 증가, 이농현상 등으로 인해 우리농촌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좌절할 수는 없으며, 이 위기를 우리 농업과 우리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을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활력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4-H회원 여러분의 힘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충남 4-H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충청남도 청소년CYS-net통합지원체제 출범식 격려사

2006. 11. 9.

오늘 충청남도 청소년 CYS-net 통합지원체제 출범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전해철 충청남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제직 도교육감님, 이훈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님과 김정식 충남지방경찰청장님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소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긴급구호, 치료와 재활 등을 돕기 위한 청소년 CYS-net 통합지원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사회의 양극화와 가정해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출이나 학업중단과 같은 위기심화 현상도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지난 2일,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남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광역 충남교육 안전망 구축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협약식은 유관기관이 청소년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간에 인적 물적 협력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학교 부적응 학생과 소외 청소년들에 대한 구제는 물론, 학교폭력 예방 등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교육안전망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무관심을 청소년에 대한 애정으로 전환하여 이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출범한 청소년 CYS-net 통합지원체제가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의 숨은 봉사자

대전일보창간 56주년기념 제33회 대일비호대상 시상식 축사

2006. 11. 9.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전일보 창간 56주년 기념 제33회 대일비호 대상 시상식이 열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전일보 창간 5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영예의 대일비호 대상을 받으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조준호 대전일보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일찍이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는 "봉사생활은 예술의 최고봉으로 진정한 환희에 차게 된다."라고 하여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다섯 분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경제발전,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숨은 일꾼과 봉사자들의 열정과 땀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라는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고 그 높은 뜻을 기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에 대하여 거듭 찬사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상식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어 가자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대전일보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문화예술의 도약

2006충남문화예술인대회 축사

2006. 11. 11.

오늘 2006 충남 문화예술인대회가 개최된 것을 2만여 지역 문화예술인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박응진 충남문화원장님과 김영천 한국예총 충남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정우 도의회 의원님과 김시환 청양군수님, 김석호 청양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 여러분!

금년 한해도 여러분께서는 지역전통과 특색을 바탕으로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펼쳐, 우리의 마음을 한결 넉넉하게 해주었습니다.

더욱이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에 발맞추어,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계획하고 지역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 진행해 온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를 대표하여 정선혜 무용단이 전국 무용제에서, 천안병천고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의 영예를 안아 우리 충남의 강한 인상과 이미지를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 여러분!

우리 도는 행정도시건설과 도청이전 등에 따라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어, 우리 충남의 문화예술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도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특성화된 문화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지방문화예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여러분께서도 우리 충남의 문화예술을 살찌우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대회가 지역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술혼을 재 점화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톤과 삶의 승자

제5회 전국구간마라톤대회 개회식 축사

2006. 11. 1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5회 전국 구간마라톤대회 개회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고장을 찾아 주신 전국의 마라톤가족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진석 국회의원님과 이준원 공주시장님, 박공규, 이선자 도의회 의원님, 이실 대한육상연맹 부회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라톤 가족 여러분!

흔히 마라톤은 우리네 인생살이에 비유되곤 합니다.

이는 마라톤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때에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듯이, 우리네 삶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와의 힘든 싸움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힘을 시험해보고 기록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고장을 찾아 주신 마라톤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톤 유망주 발굴의 산실

동아일보 2006백제마라톤대회 축사

2006. 11. 12.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백제의 고도 공주에서 제5회 전국구간마라톤대회 겸 동아일보 2006백제마라톤대회가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고장을 찾아주신 전국의 마라톤 가족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대회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님과 이준원 공주시장님,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실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마라톤 가족 여러분!

지난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막과 함께 시작된 백제마라톤대회가 어느덧 올 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우리나라 마라톤을 짊어지고 나갈 유망주를 발굴하는 명실상부한 대회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이 대회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한 정성과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가족 여러분!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짐에 따라 이젠 마라톤도 생활속의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에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간에 마라톤 동호회를 만들어 심신을 단련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심과 노력이 우리나라 마라톤을 활성화하고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처럼만에 일상의 스트레스도 훌훌 털고 자연과 역사의 향기가 어우러진 코스를 달리면서, 자신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훈훈한 우리 충남의 인심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이 대회가 참가자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마라톤 발전을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체장애인의 재활의지

2006충남지체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재활증진대회 축사

2006. 11. 13.

오늘 2006년 충남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재활증진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활에 대한 굳은 의지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지체장애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은 격려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체장애자 여러분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기여하신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소진정 도지체장애인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덕경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님과 황화성 도의회 의원님, 김원식 중도일보 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체장애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오늘은 지체장애우 여러분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참여를 기념하고 재활의지를 북돋아, 소외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다짐과 약속을 나누는 날입니다.

저는 장애인도 몸이 조금 불편할 뿐 다른 점에서는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의 위험 속에 살고 있으며, 누구도 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착취와 장애인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우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우리 주변에서 차별과 편견을 걷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권익증진과 삶의 터전을 위해 도지사로서 노력하겠으며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장애우 여러분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희망을 노래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다짐과 약속을 나누는 희망의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장애자 여러분에게 밝은 내일이 열리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갈망

2006년도 통일로가는한마음 충청남도대회 및 제37회 한민족 통일문예제전 시상식 격려사

2006. 11. 13.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06년도 통일로 가는 한마음 충청남도 대회 및 제37회 한민족 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용기 민족통일 충청남도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통일문예제전에서 입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양수 민족통일 중앙의장님과 진태구 태안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족통일 회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민족통일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북 지원과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각 분야의 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핵문제의 해결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에 매우 중요한 선결조건 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통일 회원 여러분!

이번 통일문예제전에서 입상하신 분들은 남다른 조국애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글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작품 하나하나에 깃든 나라사랑과 민족통일에 대한 갈망이, 머지않아 통일조국의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와 시상식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조국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민족통일 충청남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성과의 나눔과 새로운 다짐

2006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만찬 치사

2006. 11. 14.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곳 강릉에서 자랑스런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성대한 만찬을 준비해 주신 한창숙 도새마을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유병기 도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과 시장군수님,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우리 도의 시장·군수님, 시·군의회 의장님과 각 새마을관련 회장님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해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와 자원봉사 도민 기본예절 3대 실천운동,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 등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헌신과 봉사의 정신 이면에는 60년대 이후 그 어렵던

시기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 배우고 익혔던 불굴의 정신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봉사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이런 성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의 마무리도 잘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둬들인 결실을 밑거름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충남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께서 더욱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새마을 지도자님들 상호간에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도새마을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 명품브랜드 창출

2006축산인 한마음축제 격려사

2006. 11. 15.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고장 축산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2006 축산인 한마음 축제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유상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홍표근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이준원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축산가족 여러분!

최근 FTA 등으로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맛과 영양은 물론 안전성을 갖춘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58개 국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여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에 대비하여 특별방역기간을 정해 마을별로 공동방제단을 편성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축산물도 명품브랜드를 발굴하여 질로 승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한우 광역 브랜드인 '토바우'를 서울 가락동시장에 첫 출하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품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난 7월에 개소한 축산기술연구소 등과 함께 우량종축 생산과 축산바이오 기술개발 보급 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축산인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축산물의 명품창출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뜻 깊은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

2006국제결혼가정 한마당축제 격려사

2006. 11. 17.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06 국제결혼가정 한마당 축제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고 계신 국제결혼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김진배 국제교류문화원장님,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임성규 논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국제결혼 가족 여러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도내의 국제결혼 여성의 수는 1천5백14 명에 자녀수는 1천6백 1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정보의 부족 등으로 가족간에 갈등을 빚는 등 우리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에는 가정교육의 부재와 또래들의 인식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우리사회의 그릇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여성인 여러분들도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사회참여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여성인 여러분이 우리사회에 적응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글교실과 예절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과 학습지원, 생활고충상담과 지역 내 여성지도자와의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국제결혼가정 여성인 여러분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삼산업의 육성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화보집 발간 축사

2006. 11. 18.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화보집이 발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화보집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조준호 대전일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된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매우 성공적인 박람회였습니다.

총 27개국에서 65개 업체가 전시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19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감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인의 건강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욱이 2천 194만불의 수출상담과 40억 8천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려인삼의 국제화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육성과 수출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WTO와 FTA 등 농업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최대의 인삼거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이번 박람회는, 무엇보다도

가뜩이나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는 이보식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궈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모쪼록 이 화보집이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찾아 준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오래 간직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화보집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대전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전일보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가꾸기

제13회 도의새마을여인상시상식 및 행복한가정가꾸기 실천대회 치사

2006. 11. 20.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3회 도의새마을 여인상 시상식 및 행복한 가정 가꾸기 실천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한 가정 가꾸기 실천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으신 김계희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방은희 충청남도 새마을부녀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창숙 도새마을회장님, 조규선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새마을부녀회 가족 여러분!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비평가인 엘리어트는 "가정생활의 안전과 향상은 문명의 중요 목적이다."라고 하여 가정의 행복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혼율의 급증과 낮은 출산율, 높은 고령화와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가족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지역에서 도의새마을 정신의 실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특히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 존경운동과 제자 사랑 편지 공모, 스승과 제자의 만남행사를 마련한 것 등은 따스한 온정과 미덕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복한 가정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를 위한 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가정의 위기 극복과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능대표위원 워크숍 인사말씀

2006. 11. 22.

오늘 최근 남북관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통일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직능대표위원 워크숍이 개최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조규성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충남지역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시환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직능대표위원님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참여정부에서는 갈등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평화구조로 전환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며, 남북 공동번영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9일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에 긴장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북핵 사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동북아의

평화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북핵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북핵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선결조건 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통일문제에 대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이런 열정과 노력이야말로 남북관계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 평화통일을 일구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조기 통일에 대한 바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기 통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통일은 그간에 익숙한 남과 북의 이념적 차이로 인해 경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와 사회문화의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워크숍이 평화통일의 기반 확산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의 산업디자인 진흥

충청남도 산업디자인공모전 시상식 축사

2006. 11. 22.

오늘 제20회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준 높은 작품을 응모하여 입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 깊은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류철호 충청남도 산업디자인협회 회장님과 심사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디자인 가족 여러분!

지난 세기가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대였다면, 오늘날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품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어 모으는 것은 산뜻한 색상과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실용성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취향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좋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치열한 판촉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 도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오래 전부터 산업디자인 대전을 개최하여 수준 높은 디자인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대전을 통하여 우수한 산업디자이너가 많이 배출되었고 이로 인한 제품판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업디자인 대전의 개최가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 줌은 물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작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께서 출품해 주신 작품 하나하나가 우리 충남의 산업디자인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우리 충남의 이미지 구축과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홍보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대전이 우리나라 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의 구심점

크리스탈밸리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회사

2006. 11. 22.

오늘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을 위한 크리스탈 밸리 컨퍼런스 및 전시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기업인과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승환 충남 디스플레이협력단장님 김봉태 선문대학교 총장님, 강희복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기업인과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디스플레이 가족 여러분!

지금 세계는 국가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치열한 산업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번 경쟁에서 밀리면 회복하기까지 몇 년 또는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게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디스플레이산업을 우리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소재와 더불어 차세대 신 성장동력 산업이자 우리 도의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지난 10월에 개소한 '충남 디스플레이센터'는 우리 충남의 크리스탈 밸리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디스플레이산업의 핵심 센터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스플레이 가족 여러분!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중국 등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혁신과 산·학·연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기술 개발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에는 경쟁국과 신흥공업국에 자리를 내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촌각을 다투는 국제경쟁에서 디스플레이산업 관련주체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지역에서 이런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우리지역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의 견고한 구심체가 됨은 물론,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2006충남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축사

2006. 11. 23.

오늘 2006 충남 우수시장 상품전시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해 주신 백광복 충남시장상인 연합회장님과 김성호 충남시장상인 연합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영규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님과 송행선 전국시장상인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상인연합회 회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인터넷 홈쇼핑의 확대 소비자들의 대형할인점 이용의 급증 등에 따라 우리 재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가격과 서비스의 경쟁력 취약으로 인한 매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입주상인의 노령화에 따른 경영기법의 부족과 시설노후, 주차장 부족 등은 재래시장을 침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6 충남 우수시장 상품전시회가 개최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장상인연합회 회원 여러분!

요즘 소비자들의 경향은 개성적이고 다양하면서도 질 좋은 상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전과 같이 수동적인 마케팅만으로는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상품개발과 가격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혁신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전시회가 침체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영혁신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감성의 엔씨엔뉴스

인터넷신문 엔씨엔뉴스 창간 축사

2006. 11. 23.

대전·충청지역 인터넷 언론인 엔씨엔뉴스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웃과 이웃사이'를 모토로 공동체 사회구현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전종구 엔씨엔뉴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언론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을 통하여 현장감과 박진감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인터넷신문은 많은 독자층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독자들은 눈으로 읽는 평면식 뉴스보다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입체적인 뉴스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엔씨엔뉴스는 독자들의 이런 경향을 파악하여 동영상 중심의 '보는 신문'을 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언론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과 청소년부문을 특화하여

이들을 감싸 안으려는 따뜻한 감성이 돋보입니다.

특히 우리지역 최대의 이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충청지역민들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 미래 한국의 청사진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엔씨엔뉴스가 공동체 사회구현과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믿음직한 언론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엔씨엔뉴스의 창간을 축하하며, 엔씨엔뉴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농 · 어업 지킴이

제14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 기념사

2006. 11. 24.

오늘 제14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신 공으로 영예로운 대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홍표근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장님, 정숙향 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 · 어업인 여러분!

어느덧 농어촌발전대상이 올 해로 14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는 농어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우수한 선진 농업기술과 경영기법을 확산시키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업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상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업인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여러분!

최근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WTO 출범이후 변변한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쌀 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산 농수산물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중지를 모아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농·어업도 성장·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성공한 벤처농업과 친환경농업 사례처럼 성공요인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농·어업인들께서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농·어업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민선4기 농·어업과 농·어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상식이 우리고장 농어업인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농·어업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문화 의식 고취

제4회 장애인교통문화제 축사

2006. 11. 24.

오늘 교통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4회 장애인 교통문화제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차상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충남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통장애인 여러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자동차 교통사고는 21만4천 건이 발생하여 6천 3백명이 사망하고 34만 2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58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고 938명이 부상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증가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통안전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과 불평등이 또 다른 고통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위험도로 개량 등을 추진해 온 효과덕분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2000년도에 1,024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에는 542명으로 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안전문화 캠페인과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교통장애인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교통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교통장애인 여러분 모두에게 밝은 내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천 향우의 화합과 결속

재인충남도민회정기총회 및 송년의밤행사 축사

2006. 11. 24.

오늘 재인 충남도민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방효창 재인 충남도민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용래 충청향우회 중앙회 총재님과 최용규, 문병호, 이윤성 국회의원님,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과 인천광역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님, 우리지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향우 여러분!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참으로 역동적이면서도 소중한 결실을 거둔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올해 수출목표액 380억불의 75%에 이르는 284억불의 수출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억 7천만

불의 외국자본과 251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4위 등극, 10년 연속 물가관리 최우수 도의 수상 등 대외적으로 우리 충남에 대한 강한 인상과 이미지를 심어 준 한 해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 도가 값진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200만 도민의 땀과 노력, 멀리서 고향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향우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행사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어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병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밝아 올 2007년 새해에도 우리 충남인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를 통하여 향우 여러분들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 해에도 재인충남도민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격려

2006년도 청소년지도위원연수 격려사

2006. 11. 24.

오늘 2006년도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가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정하성 청소년지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 지도와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준원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소년 지도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사회의 양극화와 가정해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해 위기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출이나 학업중단과 같은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지난 2일,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남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광역 충남교육 안전망 구축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유관기관이 청소년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간에 인적·물적 협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긴급구호,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여러분!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고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계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청소년 보호와 선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청소년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관심과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내 자식과 같이 여기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말 못할 고민과 장래에 대하여, 마음을 터놓고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연수가 청소년 지도위원 여러분의 역량제고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없는 1등 도

충남여성자율방범연합대창립 발대식 및 범죄없는 1등도민운동결의대회 축사

2006. 11. 28.

오늘 충남여성자율방범연합대 창립 발대식 및 범죄 없는 1등 도민운동 결의대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박종만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초대 대장으로 임명되신 장선화 충남여성자율방범연합대장님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시환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회원 여러분!

흔히들 범죄는 '사회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범죄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회에서는 생계형 강·절도가 성행하고 한탕주의가 유행하면 사기범죄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범죄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다든지, 농촌지역에서 애써 수확한 농산물을 훔쳐간다든지 하는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회원 여러분!

독일의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는, "중요한 일은 다만 자기에게 지금 부여된 길을 한결 같이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여 삶의 방향설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찰활동은 물론, 청소년 선도와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펼쳐 옴으로써 안전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늘 앞장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희생과 봉사활동은 훈훈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마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 행사가 체계적인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충남여성자율방범연합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2006충남벤처인대회 축사

2006. 11. 29.

오늘 우리고장 벤처기업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2006충남벤처인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정선용 충남벤처인 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조종현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사무소장님과 성무용 천안시장님, 강희복 아산시장님과 이우영 충남산학협력단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 벤처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더욱이 경제주체들의 혁신역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산업환경의 변화는 물론, 국가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도 벤처기업의 수출은 유가상승과 환율불안

내수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분기까지 작년에 비해 47.1%나 증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 핵심부품과 소재의 원천기술 취약 등으로 신규투자가 주춤거리면서 기술경쟁력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벤처인 여러분!

일찍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벤처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나라와 경쟁이 될 수 없을 정도의 우수한 기술과 상품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신용보증기금 및 하나은행과 맺은 중소기업육성 금융지원 협약과 충남경기 상생펀드 500억원 조성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우리 벤처기업들의 기업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벤처인들간의 교류를 통해 우리고장의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2006년도 보건진료원회학술대회 및 제25회 정기총회 치사

2006. 12. 1.

오늘 2006년도 보건진료원회 학술대회 및 제25회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조성희 충남보건진료원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충남보건진료원회 회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마음 깊은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신준희 보령시장님, 강경혜 전국진료원회장님, 엄영란 충남간호사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보건진료원 가족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산업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발전은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교육과 소득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현대의학의 발달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었던 수명 연장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발병율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비 지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은 핵가족화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지금 병마와 때 아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독거노인의 경우 병이 있어도 진료기관에 갈 때 도와 줄 사람이 없고 수발과 간호를 해줄 사람이 없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보건진료원 가족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원격화상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없는 원산 · 외연 · 난지도 주민을 위해 원격화상 의료서비스를 시범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전문의료진이 근무하는 종합병원과 의사가 없는 도서지역, 오지 벽지 보건진료소간에 원격화상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진료상담과 처방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분석과 보완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이동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가 보건진료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환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의 보금자리

충청남도근로자복지회관준공 및 개관식 기념사

2006. 12. 6.

오늘 우리지역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터전이 되어 줄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준공 및 개관식이 열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홍재복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김맹룡 대전지방노동청장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님, 최용우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장님, 한금태 대전 · 충남 경영자총협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 · 사 가족 여러분!

최근의 노 · 사문화는 갈등과 대립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는 등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 · 사 양측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고유가의 지속과 환율불안, 내수침체와 고용불안 등 불리한 기업 환경은 노·사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작년부터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사정협의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의 간부에 대한 교육과 국제교류, 노·사간 화합도모를 위한 노·사 한마음대회 등에 대한 지원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사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일거리는 있는데도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 작업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젠 이런 문제에 대하여 노·사 양측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때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고령자나 여성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해 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개관한 근로자복지회관이, 우리지역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진흥의 주역

제43회 무역의날기념 충청남도수출탑 시상식 격려사

2006. 12. 6.

오늘 제43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충청남도 수출탑 시상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출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계신 기업인과 무역인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수출 진흥에 기여하신 공으로 충청남도 수출탑과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해 주신 배명렬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장님,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강승구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 부회장님 강희복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과 무역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무역성장 정책으로 짧은 기간 동안 압축성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64년 처음으로 1억 불 수출달성 이후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3,000억 불 돌파'와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환율 하락과 고유가, 원자재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4년 2천억 불을 넘은 지 2년 만에 3천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도는 10월말 현재, 올해 수출 목표액 380억 불의 83.9%에 이르는 319억 불을 기록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금년도 수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49억 불로서 전년 동기대비 58.6%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업인과 무역인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인과 무역인 여러분!

그간 우리 도에서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통해 251개의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의 성과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알찬 통상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부품업종을 대미 수출유망업종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BRICs, 중동 아프리카 등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충남인의 강한 의지와 역량을 모아 지역 수출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1회 충청남도우수중소기업제품 및 전통공예품전시판매전 개회사

2006. 12. 7.

오늘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한 제1회 충청남도 우수 중소기업제품 및 전통공예품 전시 판매전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일선에서 땀 흘리시고 계신, 우리지역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성무용 천안시장님, 김원식 중도일보사장님, 신승복 충남공예협동조합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최근 고유가와 환율 하락,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요즘의 경제상황이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기업경영의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어려움은 아마도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도와 중도일보사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제품과 전통공예품의 전시 판매전을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사는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매출액의 일부를 소아암환자 돕기 후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자 실질적인 근간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신용보증기금 및 하나은행과 맺은 중소기업육성 금융지원 협약과 충남경기 상생펀드 5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가 중소기업제품과 전통공예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를 딛고 희망을 연주

충남관악단「희망울림」제2회 정기연주회 축사

2006. 12. 7.

오늘 장애우 여러분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 줄 충남관악단「희망울림」제2회 정기 연주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고 계신 장애우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연주회를 마련해 주신 임대혁 충남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준원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애우 여러분!

미국의 사회사업가 헬렌 켈러는 "고개 숙이지 말고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라."라고 하여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선천적으로 기형인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나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해 큰 화제를 모았던 이희아 양은

장애를 딛고 성장한 피아니스트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희아 양은 지난 97년에는 국내 장애인을 위한 독주회를 열었고, 올 여름에는 중국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갖는 등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

오늘 연주하게 될 희망울림 단원들은 음악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뭉친 비전문가 그룹입니다.

정상인들보다 몇 십 배 아니 몇 백 배의 연습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연주회는 단순한 연주회의 차원을 넘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인간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주를 감상하시면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뜨거운 박수로 이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야말로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연주회가 장애우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는 희망의 연주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밝고 희망찬 새 해가 열리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충남 건설

2006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회원전진대회 축사

2006. 12. 8.

오늘 2006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 전진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윤진수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강수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장님과 시장군수님, 사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모순과 혼돈, 지역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이성의 회복이며, 이것은 곧 바르게살기운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바르게살기운동이란 친절과 봉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 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며 법과 진실을 지키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미국의 사회사업가 헬렌 켈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으며,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라고 하여 세상은 머리가 아닌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께서는 도의정신 함양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도덕과 정직, 진실과 화합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를 위해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업의 미래와 희망

임업인 한마음다짐대회 격려사

2006. 12. 11.

오늘 우리 충남의 임업발전과 임업인 여러분의 화합을 도모하는 임업인 한마음 다짐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임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염규철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심영만 중부산림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은 대기정화와 토사유출 방지, 홍수조절 등의 공익적 기능에 연간 59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소중한 산림이지만, 한 번 훼손된 산림이 복구되기까지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산림이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로 인하여 산림 면적이 축소되고 있고 임업에 종사하는 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업인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인 제임스 밸푸어는 "열정은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 지방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직면해 있지만, 이에 맞서 변화에 대응하려는 열정과 의지를 키워야 합니다.

저는 숲에 미래와 희망이 있듯이 임업 역시 국가의 소중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도의 임업발전을 위해 도지사로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림에 대하여 애착을 가져 주시고, 든든한 산림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계신 임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대회가 임업인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돈독히 하면서, 우리 임업발전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

2006년도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 대의원대회 격려사

2006. 12. 12.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06년도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대의원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유상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 정숙향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의 시장개방 요구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농업과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적게는 1조 5천억원, 많게는 8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는 농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이며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문제를 기회비용의 원칙 등과 같은 시장경제의 원리로만 풀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중에 미국 LA에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14개 품목 81종의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판촉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17만 6천 불의 판매수익과 6백 2십만 불의 수출계약 등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금년 9월 말 현재 우리 도의 농축산물 수출은 8천 8백만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인증 획득과 포장디자인 물류비용과 바이어 알선 등의 지원과 국제박람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새로운 영농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등 농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땀과 노력의 발자취

전국자원봉사활동체험 우수사례집 발간사

2006. 12. 12.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그동안 전국에서 펼쳐진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를 한데 모은 '작은 사랑, 큰 기쁨' 제8집이 발간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사랑을 실천해 오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서로 돕고 위로해 주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녀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은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남을 생각할 여유마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봉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또한 봉사로 맺어진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가 되며 그 관계를 통해 인생의 기쁨과 삶의 보람을 얻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삼십 편의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서 베풂과 나눔을 실천해 온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소중한 땀과 노력의 발자취입니다.

나 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조건 없는 나눔을 실천해 온 가슴 따뜻한 기록들입니다.

모쪼록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소개되어, 작지만 큰 기쁨으로 더욱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자원봉사가족 여러분께 더 큰 보람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인의 사기진작

기업인 워크숍 치사

2006. 12. 13.

오늘 우리지역 기업인 여러분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업인 워크숍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한평용 도기업인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강희복 아산시장님, 강태봉, 이기철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경제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오신 기업인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마음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이야말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지역 산업의 밝은 미래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과 인력, 판매와 기술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의욕 고취와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기업인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애로 사항 수렴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도의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인 여러분 모두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기업인 여러분의 사기 진작과 보람찬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창의적인 연구와 합리적인 경영, 다각적인 마케팅 등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도기업인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이전 추진의 생생한 기록

도청이전백서 발간 축사

2006. 12. 14.

병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청이전 백서가 발간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유혁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89년 우리 도에서 대전광역시가 분리된 이후 대다수의 도민들은 도청이전을 한결같이 염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외환 위기와 신 행정수도 이전 등 국내외적인 이유로 인해, 도청이전은 유보와 중단 등 수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7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6년 2월 13일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축복 속에 도청이전 예정지역을 홍성 · 예산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역간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도민의 화합을 해치고 자칫 더 큰 후유증을

불러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지역갈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축하와 격려로 서로를 위로했고, 앞으로 추진될 도청이전을 위해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더욱 승화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그간 힘들고 험난했던 예정지역 선정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이 백서야말로, 앞으로 우리 도는 물론이고 다른 기관에서 대단위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 백서가 많은 이들에게 널리 소개되어 우리 충남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백서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유관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지역의 언론발전

제6회 목요언론인상시상식 및 제1회 언론인자녀 장학금수여식 축사

2006. 12. 14.

오늘 제6회 목요언론인상 시상식 및 제1회 언론인 자녀 장학금 수여식이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이정두 목요언론인클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조선시대의 유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인 조광조 선생은, "언론의 길이 통하고 막힘이 나라 다스리는 것과 관계가 깊다"라고 하여 언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더욱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언론의 역할은 날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감동과 환희를 선사해 준 2006벤처농업박람회와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비롯하여 지역 현안관련 뉴스를 심층적으로 취재·분석해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지역언론발전에 공헌해 오신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선양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언론인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언론인 여러분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여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우리고장의 언론문화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 주역

제10기 정예공무원양성과정 수료식 기념사

2006. 12. 15.

오늘 영예로운 제10기 정예공무원양성 과정 수료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10개 월 간의 정예공무원양성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하는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수한 성적을 거둬 상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과 연수생의 뒷바라지에 정성을 다해주신 가족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침을 주신 여러 교수님과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교육원 관계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정예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2배 크기에 불과하고 석유 외에는 변변한 부존자원도 없는 나라인 두바이의 혁신적인 변화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고갈되는 2015년에 대비해 2011년까지 석유 의존국가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세계 허브 두바이 건설'이라는 야심만만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로 평가되는 인공섬인 팜 아일랜드와 800m의 세계 최고층 빌딩인 버즈 두바이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1m의 호텔이자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인 '버즈 알랍'을 지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욱 경이로운 점은 고객을 위해 회교의 금기까지 파괴하는 서비스 정신에 있습니다.

술과 돼지고기의 판매가 허용되고 영어 공용화와 표기 병행도 단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예공무원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무색할 만큼 지금 세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를 둘러싼 행정환경도 변화와 속도를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사회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생산적인 조직, 도민복지를 증진하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정예공무원양성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예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료하는 여러분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끌어 나갈 주역입니다.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을 솔선수범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하며,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자치도정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교육 수료가 여러분에게 행정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다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교육 수료를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결산

2006충청남도자원봉사자대회 대회사

2006. 12. 20.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충청남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고 건강한 사회를 가꾸기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원봉사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 한해도 우리 도정은 참으로 소중한 결실을 일구어 냈습니다.

지사 취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억 7천만 불의 외자 유치와 전국에서 가장 높은 8.4%의 경제성장률, 10년 연속 단보당 쌀 생산량 전국 1위와

제87회 전국체전에서의 종합 4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200만 도민의 참여와 성원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같이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회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주신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펼쳐 주신 사랑과 봉사의 실천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 가족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봉사를 위해 보낸 삶이 오직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하여 봉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다양해진 자원봉사 수요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추진을 위해, 내년 초에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원봉사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 행사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가운데 2007년 새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더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2006밝은사회를위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축사

2006. 12. 21.

오늘 2006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에 헌신해 오고 계신 범죄예방위원 여러분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위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청소년 범죄예방에 기여하신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이훈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님과 이중명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님 김신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 오제직 도교육감님, 조용연 충남지방경찰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학교폭력예방 가족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고 점차 그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이혼, 한 자녀만 둔 가정이 늘어남에 따른 가정 기능의 약화와 폭력성 게임이나 영화, 만화 등을 통해 폭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문제는 일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이며, 국가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물론, 학교와 교사, 학부모 등 지역사회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남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광역 충남교육 안전망 구축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긴급구호,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 선도와 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이 행사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해 중부권의 거점 항만

대산항개발사업(1단계 1차사업)준공식 축사

2006. 12. 22.

오늘 활력이 넘치는 대산항에서 우리지역 첫 국가부두인 대산항 1단계 1차사업 준공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그간 항만건설을 위해 많은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관희 대산지방 해양수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님과 김낙성, 홍문표 국회의원님, 조규선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역사를 뒤돌아보면 해양은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갈라놓은 영광과 치욕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였고 해양력은 바로 국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일신라시대에는 장보고와 같은 해양제독이 등장해 동북아의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반면에 바다의 중요성을 망각했던 조선시대에는 끝내 바다를 지키지 못해 빈번히 외세의 침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흔히들 21세기를 신 해양의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는 옛 소련 극동함대의 근거지였던 블라디보스톡을 극동 무역의 전략적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륙중심에서 해양중심 사고로 전환해 해양과학기술과 관련한 국가중점 연구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해양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곳 대산항은 대산·대죽산업단지가 인접해 있고 물류비 절감과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대 중국 교역의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대산항이야말로 하역과 선적기능 위주에서, 배후산업과 연계된 복합기능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해 중부권의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준공식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 되고, 우리지역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임과 활기찬 제2의 인생

2006하반기 정년퇴임식 치사

2006. 12. 27.

오늘 2006 하반기 정년퇴임식을 갖게 되어 한편으로는 기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못내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한 평생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다가, 오늘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다섯 분께 동료 공직자를 대표해 진심어린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내조를 해 오신 사모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오늘 퇴임하시는 다섯 분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공직을 시작하여, 그 오랜 세월을 투철한 사명감으로 감내하시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고도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행복은 모두 이 분들의 남다른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분들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 이 분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맡은 업무에 대한 프로정신, 그리고 끈끈한 동료애는 동료 공직자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댓불이 되어 영원히 밝혀 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퇴직자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알 수 없다. 그래서 인생은 멋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직이라는 제1의 인생을 거쳐, 아직 가보지 않은 제2의 인생을 맞으시게 됩니다.

다소 낯설고 두렵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의 인품과 능력을 잘 알고 있기에 제2의 인생 또한 활기차게 열어 나가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을 성원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부디 자신 있게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료 공직자와의 소중한 인연이 변함없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새 출발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거듭 영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다섯 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약과 보람을 일군 한 해

2006년 송년사

2006. 12. 31.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주신 점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민선 4기의 첫 해로서, 우리 모두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목표로 하나가 되어 힘찬 도약을 시작한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비약적인 지역발전과 활기찬 지역경제, 그리고 훈훈한 복지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다함께 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감과 무한한 가능성의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이 밑거름이 되어 내년에도 충남 발전을 위한 희망과 번영의 횃불로 더욱 밝게 타오르리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다가오는 2007년을 여러분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힘찬 전진

2007년도 신년사

2007. 1. 1.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밝아 온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서로 같은 마음으로 덕을 같이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을 신년휘호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도전과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상생과 화합으로 하나가 된다면, 이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값진 보람과 영광을 거두는 2007년을 만들어 나갑시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평화와 기쁨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보람과 영광을 위한 힘찬 다짐

2007년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2007. 1. 2.

희망찬 정해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뜻 깊은 오늘, 여러 기관·단체장님과 만남의 시간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돼지의 해로서, 예로부터 돼지는 다산과 다복을 상징하고, 건강과 부를 가져다주는 영물로 우리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왠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상서로운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축원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늘 한 해의 소망과 덕담을 나누곤 합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저는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호국영령들께 우리 500만 충청인의 여망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민선 4기 첫해인 지난해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틀을 마련한 해였다면, 올해에는 뜨거운 열정과 굳은 의지로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 역동적인 지역경제, 그리고 훈훈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덕을 베풀며 아껴주는 마음이야말로,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고 한마음으로 뭉쳐 올해를 그 어느 해보다도 보람과 영광, 감동과 환희가 넘치는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제 모든 열정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일마다 알찬 보람과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체

2007대전 · 충남교육계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2007. 1. 3.

2007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에서 우리고장 교육계 어르신 여러분을 뵙고, 신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우리 교육계에도 더 큰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교육계를 이끌고 계신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신년모임을 갖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고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과 도약을 이룩해왔으며, 이는 모두 교육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힘을 보태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고장이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야할 지금,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동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 교육계가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구심체가 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원천이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다함께 교육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눈앞의 현실로 바꿀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저 또한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초석임을 늘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아낌없는 정성과 열정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소망과 다짐을 나누는 이 자리가, 활기찬 지역발전을 일구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변평섭 회장님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값진 보람과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적인 조직문화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창립1주년기념행사 축사

2007. 1. 5.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설계하는 때에, 우리 도 공무원노동조합 창립 1주년기념행사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과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 시·도 노동조합위원장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조직의 화합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여러분!

1년 전 우리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공직상과 창조적인 조직문화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고자하는 힘찬 출발이었기에 더욱 값지고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는 풍토의 조성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도정을 이루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왔습니다.

이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도민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이처럼 빛나는 결실을 거두게 해준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새로운 의욕과 열정으로 열어가야 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년이 우리 충남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충남,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도정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저 또한 믿음직한 여러분과 마음을 함께 하며, 제 모든 것을 바쳐 이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강한 충남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더 큰 보람과 영광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2007충청남도여성계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2007. 1. 5.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갖는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고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성지도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돼지의 해로서, 예로부터 돼지는 복과 재물을 불러오는 상서로운 동물이자,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이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일년 내내 좋은 일만 거듭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출산 문제 등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시기에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9%이상씩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10년째 1% 증가에 머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를 확산시켜 폭넓은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올 한 해도 여러분께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정숙 도 여성단체협의회장님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값진 보람과 결실을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창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2007. 1. 5.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새로운 의지와 용기로 열어갈 정해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벅찬 희망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게 됩니다만, 올해는 전문경제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며, 전국에서 가장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창출해왔습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땀과 열정을 기울여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기업인 여러분!

일찍이 우리에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오일쇼크와 IMF의 위기를 이겨낸 불굴의 의지와 신념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희망을 현실로 바꾼 탁월한 저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룩해주실 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임을 굳게 믿습니다.

지난해 닻을 올린 '희망 충남호'가 올해에는 거센 파고를 헤치며, 힘차게 항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늘 몸과 마음을 함께 하며, 충남호의 선장으로서 제 모든 정성과 열정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변평섭 충청투데이 회장님과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과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올해에도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품질 전기의 안전한 공급

한국전기공사협회충청남도회 제40회 정기총회 치사

2007. 1. 16.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한국전기공사협회충청남도회의 제40회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기공사업계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오고 계신 박종문 도회장님과 조성희 한국전력공사 충남사업본부장님, 정만위 대전전력관리처장님, 김재성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전기공사업 가족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계의 발전에 기여하신 공적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기공사업 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우리 충남경제는 고유가와 내수부진 등 나라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은 8.4%의 경제성장률과 134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13억

7천만 불의 외자유치와 495개의 기업유치, 그리고 400억 불에 이르는 수출을 일구어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올 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3%에 머무르고 내수경기 회복이 더디는 등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가족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전기에너지는 물과 공기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전기를 가정과 산업현장에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도 큰 일익을 담당해 오신 고맙고도 자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앞으로도 전기공사업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져 주시고 고품질의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정기총회가 전기공사업의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의 사업계획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충청남도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전 · 충남지회장 이 · 취임식 기념행사 축사

2007. 1. 15.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전 · 충남지회장 이 · 취임식이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여성경제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고장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해 오시다가 오늘 퇴임하시는 이종애 전임 회장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3년간 여성경제인협회 대전 · 충남지회를 이끌어 나가실 정귀영 회장님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영규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님, 김신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 그리고 권선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성경제인 여러분!

미국의 미래학자인 존 나이비스트는 "여성의 섬세함이 21세기를 이끄는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과 각종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에서 당당한 女丈夫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1차 가공업에서부터 제조업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 진출하고 계신 여러분의 역량은, 우리고장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같은 개척정신이야말로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기업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귀영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전과 성취의 한 해

중도일보사 '월요아침' 기고문

2007. 1. 15.

많은 이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200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돼지의 해로서, 예로부터 돼지는 건강과 복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해를 맞아 새로운 꿈을 갖고, 저마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를 비롯한 여러 경제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내수, 고용, 투자, 그리고 수출 등 경제의 전반적인 면에서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정국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과 북핵문제, 그리고 FTA와 양극화 등으로 인해 올해 우리가 넘어야 할 도전과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새해 첫날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충남의 힘찬 도약과 함께, 나와 도민이 하나가 돼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힘을 주시길 호국영령들께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소망을 막연한 꿈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내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일해 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동안 도민과 함께 민선 4기 자치도정을 추진해 오면서 우리 충남의 미래에 대해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를 믿고 따라주는 공직자와 도민들을 생각할 때,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는 지난해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이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기반을 다졌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자본과 기업체를 유치하고,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한 두 사람이 아닌 200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룬 성과이기에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충남인은 국난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마음이 돼 이를 극복해 온 불굴의 의지가 있으며, 조용한 가운데서도 역사의 뱃머리를 바로 잡아 온 저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열린 2007년은 우리 충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한 해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올해를 '도전과 성취의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진취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세 가지의 장애를 극복하고 '빛의 천사'로 불리며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심어 준 헬렌 켈러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라고 희망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힘을 잃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 이끌고 등을 두드려 주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200만 도민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며, 지금 우리에게 이를 이룩해 나갈 자신감과 용기가 가득 차 있음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한 영광과 값진 보람이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면서,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훈훈한 사회봉사활동

2007년도 충남지구JC특우회장 이·취임식 축사

2007. 1. 18.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2007년도 충남지구JC특우회장 이·취임식이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앞으로 한 해 동안 충남지구JC 특우회를 이끌어 나가실 진경성 회장님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충남지구JC특우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정석용 전임 회장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성무용 천안시장님과 조규선 서산시장님, 이화수 중앙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우리 도정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소중한 결실을 일군 한 해였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은 8.4%의 경제성장과 13억 7천만 불의 외자유치, 10년

연속 쌀생산성 전국 1위와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종합 4위라는 빛나는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정이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200만 도민과 더불어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기듭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간디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은 나의 희망이요, 나의 목표이다."라고 하면서 사회참여와 봉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해오고 계신 고맙고도 자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물론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묵묵히 사회봉사를 해오셨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세상은 훈훈하고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도움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경성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충남지구JC특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

제11기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및임원 취임식 축사

2007. 1. 25.

오늘 제11기 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장 및 임원 취임식이 열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앞으로 2년간 충남도연합회를 이끌어 가실 장석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의규 중앙연합회장님, 홍표근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장님, 강희복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가족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DDA와 FTA 등 시장개방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우리나라 발전의 토대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저는 농업은 한 나라의 바탕이요, 농업인은 민족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해 지사취임 후 제일 먼저 농어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농어업인의 애로와 바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농산물의 수출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해 40억 8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고 미국 LA에서 농수산물 판촉전을 열어 17만 6천불의 판매액을 올린 것이며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옥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하루 평균 1천2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소비자 취향에 부합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거둔 1억 5천 6백만 불의 수출을 토대로 금년에는 3억 불의 수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농업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는 등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다시 한번 장석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출판기념회

오병주 부장검사 출판기념회 축사

2007. 1. 25.

정해년 새해를 맞아 훈훈한 이웃사랑을 펼치는 출판기념회가 열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짬을 내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가'라는 책을 펴내신 오병주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님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님, 오제직 도교육감님 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이준원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한 사람이 삶을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한 책을 저술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현직 검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수상집을 펴내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출판기념회가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얼굴에서 밝은 미소와 포근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즘처럼 살기 힘든 때에 우리사회의 지도층인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 솔선수범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오병주 부장검사님의 숭고한 뜻은,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참다운 이웃사랑이 물이 흐르듯 위에서 아래로 널리 퍼져 지역사회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 깊은 출판기념회를 맞아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바람을 나누면서, 오늘 행사가 우리사회를 사랑과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병주 부장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역량을 모아 힘찬 도약

충청향우회중앙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행사 축사

2007. 1. 26.

오늘 올 한 해 충청향우회중앙회의 힘찬 출발을 다지는 정기총회와 신년교례행사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향우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용래 총재님,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류근창 전임 총재님을 비롯한 향우회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충청인 상'을 받은 박찬호 선수와 효자대상을 받은 이군익 향우님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충청인 여러분!

지난해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충청권은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대덕R&D특구 조성 첨단지식산업 육성 등 대형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과 활기찬 지역경제를 일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나는 성과는 모두 향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향우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충청권은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동고동락을 함께 해온 역사적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의 운명과 미래가 새롭게 변화하는 이 때에 500만 충청인은 물론, 경향각지에 흩어진 전 충청인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힘찬 도약을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충청권 3개 시·도지사들은 확고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며, 광역경제벨트 추진 등을 통한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부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고향에 더 많은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1천만 충청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 교육진흥

충청남도학원연합회 신년하례회 축사

2007. 1. 27.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홍성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강동복 도학원연합회 상임고문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학원연합회 회원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시인 중의 한 사람인 에우리피데스는 "젊을 때에 배움을 소홀히 하는 자는 과거를 상실하고 미래도 없다"라고 하여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비록 자원은 빈약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오늘날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더욱이 시대가 발전하고 변해감에 따라 배움의 영역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래를 전망하고 설계할 줄 아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더 더욱 배움이 필요하고, 이는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고 계신 고마우신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교육진흥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신년 교례회가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힘차게 다짐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품질의 지역통계 생산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서산출장소 승격 현판식 축사

2007. 1. 31.

오늘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서산출장소 승격 현판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신청사 현판식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영빈 서산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대유 통계청장님과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통계가족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통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계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쉽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의 정책수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르고 신뢰성 높은 통계기법 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통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만, 지역통계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방에서는, 지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생성하지도 제공해 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방차원의 통계전담조직의 편제와 통계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서산출장소의 승격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통계청과 지자체는 지역발전의 협력자라는 인식을 지니고,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품질 높은 지역통계를 생산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통계수요에 부응하는 고객만족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도는, 지난해 통계전문가를 채용하여 한 차원 높은 통계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지역내총생산 생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통계를 생산·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쪼록 오늘 현판식이 우리지역 통계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을 위한 힘찬 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서산출장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더 큰 보람과 성취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

퇴임식 격려사

2007. 1. 31.

지금 우리는 그동안 정들었던 동료를 보내야 하는 아쉬운 석별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0여 년 동안 오로지 지역과 주민을 위한 한 길을 걸어 오시다가, 오늘 영예로운 퇴임을 맞으신 김문섭 국장님과 신공현 과장님께 동료 공직자와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직자의 아내로서 본분을 다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내조를 해 오신 두 분의 사모님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문섭 국장님은 건설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동안 수많은 지역개발사업을 주관하시면서 지역발전의 기반을 충실히 다져 놓으신 분입니다.

또한 신공현 과장님은 고향인 천안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젊음을 바치신 분입니다.

두 분 모두 어려웠던 시절에 공직에 발을 들여 놓으셨고, 거의 한평생을 다 바쳐 공직생활을 해오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 그만 두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럴 때마다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채찍으로 삼아, 우직하게 도정발전을 위해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간 두 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정들었던 도청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텐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이 고독과 무료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퇴직하고 나서 당당하고 활기찬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아왔는가 하면, 그와 반대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보아왔습니다.

퇴직이 곧 끝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는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청을 떠나시더라도 변함없이 우리 도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거듭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가족과 동료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내 건강하시고 두 분의 앞날에 더 큰 성취와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민의 법률고충 해소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 개원식 축사

2007. 2. 1.

오늘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개원식이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가정지원이 문을 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권 대전지방법원장님과 허용석 가정지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님, 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님, 이훈규 대전지방검찰청장님, 그리고 조용연 충남지방경찰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날 우리사회는 맞벌이부부와 핵가족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함양시키는 가정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차이와 불신, 그리고 가정파탄 등으로 인한 이혼은 당사자는 물론, 성장기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청소년 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사문제를 사전 조정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해 새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설치된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그동안 우리지역에는 이혼 등의 가사와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지원이 없어, 지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뜻있는 지역민들과 사회단체, 그리고 언론 등에서 가정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또 신설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의 열정과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 가정지원의 개소라는 보람 있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정지원은 우리지역의 가정내 분쟁의 재판은 물론, 가사와 소년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정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법률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가정지원이 가사와 청소년에 관련된 지역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친근한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개원을 축하하며, 가정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수 인재의 양성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기공식 축사

2007. 2. 5.

오늘 탕정산업단지가 위치한 이 곳에서 충남 외국어고등학교 기공식이 열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기공식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제직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진구 국회의원님 김문규 도의회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강희복 아산시장님, 이상완 삼성전자 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사회는 자본과 노동, 문화와 기술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스럽게 이동하는 세계화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가고 있으며, 각 나라와 기업들은 자신의 상품을 팔기위해 세계를 상대로 치열하게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충남 외국어고등학교의 기공식을 갖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도내의 서·북권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 탕정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어 앞으로 무한한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 학교의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뜻 깊은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큰 도움을 주신 삼성전자 이상완 사장님을 비롯한 삼성전자관계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충남 외국어고등학교는 도내의 우수학생들에게 진학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타 지역의 우수인재를 끌어 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해외자본 유치 등을 통해 탕정산업단지를 우리나라 최고의 크리스탈밸리로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기공식이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우수 인재양성과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촉진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중추적 수행

충남개발공사 개청식 치사

2007. 2. 6.

오늘 우리고장 발전의 산실이 될 충남개발공사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홍인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문표 국회의원님, 김문규 도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이종건 홍성군수님을 비롯한 시장 군수님 여러분, 이규용 홍성군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시·군의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시·도 개발공사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오늘 충남개발공사가 개청함으로써,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고장 곳곳에서는 희망찬 건설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충남이 이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요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아산신도시 건설, 공공기관과 도청이전 등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고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찬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문을 연 충남개발공사는, 바로 이러한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홍인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충남도약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개발공사를 도내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진취적인 공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께서는, 충남개발공사가 맡은 역할과 임무를 순조롭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우리고장 발전의 견인차가 되길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

2006학년도 청양대학 학위수여식 치사

2007. 2. 8.

오늘 우리 도립 청양대학의 여덟 번째 학위수여식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랑스러운 학위를 받은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 졸업생들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훌륭한 인재로 길러주신 정휘영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어린 뒷바라지를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시환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2년간 저마다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 학문과 기술을 익히며 소중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오늘 졸업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로 첫 걸음을 내딛는 가슴 벅찬

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청양대학에서 배우고 닦은 풍부한 학식과 다양한 기술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배운 교양과 삶의 지혜는, 여러분의 앞날에 등대가 되어 밝게 비춰 줄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젊고 패기에 차 있으며, 여러분의 능력과 잠재력 또한 무한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여러분의 도전과 모험을 받아들이기 위해 크게 열려 있습니다.

청양대학인의 높은 자긍심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여 저마다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이웃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졸업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찌우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소망하면서, 거듭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여생의 출발점

명예퇴임식 인사말씀

2007. 2. 9.

오늘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조헌행 전 아산부시장님과 신창수 전 청양부군수님께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따뜻한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군께서 공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변함없이 내조를 해 오신 두 분의 사모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조헌행 부시장님께서는 행정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 도의 경제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신창수 부군수님 역시 같은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치행정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어려웠던 시절에 공직을 시작하여,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오직 공직자라는 자긍심 하나로 묵묵히 맡은 분야의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정들었던 도청을 떠나 평범한 일상인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3자가 느끼는 것과 퇴직하는 분이 느끼는 감회는 사뭇 다르리라 생각됩니다만 저는 퇴임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의약기술 등의 발달에 힘입어, 예전에 비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 온 시간만큼이나 앞으로 살아 갈 시간 또한 많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을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그려 나가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분야나 전공을 살려 삶을 꾸려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풍부한 경륜과 지식을 겸비한 분이시므로, 누구보다도 활력 있고 당당한 인생을 펼쳐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도청을 떠나시더라도 변함없이 후배 공직자들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의 퇴임식이 두 분의 희망찬 여생을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두 분의 퇴임을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가족들과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덕과 신뢰회복운동의 확산

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협의회 정기총회 축사

2007. 2. 9.

오늘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의 힘찬 출발을 다지는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을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윤진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사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질을 우선시하는 반면, 인성과 도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보다가도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싶을 정도로 세상은 날로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치관과 윤리가 상실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영국의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킨은 "이 세상에 종교는 많이 있지만

도덕은 오직 하나뿐이다"라고 하여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은 때와 장소를 떠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인 만큼, 우리는 늘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전 도민의 예절생활 실천운동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활동 의식개혁운동과 질서계도 등을 통하여 따뜻한 정과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고장을 만드는데 솔선수범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여러분의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에 대하여 마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도덕과 신뢰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우리사회에 더욱 확산시켜, 사회통합을 이끄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를 위한 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총회가 우리고장을 예절과 도의가 살아 숨쉬는, 훈훈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 종합기구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개소식 격려사

2007. 2. 9.

오늘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를 2백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센터의 개소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과 이상진 센터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신항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님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하천은 공업화와 도시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점점 더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흘려보내는 생활하수는 물론이고 축산 등 산업폐수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수질총량관리센터가 문을 열게 됨으로써 수질총량 관리를

통한 하천의 수질관리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질총량관리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적인 물 관리 기법이기에 기존의 행정조직만으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도가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기구로 이 센터를 개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금강수계지역에 대한 수질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는 등 시·군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삽교호 수계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도내 전 하천을 목표 수질인 2급수 수준으로 끌어 올려 물고기와 철새가 무리를 지어 노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하천 수질개선 노력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개소식이 수질총량제도의 정착을 통해, 우리 도내의 하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장단 이·취임식 축사

2007. 2. 14.

오늘 여성농업인 도연합회장단 이·취임식이 열린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고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로운 의욕과 열정으로 앞으로 2년간 도 연합회를 이끌어 가실 이길성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정숙향 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정규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장님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홍표근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여성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은 개방과 경쟁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침체와

쇠퇴에 빠지느냐, 아니면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이루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수입농산물의 급증 등 일부 요인들이 우리에게 희망과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틈새시장과 블루오션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농업분야에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요즈음은 세태가 바뀌어 여성이라고 하여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는 7.0%인데, 우리 도는 22.5%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성의 영농활동 참여 비중이 2002년에는 남자가 47.9%인데 반하여, 여성은 52.1%로 여성이 남성보다 4.2%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노동시간도 하루평균 13.4시간으로 다른 부문의 여성노동자 7.5시간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웰빙 열풍을 타고 농어촌의 기능이 생산 중심에서 정주와 휴양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1社1村운동과 온라인판매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의 풍부한 감성과 섬세한 손길, 그리고 부드러운 친화력 등을 활용하여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창조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농어촌의 미래는 분명히 밝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여러분의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노력이 알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면서 오늘 행사가 우리 농업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성농업인 충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발전의 든든한 밑거름

최고농업인 소식지 발간사

2007. 2. 15.

오늘 농업경영인 여러분의 제13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고농업인 소식지가 발간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현수 충남대학교 총장님과 구자홍 농업생명과학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DDA, FTA 등 농업시장개방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고 안으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지사 취임과 더불어, 제일 먼저 농어업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애로와 바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수산물의 판로 활성화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벤처농업박람회와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고 미국 LA에서 농수산물 판촉전을 개최해 온 것 등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룩한 1억5천6백만 불의 농산물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3억 불의 수출을 달성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맞춤형 농정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화된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물류표준화, 지역농업 클러스터 지원 등 21세기형 고부가가치 농어·업 실현과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농업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가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제13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를 축하드리며, 책자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농업경영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출 농·어업 육성

충남지역농수산물 수출증진을위한 전략개발 심포지엄 축사

2007. 2. 22.

오늘 우리고장 농수산물의 수출증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을 47만 농어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양현수 충남대학교 총장님과 구자형 농업생명과학대학장님,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실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수출업체와 수출농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수출농업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농·어업은 밖으로는 시장개방 압력에, 안으로는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개방과 경쟁의 시대를 맞으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만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우리가 미처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의 농·어촌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심지어 잘 살아보자는 희망과 의욕마저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세계를 향해 시장을 개방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한다면 이를 회피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맞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충남 농수산물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어업의 생존과 활력을 위해서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매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벤처농업박람회와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는 수출농·어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삼아 156백만불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고, 올해는 좀 더 차별화된 전략과 노력을 통해 3억불의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 증진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창조와 도전정신으로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심포지엄이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효율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충남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방위태세 점검

2007년도통합방위 지방회의 인사말씀

2007. 2. 27.

오늘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국가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2007년도 통합방위 지방회의가 개최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방위와 지역안보에 기여하신 공적으로 상을 받으신 기관·단체와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이홍기 제32보병사단장님, 조용연 충남지방경찰청장님, 차문희 국가정보원대전지부장님을 비롯한 도와 시·군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통합방위가족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에 맺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이행되지 못한 채,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국가안보에 높은 관심과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날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고 6·25동란을 경험한

우리는 항시 나라의 소중함과 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변해가는 와중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안보는 한 나라의 생존과 번영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정책입니다.

저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안보의식과 지역방위역량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회의를 갖는 것도, 바로 우리지역의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해 보고 안보의식을 한 단계 고취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굳건히 통합방위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200만 도민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역안보와 방위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우리지역의 안정과 안보태세를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운융성과 민족번영의 초석

제88주년 3·1절기념행사 기념사

2007. 3. 1.

오늘은 온 겨레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친 3·1운동이 일어난 지 8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제의 부당한 침탈에 맞서 국가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항거한 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근대 100년사 중에 3·1운동처럼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 한민족의 꿋꿋한 정기를 표출한 사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88년 전 오늘, 이천만 동포는 연령, 신분, 종교를 초월해 하나가 되어 삼천리 방방곡곡에 자주독립과 민족자존의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강대국의 무단침략에 항거한 평화의 함성이었으며,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최초로 천명한 세계사적인 봉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정신은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자리 잡으며,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주와 자강, 화합과 평화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계승되지 않았다면 강대국들 사이에 낀 분단국가가 어떻게 불과 반세기 만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3·1운동의 거룩한 정신을 기리고, 이를 더욱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이 없이는 나 또한 존재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상생을 통해 국운융성과 민족번영의 새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일구어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과 용기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공존과 공영을 위한 창조와 도전의 돌파구를 우리 충남이 먼저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선열들의 희생이 알알이 결실을 맺고,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충남의 모습을 만들어 나갑시다.

저는 이 역사적인 대장정에 도민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이 함께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각오를 다지면서, 모쪼록 오늘 기념식이 충남의 정기와 기백을 되살려 힘찬 지역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얼

삼일절기념 조찬기도회 인사말씀

2007. 3. 1.

존경하는 오지수 천안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님과 김창익 천안홀리클럽 회장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양승조 · 박상돈 국회의원님과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널리 떨친 삼일절의 성스러운 아침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얼을 기리는 조찬기도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110여년 사를 뒤돌아볼 때, 기독교는 늘 민중의 편에 서서 우리민족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개화기에는 교육과 의료 등 선진문물의 도입을 통해 초기 근대화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3 · 1운동 때에는 일제의 부당한 침략에 맞서 자주독립정신을 고취시켜 조국 광복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고난과 역경을 헤치면서 더 큰 진리와 정의를 향해 나가는 자세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가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기도회가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한 더 큰 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천안시기독교연합회와 천안홀리클럽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활의 힘찬 출발

2007학년도 청양대학 입학식 축사

2007. 3. 2.

새로운 희망으로 열어갈 3월을 맞아 2007년도 청양대학 입학식이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더불어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기쁨이 있기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신 학부모님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처럼 성대한 입학식을 마련해 주신 정휘영 학장님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김시환 청양군수님, 차성남 도의회교육사회위원장님, 최의환 이정우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대학생활에 대한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학생이라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뭐니뭐니해도 학업을 일구며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문분야는 물론,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양과 인성을 쌓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동과 습관이 하루아침에 길들여질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대견스럽고 나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양대학은 개교 이래 현재까지 234명의 공무원을 배출하였고 평균 93.7%의 취업률을 보이며, 명실공히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모두 정휘영 학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남다른 열정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모험정신, 그리고 따뜻한 감성도 겸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의 대학생활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력과 소양을 갈고 닦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입학식이 여러분이 가진 꿈과 재능을 맘껏 펼치기 위하여 힘찬 첫 발을 내딛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의료서비스

2007년도 제11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기총회 치사

2007. 3. 2.

오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힘찬 출발을 다지는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안근혁 운영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준원 공주시장님, 조성희 충남보건진료원회장님, 그리고 특강을 해주실 소희영 충남대학교 교수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보건진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어촌인구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농어가인구가 전국에서 3위이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13.7%로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노인들께서 대부분 농촌에 계시고, 농어촌 주민들은 주로 육체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더욱 강화돼야

함에도, 의료시설들은 갈수록 도시로 몰리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풍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더욱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농어촌주민과 도시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원의 현대화,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의료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낙도주민들을 위해 원격화상진료서비스를 구축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하드웨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로서 본분을 다해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정성과 노고에 대해 한없는 찬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변함없이 지속되어, 더욱 건강하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주민과 함께하는 의료서비스를 이루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업발전의 구심체

천안시축산발전협의회 창립총회 축사

2007. 3. 5.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천안지역 축산업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천안시축산발전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김인식 천안시축산발전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정종학 도의원님 성무용 천안시장님, 정일영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충재 천안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양축농가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축산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축산업은 급변하는 세계시장경제의 흐름 속에서 변화냐 아니면 퇴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그동안 싱가포르와 서유럽 4개국과의 협약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개방을 포함한 한 · 미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근래에는 AI, 구제역 등 질병이 발병하여 축산농가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운 가축을 살 처분해야만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저 또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결코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축산발전의 또 다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 도의 축산브랜드인 토바우가 2005년에 농협서울공판장에 첫 출하된 이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는 개방과 경쟁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양축농가와 농협 등 관련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쟁력 있는 우수 축산브랜드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축산업의 부흥과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창립총회가 우리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천안시축산발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충남발전

2007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4기위원 위촉식 축사

2007. 3. 5.

오늘 우리고장 환경운동의 구심체인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제4기의 힘찬 출발을 다지는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로운 열정과 의욕으로 협의회를 이끌어 가실 이진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제4기 위원님 여러분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푸른 충남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진전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3기 위원님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푸른충남가족 여러분!

지난 20세기가 '개발의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고장은 한창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새삼스럽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항산단에 대한 환경부의 대안사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환경부의 대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결코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주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저버린 채, 근 20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성의 없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매립사업이 군산은 환경에 지장이 없고, 이제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서천은 환경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가 정녕 사업추진의 의지가 있다면 일단 착공을 한 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친환경적인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음에도, 이제 와서 불투명한 추진일정과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소모적인 논쟁만을 거듭하다가 지금 다시 방향을 선회한다면, 과연 참여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공단조성이 완료되어 생산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황량한 바닷바람만 불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는 결코 쉽지 않은 명제입니다만, 우리는 양자 간에 바람직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이 자리가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을 기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약의 올바른 유통

2007년도 농약판매업관리인교육 축사

2007. 3. 6.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오신 농약판매업 관리인 여러분을 모시고, 농약의 올바른 유통과 건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윤선기 농약판매협회 대전·충남지부장님 그리고 성심으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농약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농약을 잘만 사용하면 병충해 방제를 통해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이를 잘못 사용하면 소중한 생명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래 들어 건강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농약을 사용한 전통농산물은 갈수록 기피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여기에는 제도적 보완 등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농약에 의존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야말로 농업현장에서 직접 농민들과 접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손길 하나하나에 의해 경쟁력 있고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된다는 점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 교육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약판매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제23회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 축사

2007. 3. 6.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조합 사무실을 새롭게 이전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 한 해의 힘찬 출발을 다지는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유병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하신 공적으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영조 충남운수연수원장님, 김남배 전국연합회장님, 그리고 시·군지부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지난 1967년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시작된 이래,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민들의 든든한 도우미가 돼 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는 도민들께 교통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팔을 걷고 나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충남인의 넉넉한 인심과 친절을 베풀어, 우리고장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여러분의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택시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승객을 내 가족과 같이 여기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방도로망 확충과 도로구조 개선사업, 그리고 택시총량제 관리 등을 통해 여러분께서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충남의 이미지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고장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정기총회가 여러분의 화합과 친목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가운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보다나은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조합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예방 결의

한국자율방범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범죄예방결의대회 축사

2007. 3. 8.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자율방범연합회의 힘찬 출발을 위한 다짐과 함께 범죄예방결의대회가 열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도를 방문해 주신 중앙의 임원진과 시·도별 연합대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하종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종만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님 이준원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율방범 가족 여러분!

오늘날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범죄의 동기가 매우 사소한 데에 있으며 그 수법과 양상 또한 갈수록 흉악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즈음은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반인륜 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돈 때문에 중요한 산업정보를 상대국에 유출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가 물질적 측면을 중요시한 나머지 인간성이나 예절 등 정신적 측면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회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범죄예방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오시고 계신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통해 밝고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자율방범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ASM 지니텍코리아 준공식 축사

2007. 3. 15.

오늘 우리 도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ASM 지니텍코리아의 준공식이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준공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고상우 ASM 지니텍코리아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아서델 프라도 회장님, 이보 라이즈 마커스 CTO님, 도미노 후쿠미 Asia President님, 한 레스턴도프 COO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남은 전통적인 농업도에서 탈피하여 TFT-LCD PDP TV 등 7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며 첨단산업도로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천안밸리는 우수한 인력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유수한 첨단산업체의 입주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공식을 갖는 ASM 지니텍코리아는 반도체 생산라인에 필수적인 장비를 생산하는 최첨단의 회사로서, 제가 작년에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아서델 프라도 회장님과의 투자 상담을 통하여 2천만 불의 양해각서를 성사시킨 기업입니다.

저는 ASM 지니텍코리아와의 투자를 계기로 반도체장비 생산라인과 최첨단 설계 및 제조기술이 우리나라에 이전되어,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ASM사 제품의 세계적인 공급기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품의 국산화로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와 1백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력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ASM 지니텍코리아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생산과 영업활동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에 흔쾌히 투자를 결정해 주신 아서델 프라도 ASM 지니텍코리아 회장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ASM 지니텍코리아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축제를 위한 밑그림

세계군평화축제 자문회의 인사말씀

2007. 3. 20.

오늘 가칭 세계군평화축제에 관한 자문회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자문위원과 중앙부처 관계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군은 다른 조직이나 일반사회와는 달리 고유한 특수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군을 주제로 한 행사나 이벤트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군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에게 친숙해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상군페스티벌'과 '디펜스 아시아'행사 등을 통하여 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세계군평화축제는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의 지역특성을 살려, 우리 도가 개최하려던 세계군문화엑스포의 규모와 내용을 우리나라가 창시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승화시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제평화를 지향·선도하는 국가이미지 제고와 우리나라의 발전상 소개, 군에 대한 이해와 사기진작, 그리고 국가와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군 문화와 예술적 요소를 한데 모아 국가적 차원에서 메가 이벤트로 연출할 경우, 한반도에서 군을 통한 국제평화와 안녕의 전환적 패러다임 전개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축제를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수준과 규모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IOC나 FIFA와 같이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3년 또는 4년을 주기로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이처럼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로 개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의 특수성으로 국가간의 협력이 절실한데, 지방정부로서는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주도와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세계군평화축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 안전

모범운전자회충남지회 정기총회 축사

2007. 3. 22

오늘 모범운전자회 충남지회의 정기총회에서 여러분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유종상 충남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교통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시환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모범운전자 가족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점점 윤택해짐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70만대로, 전체인구 대비 1.12 가구당 1대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수단이지만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총 543명으로, 주로 안전운전 불이행과 중앙선 침범, 그리고 음주운전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점진적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어,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의 수는, 2001년에 13.4명이던 것이 2006년에는 7.5명으로 무려 4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2016년까지 교통사망사고를 현재의 반으로 줄여나가면서 유관기관과 함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운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과 도로구조 개선, 그리고 교통안전 홍보강화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교통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총회가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가운데 교통안전을 위해 다 함께 의지와 역량을 모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범운전자회 충남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의 소중함과 물 관리의 중요성

2007년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기념사

2007. 3. 22.

오늘 열다섯 번째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여러분과 함께 물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와 한국국악협회 청양군지부, 그리고 제32보병사단 군악대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물사랑·물절약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물의 날 기념 그림공모전에서 입상한 학생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시환 청양군수님, 이정우 도의원님, 이강용 청양군의회 부의장님, 김동한 청양군교육장님을 비롯한 내빈과 주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류역사의 태동과 발전은 물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물은 늘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물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되면서 물 부족과 수질오염, 그리고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인류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UN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500대 강의 절반이 대형댐 건설과 지구 온난화로 심각하게 고갈되거나 오염되었으며, 여기에서 서식하는 어종의 20% 이상이 멸종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민 여러분!

물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평상시 물의 고마움을 잊고 있다가도, 다급할 때에야 비로소 물의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1,700㎥ 이하일 경우에 물 부족국가라고 합니다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50㎥로 영국, 벨기에 이집트 등과 함께 물 부족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경에는 연간 18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물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물 관리에 더욱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물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물 관리에 더욱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민 여러분께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깨끗한 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물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쓰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물사랑·물절약운동의 확산을 위해 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정에 대한 애정과 고견

2007행정동우회 정기총회 축사

2007. 3. 23.

오늘 금년도의 힘찬 새 출발을 위한 행정동우회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선배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늘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도정을 살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현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동우회 가족 여러분!

금년은 민선4기 '충남호'가 실질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저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도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 잘 사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한 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경제 최우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통상실을 확대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실·국장의 책임 아래 도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 사고의 틀을 바꾸고, 창조와 도전의 정신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 줄 것을 당부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요즈음 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믿음직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 땀을 흘려, 반드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배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오랜 공직생활의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고견을 해주십사 하는 점입니다.

공직의 밖에서 저희가 하는 일들을 지켜보시면서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시고, 현장과 지역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동우회 가족 여러분!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어린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충남을 만들어, 이를 후세에까지 물려주는 일입니다.

앞으로 저는 도정운영에 대하여 선배님들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구하면서,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정기총회가 행정동우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행정동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전재정 노력

2006년도 재정분석우수기관 시상식 환영사

2007. 3. 26.

오늘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님의 우리 도 순방을 겸한 2006년도 재정분석우수기관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우리 도를 방문해주신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님,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동건 단장님을 비롯한 재정분석실시단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우리고장을 찾아주신 재정관계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랑스러운 지방재정가족 여러분!

무릇 한 가정이나 회사의 살림을 알차게 꾸려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주어진 재정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더 더욱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의욕이 넘친 나머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자치단체별 역량에 따른 재정격차와 민간에 의한 재정통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오늘날 지방재정의 집행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정부에서 Top-down제,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 등의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보다는, 그 예산을 어디에 투자하여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느냐가 지역발전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재정분석 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도가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한 사업예산의 추진효과 극대화와 불필요한 경상예산의 절감을 통해 지방채가 없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온 덕분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한 이후로 각 지자체에서 건전재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재정역량 또한 확충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시상식이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차게 꾸려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도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더 큰 보람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재해 민간전문봉사단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발대식 대회사

2007. 3. 27.

오늘 우리고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이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어렵고도 힘든 희생과 봉사의 길에 선뜻 동참해 주신 단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김시환 청양군수님, 강석호 청양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봉사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폭설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004년에는 우리지역에 100년 만의 폭설이 내렸는가 하면, 2006년에는 강원도에 집중호우가 내려 엄청난 피해를 낳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자연재해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 그리고 의도적인 요인 등에 의한 재난사고 역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003년의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등이 바로 그러한 예들입니다.

이러한 재난·재해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관 주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재난·재해의 발생현장에 신속히 접근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민간자율봉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발대식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재난·재해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일단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를 수습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전문봉사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안전에도 유의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늘 뜻을 같이 하면서, 장비를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발대식이 우리사회에 재난·재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오를 다지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건강 증진

대한간호협회충남간호사회 대의원총회 치사

2007. 3. 28.

오늘 충남간호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엄영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신 공적으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강희복 아산시장님, 김조자 대한간호협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충남간호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 중에, 우리나라의 뻔한 거짓말 'Best 10'으로 선정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께서는,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얼마 전에 종영된 MBC 드라마인 '하얀 거탑'을 많이 시청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드라마는 한 천재의사의 야망을 위한 끝없는 질주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루 3교대 근무라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의사의 수술준비와 환자 간호 등 많은 뒷일을 묵묵히 담당하고 계십니다.

늘 환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환자와 함께 울고, 환자와 함께 웃는 백의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은 안하시지만, 저 역시 여러분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도민과 환자분들에게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하여, 마음 깊은 존경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그리 넉넉한 재정여건은 아닙니다만,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껏 해 오셨던 것처럼, 도민과 환자의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총회가 회원 여러분의 화합을 도모하는 가운데,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충남간호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수기업 유치

2007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설명회 환영사

2007. 3. 28.

존경하는 외국 투자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과 내외 투자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흔히 한국하면 서울을 떠올리지만, 그 이웃인 우리 충남은 수도권의 대안입지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대덕특구에 인접해 있어 고급인력의 네트워크와 기술이전이 용이하고,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국내는 물론 중국과의 물류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8.4%의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 1위, 1인당 GRDP 전국 2위, 수출 393억 불, 외국인투자 13억 7천만 불을 달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고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5년 이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아산신도시

도청신도시, 그리고 주요 SOC사업 등에 약 70조원의 투자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1인당 GRDP 3만 불, 수출 6백억 불 무역규모 1천억 불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충남에 투자하십시오.

우리 도는 천안에 입주한 STF사의 건축허가를 5일 만에, 당진 라파즈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30일 만에, Sony와 삼성의 Joint Venture를 위한 탕정1단지 확장 신청을 9개월 만에 처리한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은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도내로 이전한 100인 이상의 기업이 29개나 되며, 현재에도 150여 개의 세계적인 유수기업들이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고의 입지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인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기업하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만족하실 때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으며, 그 선봉에는 도지사가 서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설명회가 기업인 여러분께 우리 충남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상

제6회 유관순상 시상식 식사

2007. 3. 30.

오늘 제6회 유관순상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예로운 유관순상을 받으신 김임순 애광원 원장님과 자랑스러운 유관순횃불상을 받은 신수연 이화여고 학생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함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김학준 동아일보사장님과 정창용 이화여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님, 박유철 국가보훈처장님, 이현재 전 국무총리님, 심대평 전 도지사님, 류근창 류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화여고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과

유관순열사의 숭고한 얼을 이은 후예들의 장한 공적을 널리 선양하는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관순상을 받으신 김임순 원장님께서는 참혹한 6·25전쟁으로 생긴 전쟁고아를 돌보시는가 하면, 외롭게 살아가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십니다.

평생을 당신의 안위와 행복보다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시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펼쳐 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김임순 원장님께 마음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수연 학생을 비롯한 일곱 명의 유관순횃불상 수상자들 역시 학교생활에 모범을 보이면서,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착한 학생들이 있는 한, 우리사회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수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관순열사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우리의 주권회복을 위해 총칼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유관순열사를 비롯한 거룩한 순국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오늘에 되살려,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숭고한 유관순열사의 얼을 잇는 것이요, 그 분의 못다 한 뜻을 이루는 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관순상이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상으로 굳건히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숨은 봉사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도 주위 분들에게 유관순상의 취지를 널리 알려 시대를 이끌어 오신 여성인사의 빛나는 공적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안전의 첨병

제1회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축사

2007. 4. 1.

오늘 자율방범연합회 대원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박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범죄 없는 고장 만들기에 기여하신 공적으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오제직 도 교육감님, 신준희 보령시장님, 김동일, 백낙구 도의원님, 하종근 자율방범연합회 중앙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자율방범가족 여러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도의 범죄발생은 173만 3천 건으로 2004년의 196만 8천 건에 비하여 1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만, 갈수록 우리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우리사회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젠 사법기관이나 경찰기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율방범가족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우리고장을 범죄 없는 1등 도로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청소년 선도보호, 그리고 자연보호활동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헌신적인 활동으로 인해, 우리고장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여러분들의 범죄예방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역안전의 첨병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주시고, 범죄 없는 고장을 만드는 일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체육대회가 여러분의 화합을 도모하는 가운데, 우리고장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토 방위

제39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기념사

2007. 4. 5.

오늘 향토예비군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주국방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제39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가 개최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비군의 사명감 고취와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적으로 상을 받으신 단체 및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제32보병사단이 금년도 우수 향토사단 대통령 부대표창의 영예를 안으신 것에 대하여, 200만 도민과 더불어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의장님, 이홍기 제32보병사단장님, 조용연 충남지방경찰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향토예비군 가족 여러분!

최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는가 하면 지난 3월에는 북핵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방위태세를 굳건히 해 나가야겠습니다.

저는 튼튼한 국가안보야말로 국가존립과 국력신장의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땀 흘려 가꾼 번영의 터전도,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안보는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향토예비군은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기치 아래 하나로 뭉쳐 후방방위의 예비전력으로서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과 재해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헌신함으로써, 든든한 지역지킴이로 자리 매김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지역안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향토예비군 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한데 모여 기념식을 갖는 것도, 향토예비군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결의와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지역안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위해 다함께 의지와 역량을 모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교육의 장

충남통일관 개관식 축사

2007. 4. 5.

오늘 충남통일관이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개관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권정달 한국자유총연맹총재님과 임동규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회장님, 그리고 유응조 전 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이준원 공주시장님, 김홍재 통일교육원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최근 북핵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이는 등 한반도에 다시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서는 우리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 역시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북핵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충남통일관이 문을 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미래의 통일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민족 모두가 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키우고, 통일에 대비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인 통일교육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상생과 연대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관한 충남통일관이야말로 도민들에게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의 소중함을 주지시켜,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개관식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딸기산업 발전의 토대

2007논산딸기 축제 치사

2007. 4. 6.

오늘 우리고장의 명품인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논산딸기축제'가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성규 논산시장님과 박덕병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인제 국회의원님, 송덕빈, 송영철 도의원님, 전유식 논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06년 통계에 의하면 연간 국내의 딸기시장 규모는 약 7천억 원 정도이며 생산량에 있어서는 미국, 스페인 다음으로 세계 3위라고 합니다.

또한 딸기의 전국 재배면적은 7천ha인데 그 중에서 논산은 850여ha로 전국 딸기생산 면적의 12%, 딸기 생산량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명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딸기의 품종은 일본이 원산지인 '육보'와 '장희'가 각각 47%와 31%를 점유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산품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2009년부터 국제식물 신품종보호연맹에서 딸기를 품종보호작물로 지정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로열티 문제가 가뜩이나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딸기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의 국산품종 개발과 보급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매향딸기는 논산딸기시험장에서 최초로 육성·보급한 딸기로서 지난해 농림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한껏 드높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농촌진흥청과의 협력을 통하여 매향 등 국산 신품종 딸기를 확대하기 위해 2010년까지 우량묘의 보급을 늘려, 국내 딸기 품종의 50%이상을 국내품종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층 더 굳게 다지는 가운데, 딸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축제가 많은 관람객의 참여 속에 성대히 종료되어, 우리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혁신의 활성화

충청남도지역혁신협의회 전체협의회 및 지역혁신세미나 격려사

2007. 4. 6.

오늘 우리고장의 지역혁신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전체협의회와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김용웅 협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신규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흔히 21세기를 세계화·지방화·지식정보화의 시대라고 합니다만, 최근에는 혁신이 하나 더 추가되어 지역과 국가의 발전 및 변화를 새롭게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혁신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명칭과 강도만 달랐을 뿐이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전부터 우리가 추진해 오던 것들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정의사회구현운동, 그리고 제2건국운동 등이 바로 그러한

예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역혁신의 주체는 지역과 지역민이 되어야 하고 지역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지를 잘 알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리더가 되어 힘을 모아야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왔지만, 정작 지역민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변화를 이루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중앙의 성급한 의욕과 지역민의 현실적인 바람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혁신의 추진방법과 과정에 변화를 기하여 지역혁신이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낙후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혁신이 계속 추진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의 대상과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내용적인 면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위기를 절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혁신을 지지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이런 점에 유의해 나가면서, 지역혁신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에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지역혁신의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고,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겸장군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

고려개국공신 태사무공공 복지겸장군 숭모식 추모사

2007. 4. 7.

오늘 고려개국공신 태사 무공공 복지겸장군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숭모제가 열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선철 기념사업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낙성 국회의원님, 민종기 당진군수님 김홍장, 이종현 도의원님, 김명선 당진군의회 의장님, 복중채 면천복씨 대종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겸장군은 후고구려의 왕인 궁예의 포악한 정치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왕건을 도와 고려를 개국한 공신이자 충신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신의 안위와 행복보다는 오로지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다 바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나라가 안녕하지 못했을 때에는 늘 외세의 침략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위정자들이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추구할 때에, 국민들은 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라크의 불안정한 국내정치와 사회상을 지켜보면서,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늘 나라사랑을 생활화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복지겸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올바르게 기리고 계승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다짐을 하면서 하나 되는 충남,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충남이 5천만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변함없이 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숭모제가 복지겸 장군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가운데 국가와 도정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수 기능인 발굴과 육성

2007년도 충청남도지방기능경기대회 대회사

2007. 4. 11.

오늘 우리고장의 우수기능인 발굴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선발을 위한 충청남도지방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대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과 한상원 충남지사장님, 그리고 대회 참가를 위해 성심을 다해주신 오제직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시·군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참가선수 여러분!

지난 4월 2일 마침내 한·미FTA가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상대로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이제부터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의 승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기술입국과 수출한국의 신화를 창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선도산업 만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들 선도산업을 뒷받침하고 신기술을 개척할 수 있도록 2차 산업, 특히 중소제조업분야에서도 세계 일류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수한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의 전국대회 출전성적도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상위권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 전국대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됩니다만, 저는 이를 계기로 우리고장의 산업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가 여러분의 발전과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는 기회가 되고 성공적인 전국대회를 위해 우리 모두의 땀과 지혜를 모으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대회기간 동안 여러분의 선전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값진 결실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 미FTA를 맞는 우리의 자세

충청신문사 기고문

2007. 4. 13.

우리 경제사의 새로운 전기가 될 한 · 미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는 협상단이 공식 출범한지 14개월만의 일이다. 아직 양국의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로서 참으로 길고 지루한 협상이 매듭지어지게 되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과정의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 못지않게 타결 결과에 대한 반응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타결을 반기는 쪽에서는 자유무역이 세계적인 추세인 현 상황에서 무역대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현실적으로 그 엄청난 피해를 감당하기엔 실로 난망이라는 비관적 분석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그렇다.

농업분야의 경우 곡류는 콩이, 축산은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그리고 과수의 경우 품목별 지역 집중도가 높은 딸기, 인삼, 사과, 배, 포도 등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같은 농업분야라 하더라도 한·칠레 간 FTA체결로 이미 시설 현대화와 과수조정이 완료된 복숭아, 키위 등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자동차 분야의 경우 관세철폐로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경쟁력은 향상됨으로써, 우리 도의 4대 전략품목인 자동차 부품수출 지원은 활성화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기·전자 또한 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남호'를 책임지고 있는 필자가 느끼는 감회와 책임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타결이라는 현실 앞에 상반되게 나오는 두 방향의 평가를 어떻게 보완하고 추슬러서, 재도약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타결 결과에 대해 갈등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FTA협상은 이미 타결됐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타결 이후의 결과분석이야말로 협상 테이블 앞에 앉는 순간에 완료되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지금에 와서 타결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보다 분명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냉철한 현실만을 생각해야 한다.

위기를 맞은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인지, 새로운 기회로 다가온 제조업과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FTA 타결 이후에 전개될 각 분야별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온 지는 꽤 오래다.

이는 우리 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대응체계 및 대응 전략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

문제는 이것을 실천해 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극복해낼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한다.

절차적인 면도 중요하다. 우리 도의 단독조치가 국가대응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범 국가차원의 부처별 추진계획이 선행된 후, 우리 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추진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예로부터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이었다.

특히 우리 충남은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도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홀연히 일어서 선봉에서 그 험난한 파고를 넘어왔던 전통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번의 FTA 타결 또한 우리가 앞장서 반드시 넘을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자! 우리 모두 지혜와 성심을 모아보자.

그리하여 이번 기회를 국가 재도약의 전기로 삼아나가자.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허베이성장 초청 환영만찬 답사

2007. 4. 17.

존경하는 바이커밍 당서기님과 궈경마오 성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신뢰와 협력관계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허베이성과 우리 도가 자매결연을 한 지 어느덧 13년이 됩니다만 그동안 우리는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호와 협력을 쌓아 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오늘날 우리나라 제1의 교역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수출액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으로 오는 동안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허베이성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우리 도와 비슷해 더욱 진한 형제애를 느끼는 동시에,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곳과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는 2010년에 우리 도는 한·중·일 3국의 역사·문화적 유대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자 '大백제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자합니다.

금년 10월부터 열리는 '백제문화제'에 당서기님과 성장님께서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다면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만남이 양 지역의 실질적인 교류협력과 우호를 더욱 굳게 다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성대한 만찬에 초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류협력의 기폭제

장쑤성장 초청 환영만찬 답사

2007. 4. 20.

존경하는 리웬차오 당서기님과 량바오화 성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이처럼 성대한 만찬까지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서 깊은 역사와 찬란한 문화의 향기로 이름난 지역이며 천오백년 전 백제시대부터 우리 도와 깊은 유대를 다져온 장쑤성을 방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장쑤성이 우리 도처럼 IT산업의 핵심지역이며, 이곳에 진출한 우리 도의 기업들도 많다는 점에서 더욱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양 지역 간에 우호협력이 체결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환경과 농업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국경 없이 넘나드는 문화교류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원천임을 생각할 때, 좀 전에 체결한 문화교류협력양해각서는 앞으로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의 기폭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도는 천년 넘게 쌓아온 백제문화와 남조문화의 깊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10년 한·중·일 3국의 문화를 아우르는 '大백제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그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 '백제문화제'의 외연을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당서기님과 성장님께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백제문화제'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양 지역 간에 더욱 굳건한 신뢰와 협력의 관계가 구축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성대한 환영의 자리를 마련에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의 존엄성 진작

제44회 법의 날 기념행사 축사

2007. 4. 25.

오늘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법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김준규 대전지방검찰청님과 임정수 대전지방변호사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마을 대표자와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진권 대전지방법원장님, 박성효 대전광역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법조인과 주민 여러분!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구성원간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은 바로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 구성원간의 기본적인 약속이며 최소한의 행동 준칙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종교규범이나 도덕규범, 그리고 관습 등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해 왔지만, 법은 이런 사회규범 가운데서도 가장 합리적이고도 강력한 사회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은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평화적이고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폭력과 무질서로부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과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 중에는 법을 준수하며 사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에 부당한 수탈에 대한 저항의식과 근대화과정을 겪으면서 지나친 경쟁으로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릇된 잔재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이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관이 상실되고, 준법의식이 해이해진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의 준엄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더 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 없는 마을을 더욱 늘려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범죄 없는 1등 도'를 만드는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기념식이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는 가운데,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제문화의 정립

백제문화 대토론회 인사말씀

2007. 4. 26.

오늘 백제문화의 올바른 정립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백제문화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시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선규 공주부시장님과 김무환 부여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러분께도 시청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MBC의 주말 프로그램인 '느낌표'의 '위대한 유산 74434'에서는 최근 3주 간에 걸쳐 찬란했던 백제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소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라와 고구려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 속에 잊혀진 '백제문화'에 대한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후손인 우리들의 자긍심을 높여 준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7백년 백제문화에 대하여 얼마나 소홀히 하였는지를 반성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백제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3월 초에 공주와 백제의 문화유적지를 둘러본 결과는 정말 조상님께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복원이 많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경우 역사박물관과 왕궁의 위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 등이 바로 그러한 예들입니다.

이미 경주시에서는 보문관광단지 내에 1,000억원을 들여 1,300년 전 신라의 모습을 보여 줄 '신라 밀레니엄파크'를 준공하였는데, 정작 우리 도의 백제역사문화권개발사업은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올해부터 업그레이드할 백제문화제는 물론이고 2010년에는 한·중·일 삼국이 참여하는 '대백제전'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루빨리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대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것도 바로 백제문화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백제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열과 성을 다해 나간다면, 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백제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백제문화가 다시 활짝 펼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력화의 출발점

알카텔진공코리아 준공식 축사

2007. 4. 26.

오늘 우리 도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알카텔진공코리아의 준공식이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장이 문을 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케강 사장님과 박상순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최근 천안세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천안과 아산, 서산 등 충남 서·북부지역의 1분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1%가 증가한 102억 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보다 72%가 늘어난 39억 불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엔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반도체는 수출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서 지역경제와 국가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공된 알카텔진공코리아는 세계적인 통신·IT전문기업인 프랑스 알카텔그룹의 한국공장으로서, 반도체 생산라인에 필수적인 진공장비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특히 알카텔진공코리아는 2005년에 우리 도와 2천만 불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첨단기업입니다.

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알카텔 진공제품의 공급기지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150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부품의 국산화로 매년 3백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알카텔진공코리아를 비롯한 입주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준공식이 알카텔진공코리아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진공장비 생산기업으로 발전해 나감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력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알카텔진공코리아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제문화의 우수성 선양

백제문양 특별전 축사

2007. 4. 30.

오늘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백제문양 특별전이 열린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뜻 깊은 전시회를 마련하신 정덕기 충남역사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준원 공주시장님과 김무환 부여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학술 심포지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요즈음 건축, 패션, 그리고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선호도를 좌우하는 것은 가격보다는 오히려 디자인입니다.

그런가하면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유수한 기업의 주력상품 판매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일컬어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미국의 존 나이스비트는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시각문화(Visual Culture)이며, 이러한 시대에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기술을 잘 아는 '두뇌'에 서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분명 우리민족은 '디자인의 시대'인 21세기를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축복받은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일찍이 우리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며 타고난 손재주와 풍부한 감성을 살려, 세계가 놀랄만한 우수한 민족문화의 꽃을 피워 왔습니다.

특히 백제는 이미 천오백년 전에 왕성한 해상활동을 토대로 동아시아를 융합하는 국제적인 문화를 이룩한 중심 국가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새롭게 창출해 나간다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세계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명품, 백제 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특별전시회와 포럼이 열린 것은 참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섬세하면서도 단아한 백제의 아름다움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 중 · 일 3국의 문화를 아우른 대백제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한 번 이 땅에 활짝 꽃 피워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열린 특별전이 국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는 가운데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재창조 해나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화합

근로자의 날 기념식 축사

2007. 5. 1.

오늘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사간 화합을 더욱 굳게 다지기 위한 '근로자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활력 있는 지역경제의 창출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 오신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노사협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홍재복 한국노총 충남지역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상돈, 양승조 국회의원님, 조건휘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근로자 여러분!

지난달 우리 도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1%가 증가한 38억 불로, 월 수출액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1/4분기 중소기업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9.3%나 증가하여, 수출증가율이 전국 1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두가 어려운 여건과 도전을 불굴의 의지와 열정으로 극복해 오신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근로자 여러분!

최근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두고,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의 사이에 끼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 체결로 인해 개방과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어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리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보다 더 힘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값진 경험과 탄탄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도전과 창조의 기회로 삼아 보다 더 나은 도약과 발전을 일구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도민 모두는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어, 이 힘찬 도약의 행진에 열과 성의를 다해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근로자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더욱 굳게 다짐은 물론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의 무궁한 발전과 근로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력화의 주역

근로자의 날 담화문

2007. 5. 1.

존경하는 근로자 여러분!

2007년 근로자의 날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근로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가족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고유가와 환율 불안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평균 19.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지난해에는 3,260억불의 수출을 달성하여 세계에서 11번째로 3천억불 수출국가 대열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우리 도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1%가 증가한 38억불로, 월 수출액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1/4분기 중소기업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9.3%나 증가하여, 수출증가율이 전국 1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도가 금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수출 450억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 지며, 연말쯤에는 수출규모면에서 세계 36위권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은 어려운 여건과 도전을 불굴의 의지와 열정으로 극복해 오신 근로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근로자 여러분 !

최근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의 사이에 끼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 체결로 인해 시장개방과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경제 활력화의 원동력인 기업과 생산의 주역인 근로자 여러분이 모두 하나가 되어, 이보다 더 힘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온 값진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와 지역경제의 활기찬 재건을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이 힘찬 도약의 행진에 불을 지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가슴 부푼 기대로 열어 가는 자랑스러운 충남의 미래를 위해 근로자 여러분 모두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희망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

물 통합관리 선언식 식사

2007. 5. 3.

오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물 통합관리' 선언식이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물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물 통합관리 민관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홍준석 환경부 수질보전국장님, 소준섭 금강유역환경청장님, 이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하천은 공업화와 도시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점점 더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흘려보내는 생활하수는 물론이고, 공장 등 산업폐수로 수질이 악화되어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증가와 산업경제의 발전 등에 따라 물 부족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의 서·북부지역은 산업단지의 증가에 따라 공업용수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며, 앞으로 산업시설이 더욱 늘어날 경우 이런 물 부족사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물 관리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물 통합관리 선언식'을 개최하는 이유도, 바로 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깨끗한 하천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물 관리업무의 통합·조정을 위해 '물 통합 관리본부'를 발족하고, 오늘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난 2월에 문을 연 '수질총량관리센터'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도내의 모든 하천 등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물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물 절약과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선언식이 물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걷기운동의 활성화

충청남도워킹협회 2기 임원 출범식 축사

2007. 5. 4.

오늘 충청남도워킹협회 2기 임원 출범식이 열린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로운 열정과 의욕으로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이끌어 나가실 최종진 신임협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윤방부 한국워킹협회장님과 이명수 고문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워킹협회 회원 여러분!

건강한 가운데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갖는 가장 소중한 바람이자,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계문명의 발달로 신체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과식과 고 칼로리의 식사로 인하여 비만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에는 걷기운동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걷기운동은 무엇보다도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마라톤처럼 무릎에 큰 무리가 없이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대화와 사색, 음악 감상 등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걷기운동은 일부 일회성이나 행사성 위주로 전개돼 온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걷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마다 바삐 사느라 운동과 대화가 부족한 오늘날, 걷기운동은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매개체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으며, 우리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걷기운동이 생활스포츠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출범식이 도민 모두가 건강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도워킹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문화유산의 소중함

제5회 왕의 물 축제 격려사

2007. 5. 4.

오늘 신비의 약수로 알려진 '전의초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왕의 물 축제'가 열린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이병하 왕의물축제 선양위원장님과 이기봉 연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기군민 여러분!

무릇 우리가 살 집을 선택하는 데에는 생활의 편리성, 교통·교육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웰빙시대인 요즈음 집 가까이에 임금님께서 드셨다는 약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 커다란 축복일 것입니다.

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종시'라는 명칭 자체가 어쩌면 '전의초수'와 관련된 세종대왕님의 영험한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이번 축제를 준비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짧은 신도시에서 유서 깊은 지역축제가 개최되어, 주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특색을 살려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요, 전통과 미래가 함께 어우러진 환상의 조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축제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보다는, 연기지역 전체와 미래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하나로 아우르는 명품브랜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지역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새삼 인식함은 물론 '전의초수'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미지를 한층 더 드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더 크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의 소중한 꿈

제85회 어린이날 기념식 기념사

2007. 5. 5.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제85회 '어린이 날'을 기념하는 큰 잔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린이날을 더욱 뜻 깊게 빛내 준 수상자 모두에게 따뜻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오늘 큰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과 기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가족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여러분의 밝고 웃음 띤 모습을 보니 우리 충남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라는 기분 좋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린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가슴에 소중한 꿈을 간직하고, 이를 펼쳐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미래사회는 현재에는 꿈만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우주여행을 하는가 하면, 로봇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어린이 여러분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행복한 삶을 누릴지 말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주눅이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를 정말 알차게 보내는 일입니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고, 건강도 챙기고, 친구와의 우정도 소중히 간직해 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많이 의지하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스스로의 자립의지를 길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날이니만큼, 맘껏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닌 꿈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내년에 더욱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JC회원의 화합과 단결

제38차 충남지구JC회원대회 축사

2007. 5. 5.

오늘 충남지구JC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38차 충남지구 JC 회원대회가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장기용 충남지구JC 회장님과 진복주 안면JC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영광의 충남인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진태구 태안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JC 회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 신도시, 그리고 아산 신도시개발 등과 같은 대형사업들이 곳곳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과 도약에 대한 희망을 한껏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유가와 환율불안 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회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JC 회원 여러분!

그동안 충남지구JC는 지역사회개발과 세계와의 우정이라는 높은 이념을 바탕으로 굳건히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역사의 한 축을 이루며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뜨거운 열정과 의지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다고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께서 이를 능히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은 창조와 도전정신으로 뭉쳐 누구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실 분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발전하는 고장,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지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남지구JC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尊師愛弟의 훈훈한 풍토

2007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행사 축사

2007. 5. 11.

오늘 스승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사제의 정을 돈독히 하기 위한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 행사가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현직 스승님과 제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제 간에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방은희 도새마을부녀회장님과 한창숙 도새마을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뜻 깊은 시간을 함께 하실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오제직 도교육감님 유상곤 서산시장님, 그리고 맹오영 도교육삼락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스승님과 제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성장과정을 쓴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반기문 총장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충주고등학교 시절에 영어를 가르쳤던 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반기문 학생에게서 탁월한 영어소질을 발견하고 여기에 몰두하게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되기 위한 용기와 꿈을 심어주어, 오늘날 반 총장이 외교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운 스승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승님의 헌신적인 지도와 가르침이야말로 한 제자의 인생을 이처럼 훌륭하게 바꾸어 놓을 만큼, 위대하고도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새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학생이 올바로 성장할 수 없듯이,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사회 또한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륜과 도덕이 살아 있는 참다운 도의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 스승존경운동의 불길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불씨를 지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승존경운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尊師愛弟의 훈훈한 풍토를 가꾸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절과 인성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우리사회에 스승존경운동을 널리 확산시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 스승님께서도 더욱 강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성과 도리가 살아있는 훈훈한 사회

제7회 전국 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 대회사

2007. 5. 12.

오늘 스승존경과 제자사랑의 풍토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가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뜻 깊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우리고장을 방문해 주신 청소년과 지도교사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대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건영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회장님과 임영우 강경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윤재명 강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함기선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님, 김명호 청소년적십자중앙본부장님, 오제직 도교육감님, 김홍섭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장님, 임성규 논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아마 부모님 다음으로 선생님일 것입니다.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까지 우리에게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교양, 그리고 참다운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시는 헌신적인 모습에서 스승님들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유엔의 수장을 배출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적자원 덕분이며, 그 중심에는 尊師愛弟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미풍양속을 널리 확산하고 올바르게 계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날'의 발원지인 이곳에서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한 것도 바로 尊師愛弟의 불씨를 다시금 지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인성과 도리가 살아 있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스승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잘 따라 명랑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백일장이 尊師愛弟의 풍토를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해 나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신뢰가 넘쳐나는 고장

국제로타리3620지구 제12년차 지구대회 축사

2007. 5. 13.

오늘 국제로타리3620지구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12년차 지구대회가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이원석 지구대회 위원장님과 양재우 총재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광태 국제로타리 이사님, 오제직 도교육감님 강희복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로타리 가족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로타리는 80년이라는 역사와 함께 1,308개의 클럽과 5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 4위의 봉사단체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이동건 회장님께서 국제로타리 차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국제사회를 이끄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타리 가족 여러분!

봉사는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열정 없이는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남을 위한 봉사는 무엇보다도 실천이 요구되므로 구호로만 봉사를 외치고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중앙정부나 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펼쳐 오시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로타리 가족 여러분!

저는 봉사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분 한분의 봉사활동이 사회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사랑과 신뢰가 넘쳐나는 고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제로타리3620지구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궁도인들의 우정과 화합

2007세계민족궁 대축전 축사

2007. 5. 13.

오늘 국·내외 궁도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 민족궁 대축전'이 열린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먼저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고장을 찾아 주신 세계 각국의 궁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양승조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장님과 황광원 천안시생활체육협의회장님, 그리고 이택휘 국학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님, 박철빈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직무대행님,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궁도인 여러분!

민족궁은 인류가 수렵생활을 할 때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전통문화

유산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족궁은 양궁에 비해 이렇다 할 국제교류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포츠의 국제교류가 지구촌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함에 있어 다른 어느 분야 못지않게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민족궁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각궁은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민족궁 대축전을 개최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전통과 특색을 지닌 민족궁들이 한 자리에서 선을 보임으로써,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지구촌 화합의 한마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축제가 국·내외 궁도인들의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민족궁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 복원과 주민소득 증대

2007년도 어린 참게 방류행사 인사말씀

2007. 5. 14.

오늘 생태환경 복원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어린 참게 방류행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김시환 청양군수님, 강석호 청양군의회 의장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참게는 맛이 좋고 향이 독특해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려졌을 정도로 귀한 어종이었습니다.

더욱이 참게는 우리 몸에 좋은 키토산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간의 해독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발육기의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없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생태환경의 변화와 농약의 사용으로 인해, 그 흔하던 참게가 요즘에는 시골에서 조차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토산 어종인 금강참게는 금강하구둑으로 인해

이동 통로가 차단되어 거의 자취를 감추다 시피 한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의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그간 꾸준한 연구와 노력 끝에 금강참게를 복원하여 7개 시·군에 64만5천 마리를 수년간 방류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참게농법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 참게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살찌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노력들은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우리 농촌을 더욱 풍요롭게 함은 물론, 개방의 시대를 맞아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농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방류된 참게들이 이러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생명의 원천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알찬 보람과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고장의 희망찬 미래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격려사

2007. 5. 15.

오늘 충남발전협의회의 화합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한만우 충남발전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남은 開道 이래 최대의 중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도청 신도시와 아산신도시의 개발 등 도내 곳곳에서 발전과 도약을 향한 힘찬 뱃고동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와 환율 불안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수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이룩한 외자유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오만 석유공사를 비롯한 3개 사와 6천4백만 불의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0만 도민과 회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일구어 낸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동안 여러분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FTA 타결에 따라 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함은 물론,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어촌을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격려 등을 통하여 우리 충남이 더욱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잘 사는 충남,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역과 도정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정기총회가 희망찬 지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다 같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충남발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의 안녕과 발전 축원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등점등식 축사

2007. 5. 16.

존경하는 옹산 수덕사 주지스님과 요명 동학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원로 대덕스님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조용연 충남지방경찰청장님,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진공 스님, 백제불교회관장 장곡 스님과 김종완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이천오백오십한 번째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연등을 청사 곳곳에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연등은 자신을 태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광명과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연등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가정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를 비는 그 순간, 우리는 본래의 순수한 인간이자,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역사의 고비와 역경을 꿋꿋하게 헤쳐 올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바쁜 생활에 쫓겨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소중한 것들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는 불국정토가 안타깝게도 대립과 갈등, 탐욕과 분쟁으로 얼룩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大慈大悲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은, 너와 내가 다함께 이로운 自利利他를 실천하여 圓融和合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라만상에 밝은 기운이 가득한 새봄을 맞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 이 세상을 상생과 화합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점등식을 계기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을 밝힘은 물론, 온 누리에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현

제16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축사

2007. 5. 18.

오늘 지역 · 계층 간의 화합과 우정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현을 위한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가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최희택 도생활체육협의회장님과 윤충재 논산시 생활체육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인제, 양승조 국회의원님,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오제직 도교육감님, 임성규 논산시장님을 비롯한 시장 · 군수님 여러분, 그리고 각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장님과 종목별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생활체육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문명의 이기 덕분에 생활의 풍요와 편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한 육류 섭취 등 식생활 습관의 변화와 운동부족으로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과 확산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력 저하와 대인접촉 기회를 줄여,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체육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민의 결속과 화합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참여활동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웰빙 바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생활체육은 우리의 삶과 더욱 친근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도민생활체육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바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지역단위 생활체육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범 도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생활체육이 마을마다 직장마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축제가 그 힘찬 서막을 여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

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행사 격려인사

2007. 5. 19.

싱그러운 수목의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오늘 모처럼만에 도청 가족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종호 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일상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대자연의 품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즐거운 날입니다.

연초부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마음을 다잡고 참으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야근하던 날이 부지기수였으며, 때로는 일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혔던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훌훌 털어내고, 허물없이

하나가 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다양한 게임과 장기자랑에 주저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기 바랍니다.

부서별 대항경기를 통해 힘과 함성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감을 몸소 느껴보기 바랍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땀을 통해 얻은 화합은 앞으로 활기찬 도정을 펼쳐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할 사항은 너무 승패에 집착해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마음만 앞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가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가족 간에는 사랑을, 동료 간에는 우정을 새롭게 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말끔히 날려버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마음을 담아 5초 간 힘찬 함성을 외쳐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감사합니다.

활기찬 직장

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행사 마무리인사

2007. 5. 19.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행사 내용도 좋았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한마음 다짐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 준 협조기관·단체와 진행요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여준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이 좋았고, 동료와 상사 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이제 아쉽지만 행사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즐거웠던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활기찬 직장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가

매우 필요합니다.

도청은 내 일터, 내 삶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하기 즐거운 곳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의 발전과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과 역할 또한 여러분의 양 어깨에 달려있는 만큼, 더욱 더 새로운 각오로 업무추진에 진력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닌 열정과 창의, 그리고 도전정신이라면 능히 이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축사

2007. 5. 24.

오늘 불기 2551년'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이 열린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법요식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옹산 주지스님을 비롯한 스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문표 국회의원님, 조용연 충남지방경찰청장님, 최승우 예산군수님, 김양제 예산경찰서장님, 권오창 조계종제7교구 신도회장님, 그리고 박숙자 수덕사 신도회장님을 비롯한 내빈과 불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로대덕 스님과 불자 여러분!

매년 우리는 석가의 탄신일을 맞아 그 뜻을 기리고 무량하신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는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궁핍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치관과 윤리의 부재로 가장 존귀한 인간의 존엄성마저 경시되고 있으며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인간 본래의 이성과 도덕심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넓고 크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마다의 가슴에 새기면서 배려와 이해와 화합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버림과 희생, 나눔과 베풂의 진리와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가야할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정성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의 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밝고 따뜻한 공동체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합장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충남건설

희망충남 도민화합 걷기대회 축사

2007. 5. 26.

오늘 도민과 외국인 모두 하나가 되어 희망찬 충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도민화합 걷기대회가 열린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한창숙 도새마을회장님과 이기범 논산시 새마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임성규 논산시장님, 송영철, 송덕빈, 오세옥 도의원님, 전유식 논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어 개방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점차 다민족국가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즈음 도내의 산업현장이나 농촌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고국을 떠나 낯선 타국에서 겪는 편견과 불편을 참아가며

국가산업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은, 우리에겐 참으로 고맙고 소중한 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이 단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내 식구는 굶길지언정, 내 집을 찾은 손님에겐 극진한 정성과 예의를 다한 아름다운 심성을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 빨리 이러한 전통과 미덕을 되살리고 외국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벽을 허물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열린 마음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걷기대회를 마련한 것도, 바로 우리사회의 갈등과 편견을 걷어내 모두가 행복한 '희망충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도민 여러분!

희망은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나눌수록 그 기쁨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이 대회가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훈훈한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들의 우정과 화합

대전·충남기자협회체육대회 축사

2007. 5. 26.

오늘 우리고장 언론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위한 대전·충남기자협회 체육대회가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이은중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민 국회의원님, 양홍규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변평섭 충청투데이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모처럼 야외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 더욱 반갑고, 마치 한 가족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고장의 곳곳을 누비면서 지역민들이 함께 호흡하고 느낄 수 있는 기사를 발굴하여 전달해 줄뿐만 아니라, 여론 형성의 리더로서의 역할도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지역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 목소리를 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의사를 한데 모아주시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우리고장이 힘차게 도약하는 데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희생과 노고에 대하여 저는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변함없이 언론문화의 창달과 지역발전의 선구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만큼은 바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서로의 친목도 다지고 그동안 못 다한 얘기도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구동호인의 우정과 화합

제14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 축사

2007. 5. 26.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축구동호인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제14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가 개최된 것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대회의 참가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우리고장 홍성을 방문해 주신 선수와 임원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해주신 김휘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장님과 유병수 충남축구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랑스러운 축구동호인 여러분!

근래 들어 웰빙 붐을 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척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차원을 떠나 직접 참여하는 생활체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축구는 지난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축구가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박진감이 넘치고, 선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 땀을 흘려야만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자 총력을 모으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축구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땀 흘리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쳐 쓰러진 동료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고, 실패했을 때에도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주며, 승리를 했을 때에는 다함께 얼싸안고 어우러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국의 축구동호인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이신 만큼 그동안 갈고 닦으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승패에 집착하시기보다는 다함께 하나로 어우러지며 최선을 다했다는 데에서 더 큰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경기장에서 흘린 여러분의 땀과 열띤 함성이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더욱 돈독히 다져나가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경제의 활력 창출

제14회 충청남도기업인대회 대회사

2007. 5. 30.

오늘 도내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을 모시고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신장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 회장님, 한평용 충남기업인연합회장님,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과 김시환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지금 우리 도정의 최우선 목표는 역동적인 지역경제의 창출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너나없이 열심히 땀 흘려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악조건 아래서 수출 400억불을 달성하고, 30%가 넘는 수출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께서는 내수 침체와 환율 하락 등 국내외적으로 힘든 경제상황을 창조와 도전정신으로 극복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외자 및 기업 유치, 수출, 그리고 고용 등 경제 전반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에 차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은 개방과 경쟁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EU,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고자 주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회를 지역경제의 힘찬 도약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여러분의 애로와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러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대회가 충남 경제의 활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결실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기능수준 향상

2007년 충청남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축사

2007. 5. 30.

오늘 장애인들의 기능수준 향상과 고용촉진 도모를 위한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구슬땀을 흘려온 참가 선수 여러분께, 200만 도민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뜻 깊은 대회를 주관하신 소진정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충남지부장님과 김용만 대전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준원 공주시장님, 송민구 도의원님, 이동섭 공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신 지도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선수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U, NAFTA 등과 같이 지역별로 거대한 경제블록을 만들어 회원국들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열악한 조건을 딛고 집중적인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산업기술은 국가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인도 등을 비롯한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고 이들 국가와의 기술격차는 점점 좁혀지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술입국의 목표 아래 산업기술의 질적 향상은 물론 유능한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일반인들보다 몇 십 배 아니 몇 백 배의 힘든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분이 참으로 대견스럽고도 자랑스러우며,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으며, 여러분의 도전과 노력은 쉼 없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밝은 미래와 행복을 위해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가 여러분의 재활의지를 높이고 미래의 기술 한국을 일구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선수 여러분의 선전을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2007국민생활체육 전국대축전 출전식 격려사

2007. 6. 1.

오늘 국민생활체육 전국 대축전에 참가하는 우리 도 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는 출전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출전식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희택 도생활체육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양승조 국회의원님,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성무용 천안시장님, 정순평 도의원님, 각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장님, 그리고 종목별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

최근 웰빙 문화와 주 5일근무제의 확산 등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가족 또는 직장단위의 동호인들이 한데 모여 다양한 종목의 생활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체육공원이나 생활체육센터가 점차 늘고 있어 생활체육이 확산되어

나가는 데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지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민의 결속과 화합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참여활동입니다.

저는 이 같은 생활체육활동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지역단위 생활체육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범 도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하여 생활체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대축전에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여 우리 충남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활체육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선수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환경보전의 생활화

제12회 환경의 날 담화문

2007. 6. 5.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오늘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제12회 환경의 날'입니다.

오늘날 환경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더불어 그 가치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망각한 무리한 개발이나 소비 등에 치중한 결과 적지 않은 부작용과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와 대량 소비사회의 초래가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 곡물 수확의 격감, 그리고 사막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눈이 오지 않는 겨울, 명확하지 않은 봄과 가을, 불볕더위와 열대야로 몸살을 앓는 여름이 나타나는 등 지구 온난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구 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구의 자정능력이 이젠 한계를 넘어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하고 푸른 고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환경의 날'을 맞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다짐을 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정이 넘치는 훈훈한 세상

대전·충남적십자봉사원 한마음 체육대회 축사

2007. 6. 5.

오늘 적십자봉사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대전·충남적십자봉사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랑과 정이 넘치는 훈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적십자봉사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김광수 대전·충남지사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건영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회장님,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님, 양홍규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님, 양승조, 박상돈 국회의원님, 성무용 천안시장님, 박성태 대한적십자봉사회 중앙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적십자봉사원 여러분!

봉사는 자신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열정 없이는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 봉사는 대가를 바라거나 남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그만큼 봉사는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실천이 요구되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활동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고운 마음을 지니고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 오고 계신, 자랑스럽고도 고마우신 분들이십니다.

이런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우리사회가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적십자봉사원 여러분!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어려운 이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대전·충남지사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능한 미래인재 육성

2007년 충남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격려사

2007. 6. 5.

오늘 충남장학회의 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배움의 길에 정진해 온 장학생 여러분에게,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어린 축하와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신 학부모님과 정성을 다해 지도해 주신 선생님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홍진 충청남도 부교육감님, 이선자 도의원님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 박영조 운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영재 장학생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산업발전 정책과 교육투자에 힘입어 자원부족을 극복하고 무역규모 세계 11위, 연구개발 인력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남다른 교육열과 함께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한 국가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무한경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미래 인재의 육성은 절실한 과제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재 장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고장의 밝은 미래이며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 동량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세상을 개척해 나간다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 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미래에 대한 희망찬 꿈과 희망을 간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충남장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제13회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 축사

2007. 6. 8.

오늘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과 새마을운동의 촉진을 위한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가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한창숙 충청남도새마을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의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님, 김문규 도의회의장님 민종기 당진군수님, 김홍장, 이종현 도의원님, 손진영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새마을 가족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국민운동입니다.

또한 지난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준 정신적 지주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세계인이 놀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일 해 오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마을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 시대에 부합하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시민의식을 한층 더 성숙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 나가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 온 저력이 있는 만큼, 이 또한 능히 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범 도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우리 충남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를 위한 일에 보다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대회가 활기차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도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제문화의 진수

백제문화제 관광홍보설명회 인사말씀

2007. 6. 11.

아소구마모토공항 국제선 진흥협회와 구마모토현관광연맹 관계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 충청남도의 '백제문화제 관광설명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는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가 위치해 있는 백제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시대에는 해상활동을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문물교류가 가장 왕성했습니다.

백제는 학자, 승려, 전문기술자 등을 일본에 파견하여 유교, 불교,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도와 문물을 전파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선진문명을 받아들여 고대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일본문화의 원류인 아스카문화를 활짝 꽃 피웠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리 충청남도와 구마모토현이 21세기의 굳건한

동반자로서 많은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교류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리 도의 공주와 부여에서 '700년 대백제의 꿈'이라는 주제로 제53회 백제문화제가 동시에 개최됩니다.

이 축제는 그동안 공주와 부여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해 오던 것을 통합하여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전과는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훨씬 성숙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축제는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진수를 세계무대에 선보이기에 앞서 개최함으로써, 우리 도의 백제문화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유감없이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한일중 삼국이 참여하는'대백제전'을 성대히 개최하여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내빈과 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에 오셔서 백제문화제를 관람하시는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백제문화의 향연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구마모토현과 아소구마모토공항 국제선 진흥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마모토현과의 공동번영

구마모토현지사 초청 환영리셉션 답사

2007. 6. 11.

존경하는 시오타니요시코 지사님 내외분!

그리고 무라카미 토라미 구마모토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먼저 우리 방문단에게 정성어린 배려를 해주시고 성대한 만찬에 초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사님과 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200만 충남도민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구마모토는 제가 처음 방문하는 곳입니다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친근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경지와 산림 등의 자연환경이 우리 도와 유사합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도와 구마모토현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24년간 쌓아 온 두터운 우정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마모토현에는 일본 3대 성의 하나이자 구마모토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구마모토성과 규슈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인 스이젠지 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75문자를 은상감으로 기록한 큰 칼이 출토된 에다후나야마고분과 백제멸망과 관계된 키쿠치성이 있는 등 곳곳에 백제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년 1월부터 구마모토성의 아름다움을 일본 전역에 알리기 위한 구마모토성 축성 400주년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천황을 모시고 아소산을 가꾸기 위한'전국育樹제'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0년에 백제문화와 일본의 아스카 문화, 그리고 중국 장쑤성의 남조문화를 하나로 아우르는'대백제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천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일중 3국의 역사문화적 교류가 지방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활짝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역사·문화의 공동연구를 비롯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동북아시대의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 날수 있도록 지사님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 지역의 돈독한 우의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우리 방문단에게 후의를 베풀어 주신 시오타니 요시코 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교류

나라현과의 문화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기념사

2007. 6. 13.

존경하는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나라현과 충청남도 간에 문화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와 백제는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왕성한 문화교류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라현과 옛 백제의 중심지인 충청남도 간에 미래지향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나라현에는 도다이지와 호류지를 비롯한 세계문화유산과 불교건축, 불상조각 등의 수많은 국보와 1,430건의 중요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그중에서도 호류지의 48개 불교기념물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서, 불교문화의 일본 전래와 중국식 불교건축의 채택 시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우리 도의 공주와 부여지역 역시 250여 개의 국보급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어 사시사철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특히 이 지역을 찾는 외국인의 80%가 일본 여행객들입니다.

그만큼 일본과 한국은 역사와 문화에 남다른 애정과 향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으로 오는 동안 700여년 간 고대 일본의 수도로서 정치와 문화의 발전을 이끌었던 나라현의 모습에서 깊은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이는 찬란한 백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우리 도와 비슷하다는 데서 오는 친밀감과 함께,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현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도에서는 오는 2010년에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대백제전'을 개최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우선 올해부터 53년의 역사를 가진'백제문화제'의 외연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열리는'제53회 백제문화제'에 나라현의 공연단과 언론 그리고 관광분야의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협약체결이 양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 교류와 협력을 위한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존과 상생의 교류협력

백제 · 아스카 심포지엄 기조연설

2007. 6. 14.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백제와 아스카, 고대로부터 미래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공동주최하신 데구치 쇼사쿠 마이니치신문 오사카본사 사장님과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사로 맞이해 주신 오오타 후사에 오사카부 지사님, 이노꾸마 카네카츠 사천왕사왓소축제 실행위원장님, 정기택 재일본 충청도민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기념강연을 해주실 일본에서 고대사 연구의 제1인자이시며 현재 아시아사학회 회장이신 우에다 마사아끼 교토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패널디스컷숀을 빛내주실 고명하신 패널리스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 평성경과 법륭사 등 고색창연한 유적지를 둘러보며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유산을 소중히 가꾸며 보존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거리 곳곳에서 넘치는 활력을 보며, '일본의 베니스'이자 '동양의 맨체스터'라는 명성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통과 첨단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는 오사카의 모습이 지금 우리 고장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오사카는 재일동포가 많이 살고 있고, 자연환경 또한 충남과 유사하여 남다른 친근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충청남도는 동북아시아 발전의 가교역할을 한 백제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 발전을 이끌며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양 지역 간의 역사·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공존과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저는 지금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일 양국은 서로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상,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은 반도국가로서,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각자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서로의 필요에 의한 교역과 왕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백제시대에는 왕성한 해상활동을 통해 백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문물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때였습니다.

백제는 학자, 승려, 전문기술자 등을 일본에 파견하여 유교, 불교,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도와 문물을 전파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선진문명을 받아들여 고대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일본문화의 원류인 아스카문화를 활짝 꽃 피웠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백제가 멸망한 후에 부흥운동을 벌이던 백제 유민을 도와 '백촌강전투'에 참여하여 나당연합군을 상대로 함께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끈끈한 유대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서로 반목과 대립의 관계가 아닌, 공존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인접한 지역에서 등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은 있었으나 적어도 불연속적이기는 하였지만 양국 간에는 꾸준히 사신이 오가고 교역이 지속되는 등 대체적으로 평화적이며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선린우호관계가 끝까지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16세기의 두 차례에 걸친 조선 침입과 19세기말의 한국 강점은 양국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양국은 다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는 등 교류가 지속되었습니다.

비록 일본의 한국 침략이 우리민족의 대일 감정을 악화시키고 끝내는 양국 사이를 '가깝고도 먼 나라'로 만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양국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는 양국 모두 역사의 아픔과 질곡보다는, 그동안 다져진 우의와 앞날에 대한 희망이 더욱 소중함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한·일 간에는 뿌리 깊은 적대의식과 경쟁의식이 있어서, 결코 가까워 질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문제 등 양국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분야도 일부 있습니다.

또, 기성세대들은 스포츠에서 다른 나라에게 지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한·일전에서 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상호 간에는 수많은 침탈과 저항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선의의 경쟁관계에 있다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양국 관계는 대립보다는 협력이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념보다는 실리를, 냉전보다는 화해를 추구하며 국가 간의 장벽을 넘어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지구촌이 점차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개방과 경쟁만이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소련,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인도 등 과거에 적대적 관계에 있던 나라들도 지금은 상호 공존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일·중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차치하고서라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무역상대국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거사에 집착만 한다면 이는 결코 양국 모두에게 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수의 경영관련 베스트셀러를 쓴 고오츠카 타케시는 '남과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과 미래'뿐이다."라고 하여

진정한 변화의 중심은 남보다는 자신에게, 과거보다는 미래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충남과 관서지역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로가 다른 점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감대를 좀 더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으면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찌개가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개인별로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또, 한국의 결혼식은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일본의 결혼식은 사전에 한정된 인원만을 예약하여 치러집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과 일본은 다른 점이 매우 많은 이질적인 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 일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오랫동안 각자 별개의 문화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만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도록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자세야말로

서로가 한 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두 번째, 교류의 첫 단계는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문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문화는 '국경이 없는 언어'로서 그 나라를 올바로 알리고, 전 세계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월드컵의 공동개최로 한·일 양국은 더욱 공고한 우호협력의 기반을 다졌는가 하면, '겨울연가'로부터 비롯된 '한류열풍'은 일본은 물론, 아시아를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가치와 정신이 현대적 감정에까지 연속되는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자치단체마다 고유한 특성과 문화자원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양 지역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찾아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양 지역은 자연환경은 물론, 인문환경 또한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종학적으로는 몽골리안이며, 언어도 구조상 닮은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근간을 이루는 유교와 불교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양 지역은 문화적으로는 이미 1,600년 전부터 백제와 아스카라는 고대문화를 함께 꽃 피웠습니다.

여기 관서지역은 또한 일본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백제사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양 지역에서는 '사천왕사 왓소축제'와 '백제문화제' 등

기존의 축제는 물론, 2010년에는 '대백제전'과 '평성경 천도 1300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러한 문화적 전통과 유대를 잘 살려 나간다면, 한층 더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설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와 NPO법인왓소문화교류협회 간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 및 중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0년에는 현재 지역축제에 머무르고 있는 '백제문화제'를 한 · 일 · 중 3국이 함께 참여하는 '대백제전'으로 확대하여 세계적 수준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지난 4월에 백제와 연관이 깊은 중국의 장쑤성을 방문하여, 이에 대해 긍정적인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오사카에서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백제전'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은 물론, 전폭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Win-Win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글로벌경제가 확산되면서 국가별로 FTA를 체결하거나, 심지어 경쟁기업끼리도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공공기관이라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려 나가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시장개척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과거 전통적인 농업지역에서 이제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정밀화학, 영상산업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업체와 투자자본이 쇄도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이러한 여건과 도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해외투자와 기업체 유치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부문에서 전국 1위, 1인당 국민소득 전국 2위 수출실적 전국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오사카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중심지로서, 전통적인 상업도시의 면모 이외에 오늘날에는 기계, 금속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 지역 간에 동종 또는 이종 산업별로,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로를 보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에 마침 기업인과 상공인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신만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에게 유익한 상생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일본 속담에 '우메보시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1,600년 전부터 백제와 아스카를 통해 맺어진 충남과 관서지역의 오랜 인연이 앞으로도 지속되어, 공존과 상생을 위한 교류협력이 더욱

활기차게 펼쳐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200만 충청남도 도민 모두는 여러분과 함께 양 지역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방문이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이처럼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제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속에 관서지방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시대의 상생협력

한·일 경제·문화인 교류의 밤 만찬사

2007. 6. 14.

존경하는 아라이 쇼오고 나라현 지사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한·일경제문화인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빛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오사카는 현재 일본경제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츠시타와 산요 등의 가전업체와 화학, 섬유, 강철 등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칸사이 국제공항의 개항과 바이오, IT산업 등의 성장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의 새로운 비즈니스 거점으로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충남 역시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웠던 지역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아산 신도시 개발 등에 힘입어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금년 4월말 현재 우리 도의 수출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의 수출 호조에 따라 142억 불의 수출실적을 거둠으로써, 수출 점유율 12.1%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무려 4달째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간에도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양 지역이 새롭게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방문단이 관서지역에서'백제와 관서, 고대로부터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벤처기술교류회와 농수산물 판촉전을 개최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이번 방문이 양 지역간 경제·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건강해야 만이 의욕도 생기고 일도 활기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도의 세계적 특산품인 금산인삼을 주제로 한 요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소찬입니다만, 모쪼록 맛있게 드시면서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도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의 수출판로 개척

농수산물판촉전 개막식 인사말씀

2007. 6. 15.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프코퍼레이션 가도마점에서 충청남도 농수산물 판촉전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우리 충남도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정화태 총영사님을 비롯한 교민과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한 농산물유통공사와 김해관 동원F&B 사장님 이와사키 타카하루 라이프코퍼레이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충남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심이 온후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전체 인구의 24%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도입니다.

더불어 삼면이 바다와 연접해 있어 김, 꽃게, 젓갈류 등의 청정 해산물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도에서는 한·미 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우리 농·수산물의 최대 수출지역인 일본에서 판촉전을 마련한 것도, 바로 우리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여기 라이프코퍼레이션의 가도마점은 평일에는 3,000명, 주말에는 6,000명 정도의 고객이 이용하는 대형 매장으로서 우리 농·수산물의 판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세계인이 안심하고 구입하여 드실 수 있는 고품질의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도 농수산물의 세계화를 향한 우리 도의 힘찬 발걸음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많은 애용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판촉전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의 문화향유

제11회 충남무용제 격려사

2007. 6. 16.

오늘 우리고장 무용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제11회 충남무용제가 열린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원유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무용수의 해외진출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올 초에는 국제대회에서 무용수들의 잇단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현대무용 이선아의 요코하마 댄스 컬렉션 대상 수상, 스위스 로잔 국제발레 콩쿠르에서 박세은의 그랑프리 수상 등이 바로 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무용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힘차게 웅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 무용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천은, 손바닥 장단만으로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우리민족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용 지도자의 열정과 성실한 지도,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이겨내며 연습에 정진하는 무용수, 그리고 무용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성원 또한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충남무용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와 우수 무용단체들의 등용문, 그리고 지역민의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우리 도를 대표해 제16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단체의 선발을 겸하여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경연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무용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가운데, 우리 고장과 우리나라 무용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무용협회 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 대학

대전대학교신문사 기고문

2007. 6. 18.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아래서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은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그동안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IMD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교육 이수율은 47%로 세계 4위이나, 대학교육 경쟁력은 61개국 중 50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보다는 잘 뽑는 데 주력하고 있는 듯하다.

대학별로 '백화점식' 학과를 운영하는가 하면, 천편일률적인 '일류대학 따라하기'를 답습하고 있다.

기업의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매년 대기업 신입사원을 재교육하는 데

아까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수도권의 대학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지방대학들은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학의 현주소이다.

지금 우리사회를 대변하는 화두는 '개방과 경쟁', '변화와 혁신'이다.

기업은 물론, 정부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제 대학도 변화해야 하며 오히려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먼저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시장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학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은 기업에 신기술을 제공하고, 기업은 대학에 자본을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대책 없이 석·박사를 양산하기보다는 대학의 여건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우위분야를 찾고, 이를 특화시켜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혁신과 경쟁확산을 통해 대학 스스로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학연과 서열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평생교육을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며, 늘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살아 있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일과 학습이 연계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교양강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과 수준을 제고시키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이 학생이나 기업, 주민을 포함한 고객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나는 우리 대학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러한 과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가리라고 확신한다.

자유수호 의지

제54주년 반공의날기념 및 국가안보결의대회 격려사

2007. 6. 18.

오늘 반공의 날을 맞아 자유수호 의지를 되새기는 국가안보결의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유수호라는 일념 하나로 공산군 포로들과의 목숨을 건 투쟁에서 이념을 굽히지 않았던 수많은 애국 반공인사들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윤승섭 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종건 홍성군수님, 이규용 홍성군의회의장님, 그리고 각 시·군 지부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보협의회 회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 실험으로 한때 한반도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는가 하면, 금년 2월과 4월의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다할 신뢰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땀 흘려 가꾸고 지켜 온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언제 잃어버릴지도 모를 위험에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는 한 남·북간의 교류와 화해와 협력은 결코 진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걷어내 화합하고 일치단결하여 건강한 사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의 따뜻한 정과 사랑

2007년 세계한인회장대회 환영사

2007. 6. 21.

오늘 2007년 세계한인회장대회를 맞아 세계 각지에서 우리고장을 방문해 주신 한인회장님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구홍 재외동포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진 재일민단중앙본부단장님 승은호 인도네시아 한인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인회장님 여러분!

이른 바' 애니깽'으로 지칭되는 한인해외이주 100여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고난과 역경의 극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토록 힘든 시련과 고통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시는 가운데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당당히 서셨습니다.

저도 교류협력차 동남아와 유럽 등을 방문했습니다만, 그 때마다 우리 교민사회의 발전상을 보고 들으며 참으로 기쁘고도 뿌듯하였습니다.

이처럼 교민사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고향에 대한 애정이 유달리 남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한숨과 연민으로만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여,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받는 자랑스러운 국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매년 30%가 넘는 수출성장세를 지속하며,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첨단산업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과 투자자본을 유치하는가 하면,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에 있어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신다면, 저는 우리 충남이야말로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희망의 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가운데 고향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새롭게 느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개소식 격려사

2007. 6. 21.

오늘 우리고장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가 될 도자원봉사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인식 센터장님과 김경숙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의장님, 박공규, 김성중, 황우성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자원봉사 가족 여러분!

우리사회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원봉사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원봉사가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닌 열정과 노력이야말로 우리사회를 보다 밝고 훈훈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재난재해 전문봉사단과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범 도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우리고장을 인정과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나눔과 배려를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전도사라는 긍지를 갖고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개소식이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가운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도자원봉사센터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의 소중함과 자유수호

6·25전쟁 제57주년 기념행사 격려사

2007. 6. 22.

오늘 국가안보의 소중함과 자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6·25전쟁 제57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 그리고 전몰군경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류근찬 국회의원님, 신준희 보령시장님, 박정희 도의원님, 최돈철 보병제97연대장님, 최옥성 6·25참전유공자회충남도지부장님 이기영 상이군경회충남지부장님, 조용구 무공수훈자회충남지부장님, 방효진 전몰군경유족회충남지부장님, 윤석경 대전·충남 광복회장님, 박영진 보령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참전용사와 상이군경 여러분!

그리고 호국유공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만, 6·25전쟁처럼 이념의 차이로 인해 동족 간에 총칼을 겨눈 전쟁은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전 국토의 80%이상이 파괴되고 4백만 명의 동포가 죽고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16개국에서 연 인원 590여 만 명이 UN군으로 참전하여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6·25전쟁은 분명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민족의 상처로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6·25전쟁을 통해 국가안보와 자유수호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게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잊지말아야할 것은 국가안보는 스스로 지키지 않는 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 대화합을 통하여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국가안보와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널리 일깨우는 가운데, 우리의 염원인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 다 같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 공동발전의 밑거름

제1회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축사

2007. 6. 24.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충청권 생활체육인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성대한 체전이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충청권은 한 가족으로 살아왔으며, 오늘 이 대회는 바로 이러한 유대와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땀과 함성이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문화를 꽃피우는 기폭제

충청문학 제18집 발간사

2007. 6. 25.

녹음이 짙어만 가는 초여름의 문턱에서 우리 고장 문인 여러분의 주옥같은 글을 모은'충청문학 제18집'이 발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작품집이 발간되기까지 정성을 다해주신 이우재 충청문인협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마음 깊은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러운 회원 여러분!

말과 글의 탄생과 함께 비롯된 문학은 그동안 인간의 감성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수단이 돼왔으며, 오늘날에도 다양한 예술 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안에서 잠깐 읽는 시 한 구절, 이별의 아픔을 담은 영화 속의 명대사 한 토막 등은 바쁜 생활에 쫓기며 사는 우리들에게 순수한 감성의 세계에 젖어드는 길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아름답고도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이야말로 현대생활의 청량제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라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발간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고장 향토작가들을 중심으로 작품집을 발간해 온 충청문학이 어느덧 성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열악한 여건을 극복해오며 이룬 값진 결실이기에 더욱 뿌듯하게 생각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작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흔히 21세기를 일컬어 문화와 감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문화는 국경이 없는 언어로서 국내는 물론, 지구촌을 하나로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연가'로부터 비롯된 한류열풍이 아시아를 뜨겁게 달구며,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보면 문화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통·통신과 미디어 매체의 발달은 다양한 문화의 전파와 교류를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대중화와 지방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고유의 정서와 향기를 담은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은 더욱 특색 있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예술혼이 더욱 밝게 타올라 지방문화를 활짝 꽃피우게 하는 기폭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발간된 이 책자가 주민 여러분의 폭넓은 사랑 속에 널리 읽혀지길 기대합니다.

향토색 짙은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충청문인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등도정 구현의 공로자

2007년도 상반기 퇴임식 행사 격려말씀

2007. 6. 26.

오늘 오랜 기간동안 도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다가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네 분께, 전 직원을 대표하여 마음 깊은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네 분께서 공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변함없이 사랑과 정성으로 내조를 해 오신 사모님들과 가족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린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충남정신 발양과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김인식 법제자료담당관께서는 열린 의회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정동설 사무관께서는 지하수의 안정적인 개발과 관리에, 지석오 주사께서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용차량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충남이 일등도정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한 평생을 주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숨은 공로자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더 근무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어 무척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든 도청을 떠나시더라도 동료 공직자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변함없이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공직자들은 여러분께서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지혜와 경륜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네 분의 영예로운 퇴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품질문화 정착

2007년도 충청남도 품질경영대회 치사

2007. 6. 26.

오늘 우리고장 기업들의 품질문화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품질경영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주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품질경영에 앞장서 오신 공로로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이순묵 한국표준협회 대전충남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계형 한국표준협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경쟁기업끼리도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생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이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구노력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실례로 10여 년 전에 겪은 IMF 경제위기도 바로 이같은 노력을 게을리 한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 등 후발개도국은 우리를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고 일본은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 저만큼 달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같은 대회를 마련한 것도, 바로 품질경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현재 여러분께서 벌이고 있는 품질경영활동이야말로,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선진경영시스템 연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도내 기업들의 품질경영 향상을 위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품질경영만이 무한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잊지 마시고, 기업의 제반분야에서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우리고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자생력 제고

충청지역 혁신대장정2007 축사

2007. 6. 27.

오늘'하나되는 충청발전, 국가의 희망'을 주제로'충청지역 혁신대장정 2007'의 막이 오른 것을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충청지역 혁신협의회와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한범덕 행정자치부 제2차관님, 정진철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님, 김신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 오제직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여러분!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발전을 원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역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함께 참여하는 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바로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잘 사는 고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균형발전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5년간 3,0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 동력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대전·충북과 함께 손잡고, 충청권공동체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공조와 협력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축제가 지역의 혁신역량을 한데 모아 살기 좋은 충청권을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융과 화합의 정신 구현

제28차 한·일 불교문화교류 해인사대회 환영사

2007. 6. 27.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8차 한·일 불교문화교류 해인사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모시고 만찬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미야바야시 쇼우겐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 불교 각 종단 대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관 회장님을 비롯한 원로대덕스님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일찍이 신라의 원효대사께서는 "물과 얼음이 근본적으로 같듯이, 서로 다른 주장들도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므로 다르지 않다."라고 갈파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하나로 융합한다는 원융회통(圓融會通)사상은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원융과 화합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한 · 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충청남도는 백제의 중심지였고, 백제와 아스카문화는 불교를 중심으로 교류해왔습니다.

우리도가 2010년 한 · 일 · 중 3국을 포함한 백제와 교류했던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백제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 상생과 화합의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원로대덕스님 여러분께서 양국 간 불교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틀 동안 바쁜 일정 소화하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드시면서, 정담을 나누시는 오붓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 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제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축사

2007. 6. 29.

오늘 자율관리어업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전국 각지에서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이종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님,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수산가족 여러분!

바다는 식량의 중요한 공급처이자, 인류의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을 높여줄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바다는 점점 오염되어 가고 무분별한 어획으로 수산자원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다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오염 방지와 수산자원의 보호·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바로 어업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바다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잘 관리하고 조성하여 어가소득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풍요로운 새 어촌을 건설하자는 운동입니다.

저는 자율관리어업의 안정적인 정착이야말로 어업인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어업과 어촌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대회가 어업인 스스로가 바다를 잘 관리하면서,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보령에 오신만큼, 조개껍질의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도 둘러보시고 머드화장품의 진한 향에도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어업인 여러분께 늘 만선의 기쁨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분야별 연설문 색인 목록)

〈 기획 · 혁신 분야 〉

▶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 승격 현판식 축사 / 7. 5. ····· 9
▶ 성공적인 민선4기를위한 과제와전망 토론회 환영사 / 7. 14 ····· 27
▶ 충남교육사 발간 축사 / 8. 1. ····· 41
▶ 제5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개원식 축사 / 9. 1. ····· 68
▶ 민선4기 도정운영기조 정립 세미나 인사말씀 / 9. 1. ····· 73
▶ 지방자치포럼 환영사 / 10. 18. ····· 174
▶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안 공청회 축사 / 10. 31. ····· 208
▶ 한국의중심, 강한충남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 / 11. 3. ····· 212
▶ 2007대전 · 충남교육계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 1. 3. ····· 310
▶ 충청남도학원연합회 신년하례회 축사 / 1. 27. ····· 333
▶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 서산출장소 승격 현판식 축사 / 1. 31. ····· 335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기공식 축사 / 2. 5. ····· 341
▶ 충남개발공사 개청식 축사 / 2. 6. ····· 343
▶ 2006학년도 청양대학 학위수여식 치사 / 2. 8. ····· 345
▶ 2007학년도 청양대학 입학식 축사 / 3. 2. ····· 367
▶ 2006년도 재정분석우수기관 시상식 환영사 / 3. 26. ····· 395
▶ 충청남도지역혁신협의회 전체협의회 및 지역혁신세미나 격려사 / 4. 6. ····· 415
▶ 2007년 충남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격려사 / 6. 5. ····· 495
▶ 2007년 세계한인회장대회 환영사 / 6. 21. ····· 525
▶ 충청지역 혁신대장정2007 축사 / 6. 27. ····· 539

〈 자치행정 · 사회단체 분야 〉

▶ 제35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취임사 / 7. 3. ····· 1

▶ 도지사 취임 감사 서한 / 7. 4. ····· 7
▶ 유덕준 행정부지사 퇴임식 치사 / 7. 5. ····· 12
▶ 2006대전 · 충남 지방자치총람 발간 축사 / 7. 8. ····· 17
▶ 제11회 서산시자율방범가족 한마음대회 축사 / 7. 9. ····· 19
▶ 중도일보사 기고문 / 7. 10. ····· 21
▶ 제1회 유림경로효친대상 시상식 축사 / 7. 14. ····· 31
▶ 강원도지사에게 보내는 서한 / 7. 20. ····· 37
▶ 제61주년 광복절경축행사 경축사 / 8. 15. ····· 51
▶ 도민예절생활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 격려사 / 8. 29. ····· 63
▶ 디트뉴스24 창간6주년기념 세미나 축사 / 8. 30. ····· 65
▶ 재독충청회임원진초청 만찬 인사말씀 / 9. 8. ····· 83
▶ 제6회 전국청소년적십자백일장대회입선작 시상식 격려사 / 9. 13. ····· 88
▶ 제11회 스승존경과제자사랑의글 및 편지공모입선작 시상식 격려사 / 9. 18. ····· 10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대표위원 워크숍 인사말씀 / 9. 19. ····· 109
▶ 제11회 도민의 날 담화문 / 10. 5. ····· 146
▶ 추석명절 담화문 / 10. 6. ····· 149
▶ 제560돌 한글날 경축식 경축사 / 10. 9. ····· 151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종사자 격려 인사말씀 / 10. 16. ····· 170
▶ 재부충청연합향우회 창립1주년 기념식 격려사 / 10. 19. ····· 176
▶ JCI KOREA 제55차 전국회원대회 축사 / 10. 22. ····· 180
▶ 제12회 도의새마을운동촉진대회 치사 / 10. 25. ····· 190
▶ 도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대회 인사말씀 / 10. 28. ····· 200
▶ 도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대회 마무리 인사말씀 / 10. 28. ····· 202
▶ 제16차 충남지구JC특우회 우정의날 축사 / 10. 29. ····· 204
▶ 충남 시 · 군의회의원 의정연수회 축사 / 11. 6. ····· 218
▶ 대한적십자사창립 101주년기념 지사연차대회 축사 / 11. 9. ····· 220
▶ 대전일보창간 56주년기념 제33회 대일비호대상 시상식 축사 / 11. 9. ····· 226

▶ 2006년도 통일로가는한마음충청남도대회 및 제37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 격려사 / 11. 13. ····· 236
▶ 2006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만찬 치사 / 11. 14. ····· 238
▶ 제13회 도의새마을여인상시상식 및 행복한가정가꾸기실천대회 치사 / 11. 20. ····· 24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능대표위원 워크숍 인사말씀 / 11. 22. ····· 248
▶ 인터넷신문 엔씨엔뉴스 창간 축사 / 11. 23. ····· 257
▶ 재인충남도민회정기총회 및 송년의밤 행사 축사 / 11. 24. ····· 263
▶ 충남여성자율방범연합대창립 발대식 및 범죄없는 1등도민운동결의대회 축사 / 11. 28. ····· 267
▶ 2006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회원전진대회 축사 / 12. 8. ····· 281
▶ 전국자원봉사활동체험 우수사례집 발간사 / 12. 12. ····· 287
▶ 제6회 목요언론인상시상식 및 제1회 언론인자녀 장학금수여식 축사 / 12. 14. ····· 293
▶ 제10기 정예공무원양성과정 수료식 기념사 / 12. 15. ····· 295
▶ 2006충청남도자원봉사자대회 대회사 / 12. 20. ····· 298
▶ 2006하반기 정년퇴임식 치사 / 12. 27. ····· 304
▶ 2006년 송년사 / 12. 31. ····· 306
▶ 2007년도 신년사 / 1. 1. ····· 307
▶ 2007년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 1. 2. ····· 308
▶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창립1주년기념행사 / 1. 5. ····· 312
▶ 중도일보사 '월요아침' 기고문 / 1. 15. ····· 322
▶ 2007년도 충남지구 JC특우회장 이·취임식 축사 / 1. 18. ····· 325
▶ 오병주 부장검사 출판기념회 축사 / 1. 25. ····· 329
▶ 충청향우회중앙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행사 축사 / 1. 26. ····· 331
▶ 퇴임식 격려사 / 1. 31. ····· 337
▶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 개원식 축사 / 2. 1. ····· 339
▶ 명예퇴임식 인사말씀 / 2. 9. ····· 347
▶ 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협의회 정기총회 축사 / 2. 9. ····· 349
▶ 제88주년 3·1절기념행사 기념사 / 3. 1. ····· 362
▶ 삼일절기념 조찬기도회 인사말씀 / 3. 1. ····· 365

▶ 한국자율방범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범죄예방결의대회 축사 / 3. 8. ····· 381
▶ 2007행정동우회 정기총회 축사 / 3. 23. ····· 393
▶ 재난 · 재해 전문봉사단 발대식 대회사 / 3. 27. ····· 397
▶ 제1회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축사 / 4. 1. ····· 407
▶ 충남통일관 개관식 축사 / 4. 5. ····· 411
▶ 제44회 법의 날 기념행사 축사 / 4. 25. ····· 431
▶ 제38차 충남지구JC회원대회 축사 / 5. 5. ····· 454
▶ 2007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행사 축사 / 5. 11. ····· 456
▶ 제7회 전국 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 대회사 / 5. 12. ····· 458
▶ 국제로타리3620지구 제12년차 지구대회 축사 / 5. 13. ····· 460
▶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격려사 / 5. 15. ····· 466
▶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등점등식 축사 / 5. 16. ····· 468
▶ 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행사 격려인사 / 5. 19. ····· 472
▶ 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행사 마무리인사 / 5. 19. ····· 474
▶ 희망충남 도민화합 걷기대회 축사 / 5. 26. ····· 478
▶ 대전 · 충남기자협회체육대회 축사 / 5. 26. ····· 480
▶ 대전 · 충남적십자봉사원 한마음 체육대회 축사 / 6. 5. ····· 493
▶ 제13회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 축사 / 6. 8. ····· 497
▶ 대전대학교신문사 기고문 / 6. 18. ····· 520
▶ 제54주년 반공의날기념 및 국가안보결의대회 격려사 / 6. 18. ····· 523
▶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개소식 격려사 / 6. 21. ····· 527
▶ 6 · 25전쟁 제57주년 기념행사 격려사 / 6. 22. ····· 529
▶ 2007년도 상반기 퇴임식 행사 격려말씀 / 6. 26. ····· 535

〈 문화관광 · 체육청소년 분야 〉

▶ 제9회 보령머드축제개막 만찬 인사말씀 / 7. 15. ····· 33
▶ 충청남도지 발간 축사 / 8. 4. ····· 46
▶ 2006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축사 / 8. 8. ····· 48
▶ 제24회 충청남도연극제 축사 / 8. 26. ····· 59
▶ 수덕사 본사 · 말사 합동영산대재 축사 / 9. 2. ····· 76
▶ 제6회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심포지엄 축사 / 9. 8. ····· 80
▶ 대전일보사 기고문 / 9. 14. ····· 90
▶ 제2회 대천해변 통기타 음악축제 축사 / 9. 15. ····· 100
▶ 제14회 샌프란시스코 한국의날 민속축제 축사 / 9. 16. ····· 102
▶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축사 / 9. 19. ····· 107
▶ 제16회 민속대제전 격려사 / 9. 22. ····· 123
▶ 제52회 백제문화제 개회식 치사 / 9. 28. ····· 132
▶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식 치사 / 9. 28. ····· 135
▶ 제15회 세계사물놀이겨루기 한마당 축사 / 9. 30. ····· 139
▶ 제10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주부풍물대회 치사 / 9. 30. ····· 141
▶ 제7회 박동진 판소리명창 · 명고대회 축사 / 10. 11. ····· 157
▶ 제5회 충남도지사기 일반풍물대회 축사 / 10. 12. ····· 159
▶ 제17회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축사 / 10. 15. ····· 166
▶ 제87회 전국체전선수단 결단식 격려사 / 10. 16. ····· 168
▶ 지상군페스티벌 및 디펜스아시아2006 개막식 축사 / 10. 18. ····· 172
▶ 제5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대회사 / 10. 28. ····· 198
▶ 제87회 전국체전선수단 해단식 축사 / 11. 2. ····· 210
▶ 제8회 금강청소년영상예술제 시상식 축사 / 11. 4. ····· 214
▶ 충남문화 발간 축사 / 11. 4. ····· 216
▶ 충청남도 청소년CYS-net통합지원체제 출범식 격려사 / 11. 9. ····· 224
▶ 2006충남문화예술인대회 축사 / 11. 11. ····· 228

▶ 제5회 전국구간마라톤대회 개회식 축사 / 11. 11. ····· 230
▶ 동아일보 2006백제마라톤대회 축사 / 11. 12. ····· 232
▶ 2006년도 청소년지도위원연수 격려사 / 11. 24. ····· 265
▶ 2006밝은사회를위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축사 / 12. 21. ····· 300
▶ 세계군평화축제 자문회의 인사말씀 / 3. 20. ····· 385
▶ 고려개국공신 태사무공공 복지겸장군 숭모식 추모사 / 4. 7. ····· 418
▶ 백제문화 대토론회 인사말씀 / 4. 26. ····· 434
▶ 백제문양 특별전 축사 / 4. 30. ····· 438
▶ 제5회 왕의 물 축제 격려사 / 5. 4. ····· 449
▶ 2007세계민족궁 대축전 축사 / 5. 13. ····· 462
▶ 제16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축사 / 5. 18. ····· 470
▶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축사 / 5. 24. ····· 476
▶ 제14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 축사 / 5. 26. ····· 482
▶ 2007국민생활체육 전국대축전 출전식 격려사 / 6. 1. ····· 489
▶ 백제문화제 관광홍보설명회 인사말씀 / 6. 11. ····· 499
▶ 백제 · 아스카 심포지엄 기조연설 / 6. 14. ····· 505
▶ 제11회 충남무용제 격려사 / 6. 16. ····· 518
▶ 제1회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축사 / 6. 24. ····· 531
▶ 충청문학 제18집 발간사 / 6. 25. ····· 532
▶ 제28차 한 · 일 불교문화교류 해인사대회 환영사 / 6. 27. ····· 541

〈 농림 · 해양수산 분야 〉

▶ 품목별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격려사 / 7. 27. ····· 39
▶ 금산인삼약초시험장 개청식 식사 / 8. 3. ····· 43
▶ 인삼음식 페스티벌 축사 / 8. 28. ····· 61

▶ 2006충남농민전진대회 축사 / 9. 9. ····· 85
▶ 2006충남4-H인 한마음대회 치사 / 9. 15. ····· 96
▶ 제5회 충남여성농업인대회 치사 / 9. 19. ····· 112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막식 환영사 / 9. 21. ····· 119
▶ 재인충남도민회장에게 보내는 충남쌀홍보 감사 서한 / 9. 29. ····· 137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폐막식 치사 / 10. 15. ····· 163
▶ 제42회 충청남도4-H경진대회 시상식 축사 / 11. 9. ····· 222
▶ 2006축산인 한마음축제 격려사 / 11. 15. ····· 240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화보집 발간 축사 / 11. 18. ····· 244
▶ 제14회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 기념사 / 11. 24. ····· 259
▶ 임업인 한마음다짐대회 격려사 / 12. 11. ····· 283
▶ 2006년도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 대의원대회 격려사 / 12. 12. ····· 285
▶ 대산항개발사업(1단계 1차사업)준공식 축사 / 12. 22. ····· 302
▶ 제11기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및임원 취임식 축사 / 1. 25. ····· 327
▶ 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장단 이·취임식 축사 / 2. 14. ····· 353
▶ 최고농업인 소식지 발간사 / 2. 15. ····· 356
▶ 충남지역농수산물 수출증진을위한 전략개발 심포지엄 축사 / 2. 22. ····· 358
▶ 천안시축산발전협의회 창립총회 축사 / 3. 5. ····· 372
▶ 2007년도 농약판매업관리인교육 축사 / 3. 6. ····· 377
▶ 2007논산딸기 축제 치사 / 4. 6. ····· 413
▶ 2007년도 어린 참게 방류행사 인사말씀 / 5. 14. ····· 464
▶ 농·수산물판촉전 개막식 인사말씀 / 6. 15. ····· 516
▶ 제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축사 / 6. 29. ····· 543

〈 경제통상·국제교류 분야 〉

▶ 하북성 지원스성장 환영만찬 만찬사 / 7. 10. ····· 25

▶ 기업인워크숍 및 자치단체장과의만남행사 인사말씀 / 7. 18. ····· 35
▶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충청남도선수단 결단식 식사 / 9. 19. ····· 114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막 환영리셉션 인사말씀 / 9. 21. ····· 121
▶ 제13회 충청남도기업인대회 대회사 / 9. 27. ····· 125
▶ 충청지역의 고용상황과 일자리창출관련 세미나 기조연설 / 9. 27. ····· 129
▶ 구마모토현지사 환영만찬 만찬사 / 10. 10. ····· 153
▶ 노사화합 한마음다짐대회 격려사 / 10. 24. ····· 182
▶ 지역경제활력화 대토론회 축사 / 10. 24. ····· 186
▶ 충남디스플레이센터 개소식 개회사 / 10. 25. ····· 188
▶ 현대일관제철소 기공식 축사 / 10. 27. ····· 194
▶ 2006대전 · 충남중소기업엑스포 및 채용박람회 축사 / 10. 27. ····· 196
▶ 건전소비생활 범도민다짐대회 격려사 / 10. 31. ····· 206
▶ 충청남도 산업디자인공모전 시상식 축사 / 11. 22. ····· 250
▶ 크리스탈밸리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회사 / 11. 22. ····· 252
▶ 2006충남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축사 / 11. 23. ····· 255
▶ 2006충남벤처인 대회 축사 / 11. 29. ····· 269
▶ 충청남도근로자복지회관준공 및 개관식 기념사 / 12. 6. ····· 273
▶ 제43회 무역의날기념 충청남도수출탑 시상식 격려사 / 12. 6. ····· 275
▶ 제1회 충청남도우수중소기업제품 및 전통공예품전시판매전 개회사 / 12. 7. ····· 277
▶ 기업인 워크숍 치사 / 12. 13. ····· 289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 1. 5. ····· 316
▶ 한국전기공사협회충청남도회 제40회 정기총회 치사 / 1. 16. ····· 31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전 · 충남지회장 이 · 취임식 기념행사 축사 / 1. 15. ····· 320
▶ ASM 지니텍코리아 준공식 축사 / 3. 15. ····· 383
▶ 2007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설명회 환영사 / 3. 28. ····· 402
▶ 2007년도 충청남도지방기능경기대회 대회사 / 4. 11. ····· 421
▶ 충청신문사 기고문(한 · 미FTA타결 관련) / 4. 13. ····· 424
▶ 허베이성장 초청 환영만찬 답사 / 4. 17. ····· 427

▶ 장쑤성장 초청 환영만찬 답사 / 4. 20. ····· 429
▶ 알카텔진공코리아 준공식 축사 / 4. 26. ····· 436
▶ 근로자의 날 기념식 축사 / 5. 1. ····· 441
▶ 근로자의 날 담화문 / 5. 1. ····· 443
▶ 제14회 충청남도기업인대회 대회사 / 5. 30. ····· 484
▶ 구마모토현지사 초청 환영리셉션 답사 / 6. 11. ····· 501
▶ 나라현과의 문화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기념사 / 6. 13. ····· 503
▶ 한 · 일 경제 · 문화인 교류의 밤 만찬사 / 6. 14. ····· 514
▶ 2007년도 충청남도 품질경영대회 치사 / 6. 26. ····· 537

〈 보건복지 · 환경 · 여성 분야 〉

▶ 제11회 여성주간기념 제23회 충청남도여성대회 기념사 / 7. 7. ····· 15
▶ 여성단체지도자에게 보내는 서한 / 8. 24. ····· 57
▶ 보육시설장에게 보내는 서한 / 9. 2. ····· 71
▶ 제7회 사회복지의날 행사 기념사 / 9. 4. ····· 78
▶ 건양대학교의과학관 개관식 축사 / 9. 15. ····· 98
▶ 제12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대회사 / 9. 27. ····· 127
▶ 충남장애인시설 예능발표대회 격려사 / 10. 2. ····· 143
▶ 제19회 충남여성포럼 격려사 / 10. 10. ····· 155
▶ 노인솜씨자랑 및 시조경창대회 축사 / 10. 13. ····· 161
▶ 제5회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격려사 / 10. 21. ····· 178
▶ 제14회 충청남도 여성자원봉사자대회 대회사 / 10. 24. ····· 184
▶ 2006충남자활한마당대회 격려사 / 10. 26. ····· 192
▶ 2006충남지체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재활증진대회 축사 / 11. 13. ····· 234
▶ 2006국제결혼가정 한마당축제 격려사 / 11. 17. ····· 242
▶ 2006년도 보건진료원회학술대회 및 제25회 정기총회 치사 / 12. 1. ····· 271

▶ 충남관악단「희망울림」제2회 정기연주회 축사 / 12. 7. ····· 279
▶ 2007충청남도여성계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 1. 5. ····· 314
▶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개소식 격려사 / 2. 9. ····· 351
▶ 2007년도 제11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기총회 치사 / 3. 2. ····· 370
▶ 2007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4기위원 위촉식 축사 / 3. 5. ····· 374
▶ 2007년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기념사 / 3. 22. ····· 390
▶ 대한간호협회충남간호사회 대의원 총회 치사 / 3. 28. ····· 400
▶ 제6회 유관순상 시상식 식사 / 3. 30. ····· 404
▶ 물 통합관리 선언식 식사 / 5. 3. ····· 445
▶ 충청남도워킹협회 2기 임원 출범식 축사 / 5. 4. ····· 447
▶ 제85회 어린이날 기념식 기념사 / 5. 5. ····· 451
▶ 2007년 충청남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축사 / 5. 30. ····· 486
▶ 제12회 환경의 날 담화문 / 6. 5. ····· 491

〈 건설교통 · 소방 · 민방위 분야 〉

▶ 아산신도시 홍보관 개관식 축사 / 7. 14. ····· 29
▶ 2006을지연습실제훈련 강평 / 8. 22. ····· 54
▶ 추부-대전간 국도개통식 축사 / 9. 14. ····· 93
▶ 21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세계종교평화센터건립 세미나 축사 / 9. 21. ····· 117
▶ 제4회 장애인교통문화제 축사 / 11. 24. ····· 261
▶ 도청이전백서 발간 축사 / 12. 14. ····· 291
▶ 2007년도통합방위 지방회의 인사말씀 / 2. 27. ····· 360
▶ 제23회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 축사 / 3. 6. ····· 379
▶ 모범운전자회충남지회 정기총회 축사 / 3. 22. ····· 387
▶ 제39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기념사 / 4. 5. ····· 409

이완구도지사 연설문집 제1권

발행일 - 2007년 7월

발행처 - 충 청 남 도

인쇄처 - 디자인시티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비매품>



www.chungnam.net